



제24차(2021)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장인성 · 이지은 · 신선옥 · 정현상 · 권익성 · 이동선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장인성)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의 개요	(이지은) 5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5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7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0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10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17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9
1. 응답가구의 특성	19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21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3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23
2. 비성공가구의 특성	26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29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32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32
2. 09통합표본 특성	34
3. 18통합표본 특성	38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권익성) 42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2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47
1. 가구주의 특성	47
2. 가구원의 특성	4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0
제4장 가계경제 (권익성)	54
제1절 가구소득	55
1. 가구의 총소득	56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57
제2절 가구지출	59
1. 생활비	60
2. 저 축	63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64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66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67
2. 주택의 종류	70
3. 주거지의 선택	71
제4절 자산 및 부채	72
1. 부동산자산	72
2. 금융자산	74
3. 가구의 부채	76
제5절 자녀 교육비	77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정현상)	80
제1절 경제활동 상태	80
제2절 취업자의 특성	85
제3절 미취업자	90
1. 구직활동	90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93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95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96

제2절 근로시간 99

1. 평균근로시간 99

2. 초과근로시간 103

제3절 임 금 104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104

2. 월평균 임금 106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0

1. 비정규직의 규모 110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12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114

제1절 종사상 지위 115

제2절 근로시간 117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18

2. 주당 근로시간 119

제3절 월평균 소득 122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25

제8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이지은) 127

제9장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 결과 분석 (장인성) 134

제1절 연구 개요 134

제2절 분석 결과 135

1.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및 학습형태의 변화 135

2. 시간 활용 및 일상의 변화 138

3. 정부의 위기관리 및 만족도 141

4. 건강 및 수면	144
5.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평소의 가계 성향	149
6.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 및 종류	150
7. 근무시간 및 형태의 변화	153
제3절 소 결	158
 제10장 성역할 척도 분석	(이동선) 160
제1절 연구 개요	160
제2절 성역할 척도 검증	164
1. 성역할 척도의 타당도	164
2. 성역할 척도의 신뢰도	167
제3절 기초분석	170
1. 가정 내 성역할	171
2. 일터 성역할	178
제4절 소 결	184
 [부록] 부표	186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조사 결과	6
<표 2- 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8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10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12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14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15
<표 2- 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16
<표 2- 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18
<표 2- 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20
<표 2-10>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22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24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 가구 수	25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	27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28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29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31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35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36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37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37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38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39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40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40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41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41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4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5
<표 3- 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6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09통합표본)	48
<표 3- 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09통합표본)	49
<표 3- 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1
<표 3- 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2
<표 3- 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52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57
<표 4- 2> 13차(2021)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58
<표 4- 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09통합표본)	61
<표 4- 4> 13차(2021)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62
<표 4-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09통합표본)	63
<표 4- 6> 13차(2021)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09통합표본)	65
<표 4- 7> 13차(2021)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09통합표본)	66
<표 4- 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67
<표 4- 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70
<표 4-10> 13차(2021)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09통합표본)	71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73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74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77

<표 4-14> 13차(2021)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09통합표본) ...	78
<표 4-15> 13차(2021)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09통합표본) ...	79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81
<표 5- 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82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85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86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87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88
<표 5- 7> 13차(202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09통합표본)	89
<표 5- 8> 13차(202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09통합표본)	90
<표 5- 9> 13차(2021)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92
<표 5-10> 13차(2021)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09통합표본)	94
<표 6- 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95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98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100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1년)	101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1년)	101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1년)	102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1년)	103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09통합표본, 2021년) ...	104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1년)	105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107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108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108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109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1년)	111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114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115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116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09통합표본, 2021년)	118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119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1년)	121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1년)	121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122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09통합표본, 2021년)	123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1년)	124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1년)	125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1년) ...	126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1년)	126
<표 8- 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128
<표 8- 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29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30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32
<표 9- 1> 문1. 평상시 및 코로나 당시 자녀 돌봄 양육자 (a242111-a242116)	136
<표 9- 2> 문2. 학습형태 변화(a242129-a242137)	137
<표 9- 3> 문3. 자녀 돌봄 형태 변화에 대한 생각 (a242156-a242160)	138
<표 9- 4> 문4. 일상생활 시간 변화(13개 항목) (a242201-a242213)	139
<표 9- 5> 문5. 정부 및 지자체 위기 관리 만족도 (a242214-a242221)	142
<표 9- 6> 문6. 국가 경제 전반 걱정(a242222-a242228)	143
<표 9- 7> 문7. 건강 수면 등 일상생활 영향 정도 (a242229-a242234)	145
<표 9- 8> 문8. 분노 및 감정(a242235-a242241)	146
<표 9- 9> 문9. 코로나19 관련 위생 정도(a242242-a242248)	147
<표 9-10> 문15. 검사 여부 및 자가격리(a242401-a242544)	148
<표 9-11> 문10. 코로나19에 대한 인식(a242249)	149
<표 9-12> 문11. 회복 능력 정도(a242250)	149
<표 9-13> 문12. 위험 감수 정도(a242251)	150
<표 9-14> 문13. 가구지원금(a242301-a242312)	151
<표 9-15> 문13. 개인지원금(a242345-a242329)	152
<표 9-16> 문14. 지인에게 돈을 빌림(a242330-a242331)	153

<표 9-17> 문1. 근로시간 변화(a242702-a242705, a242798-a242799)	153
<표 9-18> 문2. 유연근무제 도입 유무(a242706)	154
<표 9-19> 문3. 유연근무제 사용 유무(a242707-a242714)	154
<표 9-20> 문4. 유연근무제 사용 유무(a242718-a242721)	155
<표 9-21> 문5. 휴가 및 휴직 사용 여부(a242722-a242730)	155
<표 9-22> 문6. 근로소득 변화(a242731-a242733)	156
<표 9-23> 문1. 3월 당시 근무 여부(a243102-a243120)	156
<표 9-24> 문3. 영업시간 변화(a243125-a243127)	158
<표 10- 1> 성역할 척도 구성	161
<표 10- 2> 성역할 척도 관련 조사 개요	162
<표 10- 3> 성역할 척도 타당도 분석	165
<표 10- 4> 영역1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166
<표 10- 5> 영역2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166
<표 10- 6> 영역3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166
<표 10- 7> 성역할 척도 영역별 신뢰도 분석(3개 영역)	168
<표 10- 8> 성역할 척도 신뢰도	169
<표 10- 9> 성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173
<표 10-10>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아내가 더 벌면 문제	174
<표 10-11> 연령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176
<표 10-12> 학력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177
<표 10-13> 취업 여부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177
<표 10-14> 성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180
<표 10-15>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취업 어려울 때 남성 우선	181
<표 10-16> 연령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182
<표 10-17> 학력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182
<표 10-18> 취업 여부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183

그림목차

[그림 2- 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23
[그림 2- 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30
[그림 2- 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33
[그림 3- 1] 13차(2021)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46
[그림 4- 1] 13차(2021)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09통합표본)	59
[그림 4- 2] 13차(2021)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09통합표본)	64
[그림 4- 3] 13차(2021)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09통합표본)	68
[그림 4- 4] 13차(2021)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09통합표본)	69
[그림 4- 5] 13차(2021)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09통합표본)	69
[그림 4- 6] 13차(2021)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09통합표본)	73
[그림 4- 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09통합표본) ...	75
[그림 5- 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21년) ...	83
[그림 5- 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1년)	84
[그림 5- 3] 13차(2021)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91
[그림 5- 4] 13차(2021)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09통합표본)	93
[그림 6- 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97

[그림 6- 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97
[그림 6- 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1년)	112
[그림 6-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113
 [그림 7- 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120
 [그림 10-1]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172
[그림 10-2] 가정 내 성역할: 17차와 24차 비교	172
[그림 10-3]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아내가 더 벌면 문제	174
[그림 10-4] 노동패널과 여성가족패널 비교: 가정 내 성역할	175
[그림 10-5] 가정 내 성역할: 집단별 비교	178
[그림 10-6]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179
[그림 10-7]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취업 어려울 때 남성 우선	181
[그림 10-8] 일터 성역할: 집단별 비교	183

요 약

○ 본 보고서의 목적

- 제24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임.
-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1년에 제24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제24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음.

1. KLIPS 24차 조사의 개요

○ 24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98표본 기준,

- 조사성공가구는 총 5,867가구로 원표본 3,161가구와 분가한 2,706가구이고,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838명으로 기존 조사자 11,572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 266명임.
-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63.2%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1.0%포인트 하락,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24차년도 4,533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69.7%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6%포인트 하락

○ 응답 형태를 살펴보면,

-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4.6%임.
- 계속응답가구의 비율은 원가구 대비 39.7%이고, 1차 조사 당

시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개인의 비율은 18.4%임.

-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 실패’가 62.5%, ‘강력 거절’이 22.6%로 나타나, 향후에 KLIPS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사가구를 어떻게 추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09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축적된 09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09통합 13차년도(2021년도)에는 원가구 5,323가구, 분가가구 1,408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3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9.2%로 KLIPS 98표본의 13차년도 72.1%보다 월등히 높아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개인 응답자는 13,531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3,247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284명임.

○ 18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18년부터 축적된 18통합표본은 1차년도 12,134가구로 시작되어 18통합 4차년도(2021년도)에는 원가구 11,043가구, 분가가구 421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92.9%이고, 개인 응답자는 22,679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22,089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590명임.

2.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 평균 가구원 수는 2.6인이고, 1인 가구의 비중이 27.0%로 가장 높음.
- 세대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약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27.0%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75.3%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평균연령은 55.0세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음.
 - 평균연령은 47.8세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각각 26.1%와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3%로 가장 낮음.
-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 1~13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2,275명이며, 13차년도 출생아는 91명으로 남아가 46명(50.5%), 여아가 45명(49.5%)임.
 - 1~13차년도 기간 동안 총 966명이 사망하였고, 13차년도 사망자는 82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6세임.

3. 가계경제

-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 13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5,833만 원(월평균 48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함.
 -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2차년도에 비해 177만 원 증가한 5,833만 원임.
-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에 대해 살펴보면,
 -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

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조사 이후 처음으로 1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3차년도에 다시 상승함.

-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0.8%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71만 7,000원임.

○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28.6%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는 28.5%임.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9.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6%, 87.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입주형태의 분포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0.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 17.5%, 월세 16.8% 순으로 나타남.
-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도 지역이 서울의 2.4배, 광역시의 약 2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지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251만 원인 데 비해 도 지역은 서울의 42% 정도에 해당하는 3억 3,469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2,520만 원임.

○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8.0%로 전년도(18.6%)에 비해 0.6%포인트

트 하락함.

-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 시가총액이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음.

○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을 비중이며 13차년도는 85.0%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3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511만 원이 증가하여 5,044만 원임.

○ 부채를 살펴보면,

-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였다가 2차년도에는 4%포인트 증가한 56.0%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8차년도 이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여 13차년도에는 58.5%로 조사됨.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는 32.3%, 만 6세~재수생 이하는 78.2%이며, 대학생 이상은 11.4%임.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0세~만 5세 이하는 76.5%, 만 6세~재수생 이하는 51.6%, 대학생 이상은 83.8%).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45만 3,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36만 7,000원), 만 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73만 4,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48만 4,000원)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평균 1,166만 5,000원(자녀당 연평균 997만 1,000원)임.
-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28.6%, 만 6세~재수생 자녀의 경우에는

70.0%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78.2%임.

4.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조사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하면,
 - 09통합패널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13차년도(2021년)의 경우 57.4%로 조사됨.
 - 실업자의 비중(ILO 기준)은 1차년도 2.3%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3차년도에는 1.7%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3차년도에 40.8%를 보임.

5. 임금근로자의 특성

-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690명으로, 취업자의 76.4%
 - 특성별로는 고졸 및 대졸(33.2%) 및 40대(24.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33.8%)이, 직종별로는 생산직(33.1%)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임금근로자의 13차(2021)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1시간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성(42.1시간)이 여성(37.7시간)보다 장시간 근로하며, 30대(41.2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음. 또한, 대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41.0, 41.7시간으로 길게 나타남.
 -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13.5%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대부분(96.9%)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

으며, 월급제의 비중(7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봉계약제의 비중(13.5%)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13차(2021)년도 월평균 임금은 288만 2,000원
 - 여성의 월평균 임금(220만 7,000원)이 남성(340만 5,000원)의 64.8%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 임금(353만 2,000원)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았음.
 - 산업별 및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수도업(424만 1,000원)과 전문관리직(349만 4,000원)이 가장 높았음.
 -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437만 1,000원)이,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81만 7,000원)가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음.
- 13차(2021)년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4.5%
 - 유형별 비중은 한시적근로자(27.1%), 시간제근로자(11.9%), 그리고 비전형근로자(9.9%)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42.6%)이 남성(28.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 비중(20.7%)은 남성(5.0%)의 4배 이상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93만 6,000원)은 정규직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6.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는 2,034명으로 취업자의 23.6%
 -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은 자영업자(61.2%), 고용주(23.1%),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15.8%)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13차(2021)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5일로 평균

근로시간은 45.4시간으로 조사됨.

- 1차(2009)년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 비임금근로자의 13차(2021)년도 월평균 소득은 341만 원
- 1차(2009)년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
-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창업자의 85.0%가 창업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77.9%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경우 0.8%로 나타남.

7.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18통합 2차부터 4차(조사년도 2019~2021년)까지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하여,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이동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
- 2020년과 2021년에 계속 취업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은 93.4%, 실업할 확률은 1.1%,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은 5.5%임.
-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남성 : 95.1%, 여성 : 91.0%(2020→2021기준)),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음(남성 : 3.8%, 여성 : 8.0%).
- 연령별로는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40대(96.5%), 30대(94.8%), 50대(94.6%) 순으로 높고, 20대가 87.9%로 가장 낮아, 한 직장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과 학습형태의 변화는 23차 부가조사에서와 대체로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남.

-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16.7%에 달함.
- 다만 23차 조사와 비교할 때 학습형태의 경우 부모보다는 학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남.

○ 위기관리에 대한 가계의 만족도는 23차 조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으나 24차 조사에서는 상당 폭 하락하여 학교나 직장의 위기 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가계가 코로나19가 자신들의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보다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우려하는 점은 올해도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위기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8점 이상 척도의 만족 비중이 각각 19.2%, 18.6%로 전년도 조사에 비해 하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걱정은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서 32.4%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2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해고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에 대해서는 14.9%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의 수준이 낮았음.

○ 코로나19는 일부 가계에 비대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3차 조사의 12.1%에서 24차 조사에서는 6.9%로 감소하였으며 소득의 감소폭 역시 45.5%에서 29.5%로 줄어들었음.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비중이 24.3%로 나타나 임금근로자 가계에 비해 피해가 더욱 컸음을 시사

○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5%로 낮게 나타났으며 새롭게 도입한 경우도 4.9%로 낮은 수준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의 경우 유형별로는 재택근무제가 37.4%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 근무에 비해 생산적인 형태라고 응답한 비중은 시차출퇴근제가 26.6%로 가장 높았음.
- 향후 코로나19가 근무형태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 가계의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생산적이면서 일과 가정 생활의 병행에 도움이 되는 근무형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9. 성역할 척도 분석

- 한국노동패널은 24차 본조사에 기존 문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여 성역할 척도를 구성, 추가하였음. 가족 내 성역할 및 일터 성역할 관련 총 13개 문항을 구성·반영하였고, 여기서는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일터 성역할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게 나타남. 가정 내 성역할을 측정하는 7개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문항 선택에 따라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구성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가정 내 성역할과 일터 성역할을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함. 가정과 일터 성역할 인식 모두 남성보다 여성,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 취업자에서 성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먼저 가정 내 성역할 분석 결과, 맞벌이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 및 가계소득 기여에 대한 필요성, 아내가 더 버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다만, 취학전 자녀에게 어머니의 취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함.

- ‘맞벌이부부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이 평균 3.0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가계 소득에 기여’ 2.98점,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문제가 발생’(역코딩)이 2.75점으로 3순위임.
-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역코딩)은 2.66점,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 평등’은 2.58점으로 다소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이 일하면 자녀에 부정적 영향’(역코딩)은 2.41점,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가 2.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 비교 결과, 맞벌이부부의 가사 공평 분담에 대해 가장 성평등한 인식을 보임. 반면, 취학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녀 모두 2.4점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점이 더 낮음.

○ 일터 성역할 6개 문항의 분석 결과,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 정도는 상대적으로 성평등하게 나타난 상황이나, ‘남성 일자리 우선’이 가장 점수가 낮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주변화 등과 연결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6개 문항 중 3점이 넘는 문항이 없어 가정 내 성역할 인식보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여성이 많으면 생산성 저하’(역코딩)가 2.8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통솔하지 못함’(역코딩)임. ‘남성 일자리 우선’(역코딩)이 2.61점으로 가장 낮아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문항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점수가 더 낮음. 특히,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방식(일자리, 승진, 관리자 역할 등)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성역할 척도는 일정 수준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조사 결과와도 상이한 패턴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다른 변수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성역할 척도를 본조사에 포함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24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1년에 제24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한국노동연구원원이 생산·점검·관리·공개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 수행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 조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24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161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63.2%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표 2-1 참조).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시대적 상황 및 KLIPS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

2 제24차(2021)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KLIPS는 패널자료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KLIPS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 현장을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기법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KLIPS는 학술대회 특별세션 또는 데이터 워크숍을 통해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쉽게 설명하여 패널자료 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 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품질 개선과 패널자료 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KLIPS의 노력은 한국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촉진하고 학제 간 연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LIPS 유저가이드 및 홈페이지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KLIPS의 사용·분석 등 활용 전반에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27개 질문 위주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KLIPS 자료 정제 및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는 통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SAS와 SPSS, STATA로 삼원화하여 제공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R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반영하여 R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노동패널

홈페이지에 데이터활용이라는 폴더를 신설하여, 통계 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들로부터의 제언을 바탕으로 FAQ 내용 및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FAQ의 개선 및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KLIPS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연장선에서 한국노동패널팀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 및 가구 데이터의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들의 연도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STATA 버전의 SMART_KLIPS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였다. 2021년부터는 STATA 통계 프로그램이 없어도, 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도별·변수별 결합이 가능한 자료추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 설문구조와 연계하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제24차 조사 전반에 대해 개관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KLIPS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 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제6장과 제7장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 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로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동학(dynamics) 분석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9장은 24차 부가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2)’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0장은 24차조사부터 새로이 추가된 성역할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1998~2021년) 자료이다. 세부적으로 조사 개요 부분인 제2장은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98표본, 09통합표본, 18통합표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제7장은 전국 단위의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

4 제24차(2021)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8장은 최근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표본 수가 가장 많은 18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9장 부가조사분석, 제10장 성역할 척도는 모든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24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¹⁾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는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2021년에 실시된 제24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161가구 및 분가

1)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6 제24차(2021)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표 2-1〉 연도별 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명)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 수 ¹⁾	원표본 가구 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 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 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19	6~10월
2차('99)	5,000	4,507	4,378	87.6	87.6	129	12,034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4	4~10월
4차('01)	5,000	4,247	3,866	77.3	77.3	381	11,046	4~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1	4~10월
6차('03)	4,991	4,592	3,862	77.2	77.4	730	11,535	5~9월
7차('04)	4,947	4,761	3,862	77.2	78.1	899	11,656	5~10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3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2	4~10월
11차('08)	4,862	5,116	3,710	74.2	76.3	1,406	11,732	4~10월
12차('09)	4,833	5,306	3,658	73.2	75.7	1,648	11,739	4~10월
13차('10)	4,803	5,379	3,607	72.1	75.1	1,772	11,582	7~12월
14차('11)	4,787	5,404	3,528	70.6	73.7	1,876	11,376	7~익년 2월
15차('12)	4,771	5,469	3,517	70.3	73.7	1,952	11,442	6~12월
16차('13)	4,742	5,501	3,472	69.4	73.2	2,029	11,329	6~12월
17차('14)	4,742	5,552	3,451	69.0	72.8	2,101	10,756	3~10월
18차('15)	4,702	5,632	3,421	68.4	72.8	2,211	11,445	4~11월
19차('16)	4,687	5,714	3,393	67.9	72.4	2,321	11,652	4~11월
20차('17)	4,670	5,761	3,355	67.1	71.8	2,406	11,879	3~11월
21차('18)	4,634	5,796	3,309	66.2	71.4	2,487	11,885	3~11월
22차('19)	4,604	5,823	3,266	65.3	70.9	2,557	11,880	4~11월
23차('20)	4,561	5,838	3,208	64.2	70.3	2,630	11,830	5~익년 2월
24차('21)	4,533	5,867	3,161	63.2	69.7	2,706	11,838	4~11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한 2,706가구를 합하여 총 5,867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63.2%로 전년도에 비하여 1.0%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838명이다.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 세트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조사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표 2-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의사결정(20차) 고용형태(21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비임금근로자(22차) 코로나19(I)(23차) 코로나19(II)(24차)
직업력 자료	KLIPS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다음으로 KLIPS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1,415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²⁾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21차 조사)에는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발생한 표본 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5,044가구의 표본 추가를 실시하여,³⁾ 18통합표본은 12,134가구와 그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23,972명이 조사되었다. 표본을 추가하기에 앞서,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예비조사⁴⁾를 실시하여, 6,034가구를 구축하였다. 이 중 2018년 조사에서 이사 후 추적 실패, 조사 거절 등의 이유로 4,334가구(6,034가구 대비 72%)만이 18통합표본에 포함되었고, 추가 표본을 확대하기 위해 710가구를 추가하여, 총 5,044가구의 신규 표본이 구축되었다.

2019년(22차 조사) 면접조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이사추적 실패 및 방문 면접 거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웹조사인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조사 방법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패널팀에서는 2개년 동안 CAPI와 CAWI의 조사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연구⁵⁾를 진행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CAWI 조사가 CAPI 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 가구원 대비 응답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응답자의 연령이 낮으며, 대리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조사에서 가구조사와 개인

2) 2009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3) 2018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4) 2017년 예비조사는 추가표본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노동패널 본설문(가구설문, 개인설문, 유형설문)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간략한 가구 정보와 가구원 정보만을 수집하였다.

5) CAPI와 CAWI 조사 효과 실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7),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 제7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노동패널 CAWI 실험 데이터의 분석」(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 저술)과 김유빈 외(2018),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I)』 제3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II: 노동패널 CAWI 1차, 2차실험 연구 결과 분석」(이지은·이혜정·신선옥·정현상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사 모두 현행대로 CAPI 조사방법을 유지하되, CAPI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만 CAWI 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⁶⁾하고 있다.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1,415가구 표본 추가
21차	2018년 노동패널 5,044가구 표본 추가
22차	2019년 노동패널 실사 CAWI 시범 도입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⁷⁾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4년도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익년 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6) 웹조사와 기존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 검증은 김유빈 외(2020),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 제5장 「웹을 활용한 조사 자료 검증: 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이지은·채민희 저술);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7)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을 반드시 직접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 작성은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전화로 실시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 개인용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유치 +전화	웹조사
1차('98)	13,319	96.5	64.4	21.8	1.5	2.6	3.7	2.6	0.1	-
2차('99)	12,034	100.0	77.8	7.6	7.4	4.7	2.5	0.1	0.0	-
3차('00)	11,204	99.8	83.0	5.1	5.3	3.9	1.5	0.9	0.2	-
4차('01)	11,046	100.0	83.7	3.4	4.6	4.9	1.2	1.8	0.5	-
5차('02)	10,961	100.0	83.8	2.6	3.9	6.4	1.0	1.0	1.3	-
6차('03)	11,535	100.0	86.3	1.7	3.8	5.7	0.9	1.3	0.4	-
7차('04)	11,656	100.0	88.0	1.7	4.1	3.7	0.4	1.6	0.5	-
8차('05)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
9차('06)	11,753	100.0	89.7	1.5	2.9	2.8	0.7	2.3	0.3	-
10차('07)	11,852	100.0	91.3	1.1	3.2	3.1	0.6	0.6	0.1	-
11차('08)	11,732	100.0	95.7	0.6	1.8	1.3	0.3	0.2	0.1	-
12차('09)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
13차('10)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
14차('11)	11,376	100.0	93.0	0.8	3.2	2.2	0.4	0.3	0.1	-
15차('12)	11,442	100.0	93.6	0.4	4.5	1.3	0.1	0.0	0.0	-
16차('13)	11,329	100.0	95.2	0.5	3.0	1.1	0.1	0.1	0.0	-
17차('14)	10,756	100.0	96.6	0.3	2.3	0.7	0.1	0.1	0.0	-
18차('15)	11,445	100.0	95.2	0.5	3.2	0.9	0.2	0.1	0.1	-
19차('16)	11,652	100.0	96.4	0.4	2.0	0.7	0.4	0.0	0.0	-
20차('17)	11,879	100.0	96.7	0.3	2.2	0.4	0.4	0.0	0.0	-
21차('18)	11,885	100.0	93.8	0.3	4.8	0.6	0.4	0.0	0.1	-
22차('19)	11,880	99.8	96.2	0.2	2.7	0.5	0.1	0.0	0.0	0.2
23차('20)	11,830	99.6	78.7	0.5	19.6	0.6	0.2	0.0	0.0	0.4
24차('21)	11,838	99.5	75.9	0.3	22.4	0.7	0.1	0.0	-	0.5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 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차조사에서 웹조사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어 0.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3차와 24차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접조사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었다. 평균 3~4%로 응답되던 전화조사 응답비율이 22.4%까지 증가하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던 패널의 응답을 이끌어냈다.⁸⁾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대리 응답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2회로 측정되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86.9%, 2~3회 방문이 1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KLIPS 각 연도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8) 코로나19로 인한 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의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98)	13,319	94.1	74.0	19.7	0.4
2차('99)	12,034	100.0	88.7	11.3	-
3차('00)	11,204	100.0	88.3	8.1	3.6
4차('01)	11,046	99.8	83.3	11.0	5.5
5차('02)	10,961	100.0	83.8	9.8	6.4
6차('03)	11,535	100.0	83.1	11.2	5.8
7차('04)	11,656	100.0	85.7	9.7	4.7
8차('05)	11,580	100.0	87.3	5.0	7.7
9차('06)	11,753	100.0	90.0	3.0	7.1
10차('07)	11,852	100.0	90.7	5.6	3.7
11차('08)	11,732	100.0	91.7	5.8	2.6
12차('09)	11,739	100.0	91.4	4.0	4.6
13차('10)	11,582	100.0	93.3	3.9	2.8
14차('11)	11,376	100.0	92.9	4.7	2.4
15차('12)	11,442	100.0	94.5	3.5	2.0
16차('13)	11,329	100.0	94.4	3.6	2.0
17차('14)	10,756	100.0	95.2	3.5	1.4
18차('15)	11,445	100.0	94.9	2.9	2.3
19차('16)	11,652	100.0	96.3	2.2	1.5
20차('17)	11,879	100.0	96.4	2.5	1.1
21차('18)	11,885	100.0	95.7	2.3	2.0
22차('19)	11,880	100.0	96.2	2.3	1.6
23차('20)	11,830	100.0	95.0	2.9	2.1
24차('21)	11,838	100.0	94.6	2.8	2.6

주: 1차년도, 4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이다.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회, %)

	사례 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 체
1차('98)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99)	4,507	2.3	1.6	41.7	40.5	11.7	6.2	100.0
3차('00)	4,266	2.6	2.0	34.2	43.2	15.4	7.3	100.0
4차('01)	4,247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02)	4,298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03)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04)	4,761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05)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06)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07)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08)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09)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10)	5,379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11)	5,404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12)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16차('13)	5,501	1.2	0.6	86.8	12.1	0.9	0.2	100.0
17차('14)	5,552	1.5	1.0	71.1	24.7	3.6	0.7	100.0
18차('15)	5,632	1.3	0.8	78.7	19.3	1.5	0.5	100.0
19차('16)	5,714	1.3	0.7	76.8	21.1	2.0	0.1	100.0
20차('17)	5,761	1.2	0.6	88.0	10.7	1.0	0.2	100.0
21차('18)	5,794	1.4	0.8	70.6	27.0	2.1	0.4	100.0
22차('19)	5,823	1.2	0.6	84.2	14.0	1.5	0.2	100.0
23차('20)	5,829	1.2	0.6	87.9	10.8	0.9	0.5	100.0
24차('21)	5,867	1.2	0.6	86.9	11.9	1.0	0.2	100.0

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단위 :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98)	0.0	0.0	0.0	0.0	0.0	27.9	30.3	27.9	13.2	0.7	0.0	0.0	5,000
2차('99)	0.0	0.0	0.0	0.0	0.0	0.0	5.0	22.8	22.6	27.3	20.2	2.1	4,507
3차('00)	0.0	0.0	0.0	0.2	15.1	28.1	26.1	23.6	5.2	1.7	0.0	0.0	4,266
4차('01)	0.0	0.0	0.0	1.6	16.1	27.2	15.7	23.3	13.0	3.2	0.0	0.0	4,247
5차('02)	0.0	0.0	0.0	4.7	31.3	25.9	26.4	7.2	4.4	0.1	0.0	0.0	4,298
6차('03)	0.0	0.0	0.0	0.0	12.7	25.6	30.1	21.3	10.2	0.0	0.0	0.0	4,592
7차('04)	0.0	0.0	0.0	0.0	16.7	26.4	24.8	21.1	10.8	0.2	0.0	0.0	4,761
8차('05)	0.0	0.0	0.0	13.9	23.8	24.0	20.1	12.1	5.9	0.3	0.0	0.0	4,849
9차('06)	0.0	0.0	0.0	8.1	25.4	20.5	20.9	14.6	8.6	1.8	0.0	0.0	5,001
10차('07)	0.0	0.0	0.0	14.4	27.0	26.9	20.7	8.3	2.8	0.0	0.0	0.0	5,069
11차('08)	0.0	0.0	0.0	8.7	27.9	23.8	21.0	9.7	4.3	4.6	0.0	0.0	5,116
12차('09)	0.0	0.0	0.5	35.7	31.7	12.4	9.3	5.2	3.8	1.4	0.0	0.0	5,306
13차('10)	0.0	0.0	0.0	0.0	0.0	0.0	7.7	33.9	19.1	28.6	8.8	2.0	5,379
14차('11)	0.3	0.2	0.0	0.0	0.0	0.0	2.2	39.8	19.8	20.4	16.1	1.3	5,404
15차('12)	0.0	0.0	0.0	0.0	0.0	0.9	32.7	28.5	19.1	10.5	6.4	2.0	5,469
16차('13)	0.0	0.0	0.0	0.0	0.0	7.5	29.4	21.3	16.4	15.7	6.5	3.2	5,501
17차('14)	0.0	0.0	19.1	31.9	24.9	17.1	3.9	1.6	1.5	0.1	0.0	0.0	5,552
18차('15)	0.0	0.0	0.0	6.9	29.2	18.8	21.8	13.2	3.7	4.0	2.6	0.0	5,632
19차('16)	0.0	0.0	0.0	16.5	31.2	20.6	16.6	8.1	2.6	2.9	1.6	0.0	5,714
20차('17)	0.0	0.0	0.6	31.9	24.6	18.3	14.2	6.1	1.8	1.3	1.2	0.0	5,761
21차('18)	0.0	0.0	0.5	0.0	7.3	22.3	20.4	17.5	9.3	8.0	14.8	0.0	5,796
22차('19)	0.0	0.0	0.0	18.5	24.1	18.4	10.7	7.8	6.6	7.2	6.7	0.0	5,823
23차('20)	2.6	0.1	0.0	0.0	16.6	26.4	20.2	11.4	8.2	5.7	3.4	5.4	5,838
24차('21)	0.0	0.0	0.0	5.7	26.0	23.0	18.0	10.3	5.3	6.9	4.9	0.0	5,867

주: 1) 1차년도는 조사원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2) 14차년도에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익년 1월에 16건, 익년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KLIPS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도를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17차년도부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다시 3·4월로 앞당겨졌다. 23차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응답자가 대면조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조사가 매우 어려웠으나, 일정 정도의 조사 성공률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차년도 KLIPS의 총응답가구는 5,867가구이며, 응답자 수는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838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 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24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63.2%, 유효표본유지율은 69.7%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가구, %)

	원표 본수	2차 (‘99)	3차 (‘00)	4차 (‘01)	5차 (‘02)	6차 (‘03)	7차 (‘04)	8차 (‘05)	9차 (‘06)	10차 (‘07)	11차 (‘08)	12차 (‘09)	13차 (‘10)	14차 (‘11)	15차 (‘12)	16차 (‘13)	17차 (‘14)	18차 (‘15)	19차 (‘16)	20차 (‘17)	21차 (‘18)	22차 (‘19)	23차 (‘20)	24차 (‘21)
전체	5,000	87.6	80.9	77.3	76.0	77.2	77.2	76.4	76.4	75.5	74.2	73.2	72.1	70.6	70.3	69.4	69.0	68.4	67.9	67.1	66.2	65.3	64.2	63.2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69.6	69.0	66.7	66.5	65.9	65.7	65.4	65.1	65.0	63.6	63.0	62.0	61.4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3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70.6	70.8	69.6	68.5	68.7	65.8	64.6
대구	314	84.1	72.0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65.3	63.7	63.4	62.7	60.5	60.2	59.2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0	64.7	66.0	64.1	66.0	66.7	67.3	66.7	66.7	64.7	63.4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5.2	75.5	77.5	75.5	74.5	73.5	73.8	72.8	72.2	70.5	69.8	69.8	69.8	69.1
광주	158	78.5	69.0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65.8	65.8	63.9	63.9	61.4	60.1	60.1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0	72.4	72.4	70.7	70.7	71.6	70.7	71.6	70.7	69.8	68.1	67.2
경기	856	90.2	80.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4.0	71.6	71.9	70.7	69.7	68.5	67.3	65.7	65.0	65.1	64.0	63.3	61.0
강원	130	87.7	86.2	73.9	65.4	63.9	67.7	71.5	73.9	75.4	75.4	72.3	70.0	71.5	70.0	65.4	66.9	65.4	63.1	64.6	63.1	60.0	62.3	61.5
충북	113	87.6	75.2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68.1	70.8	68.1	70.8	71.7	70.8	69.0	70.8	70.8	69.0	69.0	68.1	68.1
충남	131	91.6	87.8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74.8	74.8	74.8	72.5	71.8	68.7	67.2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4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69.4	69.4	67.3	66.8	65.8	63.8	64.3
전남	127	92.1	89.8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80.3	79.5	78.7	78.7	78.7	78.0	78.0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70.1	70.4	67.5	65.7	63.5	61.3	61.3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0	75.7	74.3	75.0	73.3	74.0	73.3	72.3	70.2	68.5	68.2	66.8	66.1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 연도 조사가구 수/원표본가구 수)×100.

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24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PSID(46.8%, 개인 기준⁹⁾)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 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¹⁰⁾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대구, 광주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24차년도 기준 61% 이하이고, 전남 한곳만 7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

9) 자료: Beale, April, Flannery Campbell, Mary Dascola, Noura Insolera, David Johnson, Paul Juska, Katherine McGonagle, Beth Simmert, and Jerry Warra(2019), *PSID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19*,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1회	538	6.2	183	3.7	355	9.5
2회	420	4.8	157	3.1	263	7.1
3회	378	4.3	153	3.1	225	6.0
4회	352	4.0	135	2.7	217	5.8
5회	283	3.2	120	2.4	163	4.4
6회	257	2.9	81	1.6	176	4.7
7회	251	2.9	82	1.6	169	4.5
8회	220	2.5	81	1.6	139	3.7
9회	257	2.9	86	1.7	171	4.6
10회	239	2.7	90	1.8	149	4.0
11회	251	2.9	88	1.8	163	4.4
12회	270	3.1	90	1.8	180	4.8
13회	304	3.5	78	1.6	226	6.1
14회	214	2.5	85	1.7	129	3.5
15회	223	2.6	76	1.5	147	3.9
16회	229	2.6	79	1.6	150	4.0
17회	218	2.5	85	1.7	133	3.6
18회	251	2.9	102	2.0	149	4.0
19회	239	2.7	106	2.1	133	3.6
20회	245	2.8	153	3.1	92	2.5
21회	294	3.4	195	3.9	99	2.7
22회	322	3.7	270	5.4	52	1.4
23회	485	5.6	441	8.8	44	1.2
24회	1,984	22.7	1,984	39.7	-	-
전 체	8,724	100.0	5,000	100.0	3,724	100.0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8,724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57.3%(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42.7%(3,724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24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24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24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21,713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3,297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18.4%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1,001명으로 5.6%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24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표 2-10〉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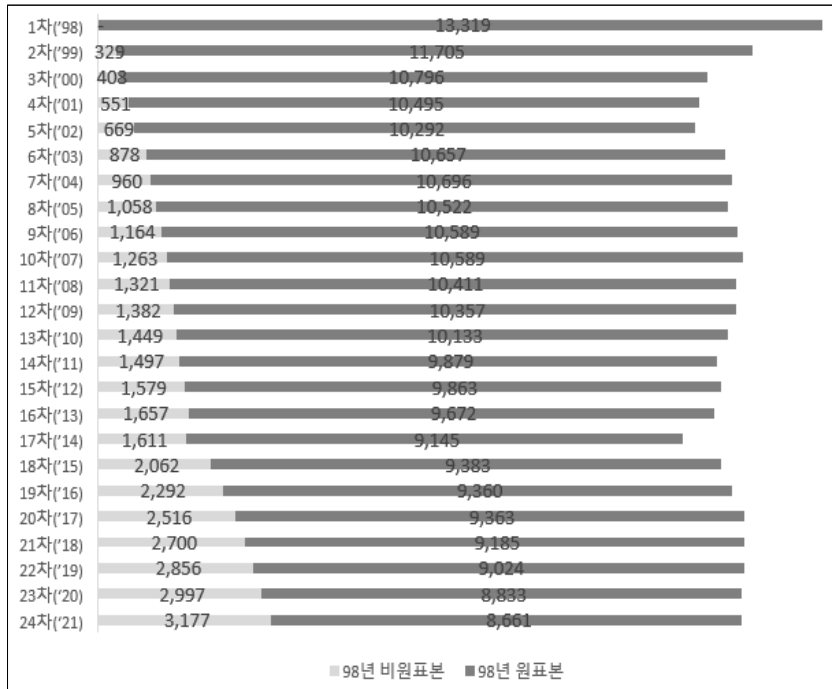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393	6.4	1,001	5.6	392	10.3
2회	1,196	5.5	795	4.4	401	10.5
3회	1,154	5.3	840	4.7	314	8.2
4회	1,091	5.0	816	4.6	275	7.2
5회	1,027	4.7	741	4.1	286	7.5
6회	846	3.9	624	3.5	222	5.8
7회	883	4.1	664	3.7	219	5.7
8회	708	3.3	579	3.2	129	3.4
9회	703	3.2	564	3.2	139	3.6
10회	698	3.2	560	3.1	138	3.6
11회	687	3.2	555	3.1	132	3.5
12회	656	3.0	510	2.9	146	3.8
13회	622	2.9	470	2.6	152	4.0
14회	563	2.6	447	2.5	116	3.0
15회	525	2.4	416	2.3	109	2.9
16회	539	2.5	446	2.5	93	2.4
17회	508	2.3	400	2.2	108	2.8
18회	558	2.6	443	2.5	115	3.0
19회	566	2.6	468	2.6	98	2.6
20회	677	3.1	604	3.4	73	1.9
21회	782	3.6	704	3.9	78	2.0
22회	871	4.0	817	4.6	54	1.4
23회	1,163	5.4	1,128	6.3	35	0.9
24회	3,297	15.2	3,297	18.4	0	0.0
전체	21,713	100.0	17,889	100.0	3,824	100.0

13,319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24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838명 중 73.2%인 8,661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단위: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24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당해연도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전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 수 ¹⁾	이사가구		가구 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98)	5,000	-	-	5,000	0	-	-	-	-
2차('99)	4,378	709	16.2	4,378	709	16.2	-	0	-
3차('00)	4,142	456	11.0	4,044	439	10.9	98	17	17.3
4차('01)	4,111	688	16.7	3,864	589	15.2	247	99	40.1
5차('02)	4,189	718	17.1	3,798	599	15.8	391	119	30.4
6차('03)	4,437	990	22.3	3,862	738	19.1	575	252	43.8
7차('04)	4,619	884	19.1	3,862	610	15.8	757	274	36.2
8차('05)	4,723	724	15.3	3,822	452	11.8	901	272	30.2
9차('06)	4,862	803	16.5	3,820	474	12.4	1,042	329	31.6
10차('07)	4,953	765	15.4	3,775	445	11.8	1,178	320	27.2
11차('08)	5,027	744	14.8	3,710	421	11.3	1,317	323	24.5
12차('09)	5,174	621	12.0	3,658	273	7.5	1,516	348	23.0
13차('10)	5,235	962	18.4	3,607	478	13.3	1,628	484	29.7
14차('11)	5,292	701	13.2	3,528	299	8.5	1,764	402	22.8
15차('12)	5,380	533	9.9	3,517	226	6.4	1,863	307	16.5
16차('13)	5,405	735	13.6	3,472	296	8.5	1,933	439	22.7
17차('14)	5,481	463	8.4	3,451	185	5.4	2,030	278	13.7
18차('15)	5,534	753	13.6	3,421	306	8.9	2,113	447	21.2
19차('16)	5,629	737	13.1	3,393	297	8.8	2,236	440	19.7
20차('17)	5,693	767	13.5	3,355	290	8.6	2,338	477	20.4
21차('18)	5,706	824	14.4	3,309	306	9.2	2,397	518	21.6
22차('19)	5,758	721	12.5	3,266	276	8.5	2,492	445	17.9
23차('20)	5,750	609	10.6	3,208	215	6.7	2,542	394	15.5
24차('21)	5,787	600	10.4	3,161	227	7.2	2,626	373	14.2

주: 1) 전체 가구 수는 조사성공가구 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787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4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600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의 10.4%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4차년도 조사에서는 7.2%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24차년도 조사에서는 1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 가구 수

(단위: 가구, %)

	전체 가구 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2차('99)	4,507	-	129	129	2.9
3차('00)	4,266	98	124	222	5.2
4차('01)	4,247	247	134	381	9.0
5차('02)	4,298	391	109	500	11.6
6차('03)	4,592	575	155	730	15.9
7차('04)	4,761	757	142	899	18.9
8차('05)	4,849	901	126	1,027	21.2
9차('06)	5,001	1,042	139	1,181	23.6
10차('07)	5,069	1,178	116	1,294	25.5
11차('08)	5,116	1,319	87	1,406	27.5
12차('09)	5,306	1,516	132	1,648	31.1
13차('10)	5,379	1,629	143	1,772	32.9
14차('11)	5,404	1,764	112	1,876	34.7
15차('12)	5,469	1,863	89	1,952	35.7
16차('13)	5,501	1,933	96	2,029	36.9
17차('14)	5,552	2,030	71	2,101	37.8
18차('15)	5,632	2,113	98	2,211	39.3
19차('16)	5,714	2,236	85	2,321	40.6
20차('17)	5,761	2,338	68	2,406	41.8
21차('18)	5,796	2,397	90	2,487	42.9
22차('19)	5,823	2,492	65	2,557	43.9
23차('20)	5,838	2,542	88	2,630	45.0
24차('21)	5,867	2,626	80	2,706	46.1

다(표 2-11 참조).

<표 2-12>에서 KLIPS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성공 5,867가구 중 46.1%인 2,706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626가구이며 24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8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24차년도에는 46.1%에 이르고 있다.

2. 비성공가구의 특성

KLIPS에서 조사 실패의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조사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연도별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

기 때문이다. 24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강력거절 22.6%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2.7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2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2-6, 표 2-14 참조).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

(단위: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 체
2차('99)	621	59.1	20.9	15.9	4.0	100.0
3차('00)	938	66.0	17.4	15.1	1.5	100.0
4차('01)	809	53.3	25.7	13.0	8.0	100.0
5차('02)	1,315	46.7	23.4	12.7	17.3	100.0
6차('03)	1,399	46.8	28.7	13.2	11.4	100.0
7차('04)	1,531	44.2	32.9	17.4	5.5	100.0
8차('05)	1,661	46.8	25.2	14.2	13.9	100.0
9차('06)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07)	1,774	49.9	36.0	8.8	5.3	100.0
11차('08)	1,901	56.8	31.8	7.3	4.1	100.0
12차('09)	2,009	50.5	35.7	10.9	3.0	100.0
13차('10)	2,106	42.1	37.2	18.9	1.8	100.0
14차('11)	2,299	37.8	44.2	16.0	2.0	100.0
15차('12)	2,367	41.5	44.3	12.3	1.9	100.0
16차('13)	2,490	36.8	46.5	14.1	2.6	100.0
17차('14)	2,589	38.2	46.9	12.2	2.7	100.0
18차('15)	2,614	32.4	54.0	12.3	1.3	100.0
19차('16)	2,757	34.6	51.0	12.7	1.7	100.0
20차('17)	2,841	30.9	56.5	11.2	1.5	100.0
21차('18)	2,947	28.7	56.9	12.2	2.2	100.0
22차('19)	3,011	29.8	60.9	8.3	1.0	100.0
23차('20)	3,003	27.3	65.9	6.2	0.5	100.0
24차('21)	3,009	22.6	62.5	14.6	0.8	100.5

주: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 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단위: 가구, 횟수)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4.1	2.3	4.0	2.6	3.6
3차('00)	938	5.4	2.3	5.8	2.3	5.1
4차('01)	809	4.1	3.5	4.3	2.0	3.3
5차('02)	1,315	3.9	1.7	3.8	3.4	3.5
6차('03)	1,399	3.4	2.8	3.9	2.3	3.2
7차('04)	1,531	3.6	2.8	3.7	1.6	3.1
8차('05)	1,661	3.9	2.3	5.1	1.5	3.2
9차('06)	1,610	4.1	1.9	4.5	2.6	3.6
10차('07)	1,774	2.9	2.7	3.4	1.2	2.2
11차('08)	1,901	2.8	1.2	3.6	1.6	2.7
12차('09)	2,009	2.4	2.4	2.5	2.2	2.4
13차('10)	2,105	3.6	2.2	3.2	3.4	3.4
14차('11)	2,299	3.4	3.3	3.9	1.9	3.3
15차('12)	2,367	3.3	3.1	3.4	3.0	3.3
16차('13)	2,490	3.1	3.2	1.9	1.4	2.8
17차('14)	2,589	3.4	2.8	3.6	3.0	3.4
18차('15)	2,619	1.8	3.3	1.9	1.6	1.5
19차('16)	2,757	1.4	1.3	1.2	1.2	1.2
20차('17)	2,827	1.3	1.0	1.4	1.1	1.2
21차('18)	2,946	2.9	1.1	3.0	1.6	1.9
22차('19)	3,011	3.0	1.1	3.0	1.2	1.9
23차('20)	3,003	3.0	1.2	3.1	1.3	1.7
24차('21)	3,009	3.0	1.1	3.0	1.4	2.7

주: 당해년도 분가 비성공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명, %)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7,504	17,504	100.0	-	-	13,853	79.1	3,651	20.9
2차('99)	15,753	15,191	96.4	562	3.6	12,608	80.0	3,145	20.0
3차('00)	14,662	14,338	97.8	324	2.2	11,838	80.7	2,824	19.3
4차('01)	14,411	13,942	96.7	469	3.3	11,658	80.9	2,753	19.1
5차('02)	14,308	13,929	97.4	379	2.6	11,635	81.3	2,673	18.7
6차('03)	14,955	14,355	96.0	600	4.0	12,185	81.5	2,770	18.5
7차('04)	15,250	14,745	96.7	505	3.3	12,439	81.6	2,811	18.4
8차('05)	15,210	14,768	97.1	442	2.9	12,459	81.9	2,751	18.1
9차('06)	15,416	14,899	96.6	517	3.4	12,691	82.3	2,725	17.7
10차('07)	15,413	14,963	97.1	450	2.9	12,710	82.5	2,703	17.5
11차('08)	15,213	14,745	96.9	468	3.1	12,560	82.6	2,653	17.4
12차('09)	15,460	14,917	96.5	543	3.5	12,828	83.0	2,632	17.0
13차('10)	15,433	14,886	96.5	547	3.5	12,826	83.1	2,607	16.9
14차('11)	15,312	14,898	97.3	414	2.7	12,701	82.9	2,611	17.1
15차('12)	15,388	14,983	97.4	405	2.6	12,794	83.1	2,594	16.9
16차('13)	15,371	14,990	97.5	381	2.5	12,785	83.2	2,586	16.8
17차('14)	15,419	15,119	98.1	300	1.9	12,864	83.4	2,555	16.6
18차('15)	15,501	15,150	97.7	351	2.3	12,912	83.3	2,589	16.7
19차('16)	15,525	15,231	98.1	294	1.9	12,994	83.7	2,531	16.3
20차('17)	15,620	15,315	98.0	305	2.0	13,106	83.9	2,514	16.1
21차('18)	15,591	15,294	98.1	297	1.9	13,135	84.2	2,456	15.8
22차('19)	15,590	15,311	98.2	279	1.8	13,181	84.5	2,409	15.5
23차('20)	15,444	15,218	98.5	226	1.5	13,106	84.9	2,338	15.1
24차('21)	15,299	15,121	98.8	178	1.2	13,095	85.6	2,204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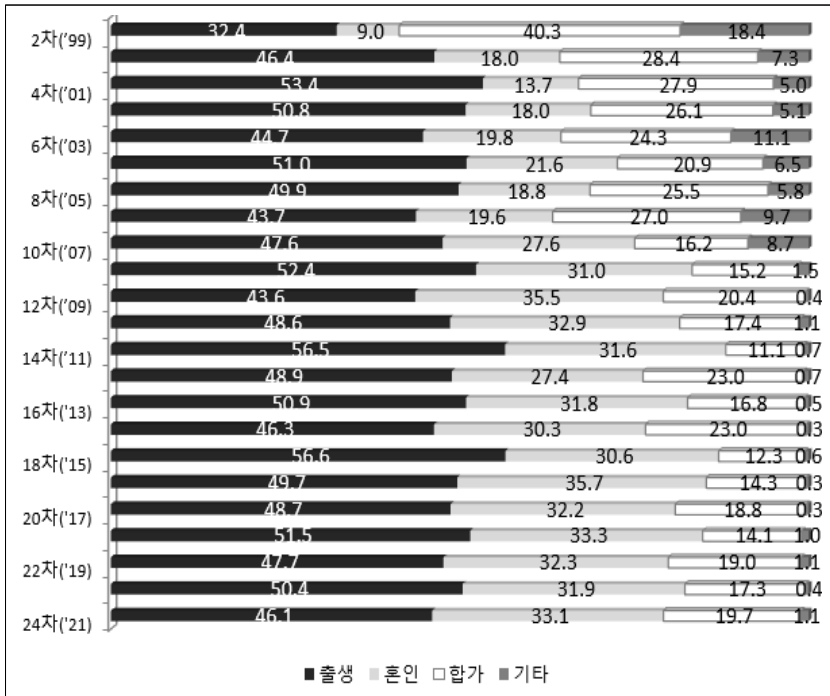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24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5,299 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178명으로 전체 가구원(15,444명)에서 1.2% 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의 신규 추가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출생’으로 24차년도의 경우 46.1%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33.1%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19.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 보면 <표 2-16>과 같다. 2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 된 가구원은 모두 13,095명이었으며 이 중 90.4%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1%가 성공하였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



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24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2%(266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3.1%(221명)로 조사되었다.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3,853	13,319	96.1	13,853	100.0	0	-	0	-	0	-
2차('99)	12,608	12,034	95.4	11,234	93.4	800	6.6	477	59.6	323	40.4
3차('00)	11,838	11,204	94.6	10,746	95.9	458	4.1	314	68.6	144	31.4
4차('01)	11,658	11,046	94.8	10,610	96.1	436	3.9	241	55.3	195	44.7
5차('02)	11,635	10,961	94.2	10,564	96.4	397	3.6	230	57.9	167	42.1
6차('03)	12,185	11,535	94.7	10,983	95.2	552	4.8	282	51.1	270	48.9
7차('04)	12,439	11,656	93.7	11,213	96.2	443	3.8	255	57.6	188	42.4
8차('05)	12,459	11,580	92.9	11,195	96.7	385	3.3	231	60.0	154	40.0
9차('06)	12,691	11,753	92.6	11,359	96.6	394	3.4	237	60.2	157	39.8
10차('07)	12,710	11,852	93.2	11,456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08)	12,560	11,732	93.4	11,341	96.7	391	3.3	257	65.7	134	34.3
12차('09)	12,828	11,739	91.5	11,377	96.9	362	3.1	219	60.5	143	39.5
13차('10)	12,826	11,582	90.3	11,218	96.9	364	3.1	223	61.3	141	38.7
14차('11)	12,701	11,376	89.6	11,067	97.3	309	2.7	218	70.6	91	29.4
15차('12)	12,794	11,442	89.4	11,127	97.2	315	2.8	209	66.3	106	33.7
16차('13)	12,785	11,329	88.6	11,079	97.8	250	2.2	180	72.0	70	28.0
17차('14)	12,864	10,756	83.6	10,676	99.3	80	0.7	34	42.5	46	57.5
18차('15)	12,912	11,445	88.6	11,027	96.3	418	3.7	346	82.8	72	17.2
19차('16)	12,994	11,652	89.7	11,349	97.4	303	2.6	226	74.6	77	25.4
20차('17)	13,106	11,879	90.6	11,608	97.7	271	2.3	205	75.6	66	24.4
21차('18)	13,135	11,885	90.5	11,600	97.6	285	2.4	218	76.5	67	23.5
22차('19)	13,181	11,880	90.1	11,608	97.7	272	2.3	215	79.0	57	21.0
23차('20)	13,106	11,830	90.3	11,589	98.0	241	2.0	198	82.2	43	17.8
24차('21)	13,095	11,838	90.4	11,572	98.0	266	2.2	221	83.1	45	16.9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KLIPS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4차년도 현재 원가구 3,161가구와 분가가구 2,7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63.2%,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53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69.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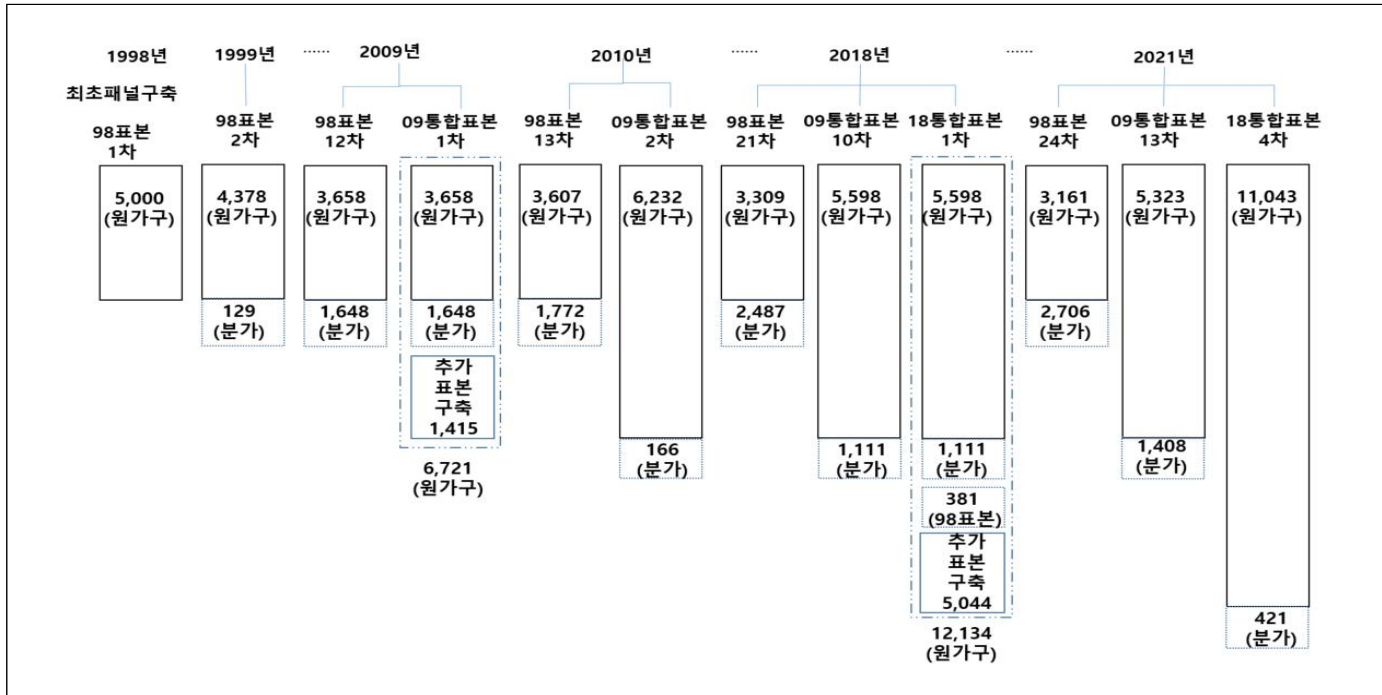
KLIPS는 2009년과 2018년 두 번의 표본추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를 실시하였다.¹¹⁾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둘째, 2018년 20년 넘게 패널조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표본 이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5,000가구의 대규모 표본추가를 진행하였다.¹²⁾ 이에 KLIPS는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09통합표본, 2018년도 표본추가를 통한 18통합표본으로 세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09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09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8가구와 분가가구 1,648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09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21년까지 13년 동안 조사 대상이 되었다.

11) 2009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12) 2018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9),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IX)』, 『한국노동패널조사 신규패널 특성 분석』(변종석·이혜정 저술)을 참조.

[그림 2-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가 다음해인 2010년에 조사되었을 경우, 98표본에 포함되지만 09통합표본의 원가구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09통합표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09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18통합표본도 마찬가지로임.

18통합표본은 2018년 조사 당시 추가 표집된 5,044가구를 포함하여, 당 해연도 응답가구 전체(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하는 표본을 의미한다. 즉 09통합표본 원가구 5,598가구, 09통합표본 분가가구 1,111가구, 09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98표본 381가구, 18년도 추가표본 5,044가구를 모두 더한 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한다. 2021년 현재 4년 동안 12,134가구를 원가구로 정의하여 조사되었다.

2. 09통합표본 특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09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09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3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79.2%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20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에 실시된 제24차 KLIPS 조사에서 09통합표본은 원표본 5,323가구 및 분가한 1,408가구를 합하여 총 6,731가구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79.2%로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하였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18>은 09통합 1~13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8,276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0.2%(6,721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19.8%(1,655가구)이다. 1~13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

한 가구는 원가구 대비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9%(265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13회를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3.1%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명)

	조사 대상원 가구-소멸 가구	조사 성공 가구 수 ¹⁾	원표본 가구 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 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 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	14,489	3~11월
2차('10)	6,691	6,398	6,232	92.7	93.1	166	13,639	7~12월
3차('11)	6,673	6,388	6,082	90.5	91.1	306	13,409	7~12월
4차('12)	6,640	6,433	6,016	89.5	90.6	417	13,422	6~12월
5차('13)	6,596	6,455	5,904	87.8	89.5	551	13,298	6~12월
6차('14)	6,588	6,490	5,840	86.9	88.6	650	12,591	3~10월
7차('15)	6,530	6,575	5,793	86.2	88.7	782	13,368	3~11월
8차('16)	6,505	6,632	5,728	85.2	88.1	904	13,517	4~11월
9차('17)	6,475	6,683	5,674	84.4	87.6	1,009	13,768	3~11월
10차('18)	6,430	6,709	5,598	83.3	87.1	1,111	13,737	3~11월
11차('19)	6,386	6,729	5,517	82.1	86.4	1,212	13,704	4~11월
12차('20)	6,324	6,711	5,409	80.5	85.5	1,302	13,577	5~익년 2월
13차('21)	6,265	6,731	5,323	79.2	85.0	1,408	13,531	4~11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1회	482	5.8	265	3.9	217	13.1
2회	321	3.8	159	2.4	162	9.8
3회	286	3.4	136	2.0	150	9.1
4회	248	3.0	109	1.6	139	8.4
5회	228	2.7	99	1.5	129	7.8
6회	226	2.7	102	1.5	124	7.5
7회	222	2.7	79	1.2	143	8.6
8회	211	2.5	98	1.5	113	6.8
9회	259	3.1	120	1.8	139	8.4
10회	252	3.0	143	2.1	109	6.6
11회	353	4.2	235	3.5	118	7.1
12회	529	6.3	417	6.2	112	6.8
13회	4,759	56.8	4,759	70.8	-	0.0
전 체	8,376	100.0	6,721	100.0	1,655	100.0

〈표 2-19〉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통합 1~13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9,135명이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7,684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¹³⁾

〈표 2-20〉은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3차년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98가구로 전체 가구(6,731가구)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13)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293	6.8	1,116	6.3	177	11.9
2회	964	5.0	766	4.3	198	13.3
3회	931	4.9	764	4.3	167	11.2
4회	831	4.3	688	3.9	143	9.6
5회	809	4.2	655	3.7	154	10.3
6회	806	4.2	671	3.8	135	9.1
7회	799	4.2	667	3.8	132	8.9
8회	652	3.4	573	3.2	79	5.3
9회	800	4.2	724	4.1	76	5.1
10회	853	4.5	765	4.3	88	5.9
11회	1,156	6.0	1,074	6.1	82	5.5
12회	1,557	8.1	1,500	8.5	57	3.8
13회	7,684	40.2	7,684	43.5	0	0.0
전 체	19,135	100.0	17,647	100.0	1,488	100.0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가구 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2차('10)	6,398	0	166	166	2.6
3차('11)	6,388	184	122	306	4.8
4차('12)	6,433	315	102	417	6.5
5차('13)	6,455	443	108	551	8.5
6차('14)	6,490	564	86	650	10.0
7차('15)	6,575	668	114	782	11.9
8차('16)	6,632	809	95	904	13.6
9차('17)	6,683	923	86	1,009	15.1
10차('18)	6,709	1,006	105	1,111	16.6
11차('19)	6,729	1,132	80	1,212	18.0
12차('20)	6,711	1,217	85	1,302	19.4
13차('21)	6,731	1,310	98	1,408	20.9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09)	15,819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10)	15,013	13,639	90.8	13,175	96.6	464	3.4	322	69.4	142	30.6
3차('11)	14,864	13,409	90.2	12,988	96.9	421	3.1	318	75.5	103	24.5
4차('12)	14,914	13,422	90.0	13,046	97.2	376	2.8	260	69.1	116	30.9
5차('13)	14,913	13,298	89.2	12,980	97.6	318	2.4	240	75.5	78	24.5
6차('14)	14,923	12,591	84.4	12,487	99.2	104	0.8	47	45.2	57	54.8
7차('15)	14,993	13,368	89.2	12,894	96.5	474	3.5	400	84.4	74	15.6
8차('16)	15,001	13,517	90.1	13,174	97.5	343	2.5	258	75.2	85	24.8
9차('17)	15,115	13,768	91.1	13,444	97.6	324	2.4	238	73.5	86	26.5
10차('18)	15,114	13,737	90.9	13,416	97.7	321	2.3	242	75.4	79	24.6
11차('19)	15,140	13,704	90.5	13,394	97.7	310	2.3	246	79.4	64	20.6
12차('20)	15,001	13,577	90.5	13,311	98.0	266	2.0	217	81.6	49	18.4
13차('21)	14,929	13,531	90.6	13,247	97.9	284	2.1	232	81.7	52	18.3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1>이다. 13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 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14,929명이었고, 이 중 90.6%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13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1%(284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1.7%,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18.3%(52명)로 조사되었다.

3. 18통합표본 특성

2018년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18통합표본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

펴보면 <표 2-22>와 같다. 18통합표본 1차년도(2018년)에 조사된 가구는 12,134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23,97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4.5%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실시된 제24차 KLIPS 조사에서 18통합표본은 원표본 11,043가구 및 분가한 421가구를 합하여 총 11,464가구를 성공하였고, 원표본유지율은 91.0%였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3>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12,570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96.5%(12,134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3.5%(436가구)이다.

<표 2-24>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조사 대상원 가구- 소멸 가구	조사 성공 가구 수 ¹⁾	원표본 가구 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 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 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18)	12,134	12,134	12,134	100.0	100.0	-	23,971	3~2월
2차('19)	12,083	11,584	11,471	94.5	94.9	113	23,012	3~11월
3차('20)	11,992	11,509	11,253	92.7	93.8	256	22,713	5~익년2월
4차('21)	11,893	11,464	11,043	91.0	92.9	421	22,679	4~11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12,134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1회	682	5.4	495	4.1	187	42.9
2회	475	3.8	331	2.7	144	33.0
3회	593	4.7	488	4.0	105	24.1
4회	10,820	86.1	10,820	89.2	-	-
전 체	12,570	100.0	12,134	100.0	436	100.0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2,103	8.0	1,971	7.6	132	41.8
2회	1,954	7.4	1,854	7.1	100	31.6
3회	2,648	10.1	2,564	9.9	84	26.6
4회	19,605	74.5	19,605	75.4	0	-
전 체	26,310	100.0	25,994	100.0	316	100.0

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조사기간 동안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26,310명이고, 조사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19,605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75.4%를 차지한다.¹⁴⁾

〈표 2-25〉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8통합표본 4차년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136가구로 전체 가구(11,464가구)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

14)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낸 것이 <표 2-26>이다. 4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25,062명이었고, 이 중 90.5%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6%(590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5.6%,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14.4%(85명)로 조사되었다.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가구 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 수	비중
2차('19)	11,584	1	112	113	1.0
3차('20)	11,509	130	126	256	2.2
4차('21)	11,464	285	136	421	3.7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18)	26,837	23,971	89.3	23,971	100.0	-	-	-	-	-	-
2차('19)	25,600	23,012	89.9	22,308	96.9	704	3.1	607	86.2	97	13.8
3차('20)	25,320	22,713	89.7	22,262	98.0	451	2.0	373	82.7	78	17.3
4차('21)	25,062	22,679	90.5	22,089	97.4	590	2.6	505	85.6	85	14.4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 13차년도 KLIPS에 성공한 6,731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3년간의 KLIPS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⁵⁾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이었으며 2, 3차년도를 제외(2.9인)하고는 2.8인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부터 약간 감소한 2.7인이었으며 13차에 다시 약간 감소해 2.6인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의 가구원 수 분포는 1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7.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인(24.4%), 2인(22.4%)과 3인(20.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인 가구와 1인 가구 분포 차이는 2차년도 11.0%포인트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3차년도에는 처음으로 1인 가구 비중이 4인 가구 비중에 비해 높았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¹⁶⁾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⁷⁾을 13차년도 기준으로

15)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6)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0%, 2016년 27.7%, 2017년 28.3%, 2018년 29.0%, 2019년 29.9%, 2020년 31.2%, 2021년 32.8%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09)	6,721	21.0	21.0	20.4	29.7	6.4	1.6	2.8
2차('10)	6,398	19.9	20.4	20.4	30.9	7.0	1.5	2.9
3차('11)	6,388	21.1	20.4	19.8	30.8	6.6	1.3	2.9
4차('12)	6,433	21.7	20.4	19.3	30.6	6.5	1.4	2.8
5차('13)	6,455	21.7	21.0	19.6	29.9	6.4	1.4	2.8
6차('14)	6,490	22.2	21.0	19.5	29.6	6.4	1.3	2.8
7차('15)	6,575	22.9	21.0	19.3	29.7	6.0	1.2	2.8
8차('16)	6,632	23.7	21.3	20.3	27.8	5.9	1.1	2.7
9차('17)	6,683	23.8	21.4	20.3	27.6	5.7	1.1	2.7
10차('18)	6,709	24.6	22.1	20.1	27.0	5.2	1.2	2.7
11차('19)	6,729	24.5	22.3	20.6	26.3	5.2	1.1	2.7
12차('20)	6,711	25.3	22.8	19.9	25.9	5.2	0.9	2.7
13차('21)	6,731	27.0	22.4	20.2	24.4	5.0	0.9	2.6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7.8%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7.0%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2.4%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의 비중은 7차년도 16.0%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약간 감소해 17.8%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09)	6,721	21.0	16.4	57.7	4.9	0.0
2차('10)	6,398	19.9	15.7	59.6	4.8	0.0
3차('11)	6,388	21.1	15.8	58.6	4.5	0.0
4차('12)	6,433	21.7	15.6	58.6	4.1	0.0
5차('13)	6,455	21.7	16.1	58.3	3.9	0.0
6차('14)	6,490	22.2	16.2	57.7	3.9	0.0
7차('15)	6,575	22.9	16.0	57.6	3.5	0.0
8차('16)	6,632	23.7	16.4	56.6	3.3	0.0
9차('17)	6,683	23.8	16.8	56.0	3.3	0.0
10차('18)	6,709	24.6	17.6	54.8	3.1	0.0
11차('19)	6,729	24.5	17.7	55.0	2.9	0.0
12차('20)	6,711	25.3	17.9	54.1	2.7	0.0
13차('21)	6,731	27.0	17.8	52.8	2.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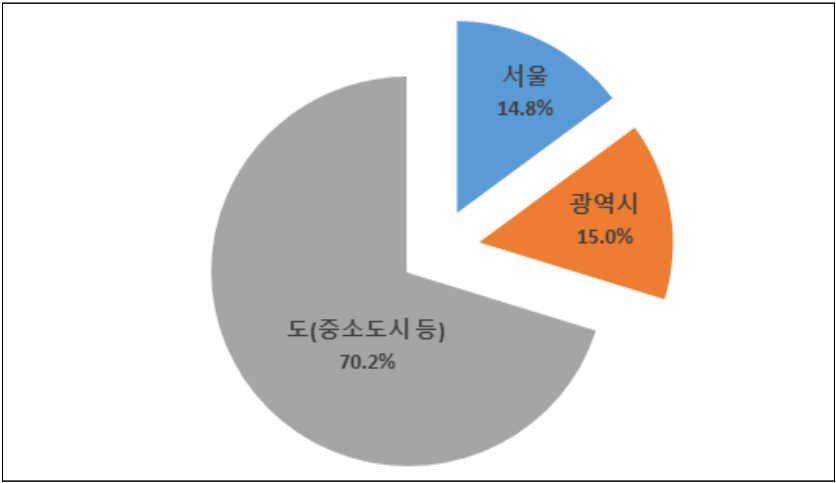
로 나타났으나, 2세대 가구는 2차년도 59.6%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13차년도 조사에서는 6.8%포인트 감소한 52.8%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3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70.2%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14.8%, 광역시 지역에는 15.0%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13차년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그림 3-1] 13차(2021)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표 3-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 (가구 수)	핵가족 가구	핵가족			1인 가구	비핵가구
			부부 단독	부모 + 미혼 자녀	편부모 + 미혼 자녀		
1차('09)	6,721	70.1	15.5	47.6	7.1	21.0	8.9
2차('10)	6,398	71.8	14.8	49.7	7.3	19.9	8.3
3차('11)	6,388	70.9	15.0	48.9	7.1	21.1	8.0
4차('12)	6,433	70.7	14.9	48.7	7.1	21.7	7.6
5차('13)	6,455	70.9	15.3	48.4	7.1	21.7	7.4
6차('14)	6,490	70.6	15.5	48.1	7.1	22.2	7.2
7차('15)	6,575	70.3	15.2	47.7	7.4	22.9	6.8
8차('16)	6,632	69.8	15.7	46.8	7.4	23.7	6.5
9차('17)	6,683	69.8	16.1	46.7	7.0	23.8	6.3
10차('18)	6,709	69.5	16.9	45.9	6.8	24.6	6.0
11차('19)	6,729	69.8	17.0	45.7	7.1	24.5	5.8
12차('20)	6,711	69.0	17.1	44.8	7.1	25.3	5.7
13차('21)	6,731	67.7	17.1	43.9	6.8	27.0	5.3

단독 가구가 17.1%,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6.8%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0.1%에서 2차년도 (71.8%)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3차년도에 67.7%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9년 62.4%, 2010년 61.7%, 2011년 61.1%, 2012년 60.5%, 2013년 59.9%, 2014년 59.2%, 2015년 58.8%, 2016년 58.0%, 2017년 57.5%, 2018년 57.1%, 2019년 56.6%, 2020년 55.9%, 2021년 54.8%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3%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5.0세로 나타났다. 가구주

18)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5.3%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38.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2.5%), 40대(19.6%)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늘어 13차년도에는 44.9%까지 증가하였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09통합표본)

(단위: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513	6,203	6,176	6,240	6,240	6,165	6,331	6,445	6,512	6,519	6,503	6,492	6,516
성별	남성	79.2	78.5	78.8	78.2	78.1	77.9	77.8	77.4	76.9	76.7	76.2	75.9	75.3
	여성	20.9	21.5	21.2	21.8	21.9	22.1	22.2	22.6	23.1	23.3	23.8	24.1	24.7
혼인 상태	미혼	12.7	12.1	13.1	13.7	13.7	14.8	14.1	14.5	14.1	14.3	13.8	14.6	15.7
	기혼유배우	68.1	68.1	67.7	66.8	66.6	65.8	65.6	65.3	65.4	65.0	65.0	63.6	62.4
	기혼무배우	19.3	19.8	19.2	19.5	19.8	19.4	20.3	20.2	20.4	20.8	21.2	21.8	22.0
연령	30세 미만	6.8	6.9	7.1	6.1	5.8	6.6	5.3	5.4	5.1	4.7	4.0	4.4	4.6
	30대	20.7	19.8	20.0	19.8	19.0	18.8	17.8	17.2	16.6	16.6	16.4	15.3	14.8
	40대	25.9	24.7	24.2	24.2	23.9	23.5	23.3	22.9	22.0	21.5	20.8	20.1	19.6
	50대	21.1	21.7	22.4	22.9	23.2	22.8	23.3	23.3	23.6	23.4	23.4	23.3	22.5
	60세 이상	25.6	27.0	26.3	27.1	28.2	28.4	30.4	31.3	32.7	33.9	35.4	37.0	38.4
	평균(세)	49.8	50.3	50.2	50.7	51.3	51.1	52.1	52.5	53.1	53.6	54.2	54.6	55.0
교육 수준	무학	4.7	4.6	4.1	4.0	4.1	3.8	3.7	3.5	3.5	3.5	3.3	3.2	3.2
	고졸 미만	25.7	25.3	23.8	23.1	22.7	21.6	21.7	21.2	20.9	20.2	20.2	19.7	19.2
	고졸	30.8	30.3	30.5	30.4	30.0	29.5	29.4	29.1	29.2	28.9	28.7	28.6	28.4
	대재 및 중퇴	3.9	3.6	4.0	3.8	4.0	4.3	4.3	4.4	4.2	4.2	4.1	4.2	4.3
	(전문)대졸 이상	34.9	36.2	37.6	38.7	39.3	40.8	40.9	41.8	42.3	43.1	43.7	44.2	44.9

2. 가구원의 특성

<표 3-5>에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약 50%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표 3-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14,489	13,639	13,409	13,422	13,298	12,591	13,368	13,517	13,768	13,737	13,704	13,577	13,531
성별	남성	49.9	49.3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8	49.8
	여성	50.2	50.8	50.1	50.1	50.2	50.1	50.1	50.1	50.1	50.1	50.1	50.2	50.2
연령	15~19세	9.6	8.6	8.2	8.1	7.8	7.6	7.2	7.1	6.7	6.3	5.9	5.5	5.1
	20~24세	6.1	6.9	7.3	7.8	8.0	7.7	7.8	7.9	7.9	7.6	7.7	7.3	7.0
	25~29세	9.9	9.5	9.0	8.0	7.6	7.8	7.6	7.5	7.6	8.0	7.8	8.2	8.3
	30~39세	20.3	19.4	19.5	19.1	18.7	18.2	17.5	17.3	16.9	16.6	16.2	15.8	15.3
	40~49세	20.9	20.4	20.4	20.3	20.1	20.2	19.8	19.6	19.2	18.9	18.4	18.1	17.9
	50~59세	15.5	16.3	17.1	17.6	18.2	18.5	18.6	18.7	18.8	18.8	19.0	18.8	18.7
	60세 이상	17.8	18.9	18.5	19.1	19.7	20.3	21.4	22.0	22.9	23.9	25.0	26.3	27.7
	평균(세)	42.7	43.4	43.5	43.8	44.3	44.7	45.1	45.4	45.9	46.3	46.8	47.3	47.8
혼인 상태	미혼	31.0	29.6	29.8	30.3	30.1	29.6	30.0	30.4	30.6	30.5	30.6	30.8	31.1
	기혼유배우	58.8	59.6	59.7	59.2	59.3	59.7	59.0	58.8	58.6	58.6	58.3	57.8	57.3
	기혼무배우	10.3	10.8	10.4	10.5	10.7	10.7	11.0	10.8	10.8	10.9	11.1	11.4	11.6
교육 수준	무학	4.0	3.9	3.5	3.4	3.3	3.1	3.0	2.8	2.7	2.6	2.5	2.4	2.3
	고졸 미만	28.8	27.4	26.2	25.1	24.8	23.6	23.2	22.4	21.9	21.3	20.8	19.9	19.5
	고졸	27.7	27.7	27.6	27.6	27.2	27.1	26.8	26.8	26.5	26.3	26.1	25.9	26.1
	대제 및 중퇴	9.2	9.7	10.2	10.3	10.5	10.6	10.7	10.8	10.4	10.1	9.9	9.9	9.4
	전문대졸	10.3	10.8	11.1	11.2	11.2	11.7	11.8	12.1	12.3	12.6	12.7	13.4	13.7
	대졸 이상	20.0	20.4	21.4	22.4	23.0	24.0	24.6	25.2	26.2	27.1	28.0	28.5	29.2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3차년도 평균연령은 47.8세로 나타났다.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7.7%로 1차년도(17.8%)에 비해 9.9%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9.6%)에 비해 4.5%포인트가 하락한 5.1%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3차년도에는 30대가 15.3%이고 50대 이상은 46.4%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각각 26.1%와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⁹⁾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3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2,275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1차년도 238명, 2차년도 248명, 3차년도 222명, 4차년도 192명, 5차년도 192명, 6차년도 142명, 7차년도 205명, 8차년도 149명, 9차년도 153명, 10차년도 165명, 11차년도 141명, 12차년도 137명, 13차년도 91명으로 나타났다.

19)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1차('09)	238	130	108	54.6	45.4
2차('10)	248	130	118	52.4	47.6
3차('11)	222	119	103	53.6	46.4
4차('12)	192	107	85	55.7	44.3
5차('13)	192	106	86	55.2	44.8
6차('14)	142	65	77	45.8	54.2
7차('15)	205	113	92	55.1	44.9
8차('16)	149	74	75	49.7	50.3
9차('17)	153	78	75	51.0	49.0
10차('18)	165	81	84	49.1	50.9
11차('19)	141	80	61	56.7	43.3
12차('20)	137	80	57	58.4	41.6
13차('21)	91	46	45	50.5	49.5
전 체	2,275	1,209	1,066	53.1	46.9

다음으로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 보았다. 총사망자는 966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97명, 3차년도 87명, 4차년도 82명, 5차년도 90명, 6차년도 51명, 7차년도 82명, 8차년도 73명, 9차년도 67명, 10차년도 96명, 11차년도 68명, 12차년도 91명, 13차년도 82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차수에서 남성 사망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3차년도 기준 남성이 58.5%(48명)로 여성 41.5%(34명)에 비해 17.0%포인트 정도 높다. 13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8.5%이며, 50~59세는 6.1%, 60~69세는 8.5%, 70~79세는 24.4%, 80세 이상은 52.4%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72.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3차년도에는 77.6세로 나타났다. 표본 수

〈표 3-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966	97	87	82	90	51	82	73	67	96	68	91	82
성별	남성	567 (58.7)	62 (63.9)	42 (48.3)	47 (57.3)	58 (64.4)	30 (58.8)	47 (57.3)	39 (53.4)	35 (52.2)	55 (57.3)	47 (69.1)	57 (62.6)	48 (58.5)
	여성	399 (41.3)	35 (36.1)	45 (51.7)	35 (42.7)	32 (35.6)	21 (41.2)	35 (42.7)	34 (46.6)	32 (47.8)	41 (42.7)	21 (30.9)	34 (37.4)	34 (41.5)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72 (7.5)	10 (10.3)	7 (8.1)	7 (8.5)	8 (8.9)	6 (11.8)	5 (6.1)	0 (0.0)	5 (7.5)	6 (6.3)	6 (8.8)	5 (5.5)	7 (8.5)
	50~59세	71 (7.3)	7 (7.2)	7 (8.1)	5 (6.1)	5 (5.6)	1 (2.0)	8 (9.8)	7 (9.6)	4 (6.0)	6 (6.3)	8 (11.8)	8 (8.8)	5 (6.1)
	60~69세	130 (13.5)	16 (16.5)	10 (11.5)	12 (14.6)	20 (22.2)	9 (17.7)	5 (6.1)	8 (11.0)	8 (11.9)	11 (11.5)	12 (17.7)	12 (13.2)	7 (8.5)
	70~79세	273 (28.3)	30 (30.9)	28 (32.2)	21 (25.6)	27 (30.0)	18 (35.3)	31 (37.8)	19 (26.0)	18 (26.9)	25 (26.0)	14 (20.6)	22 (24.2)	22 (24.4)
	80세 이상	420 (43.5)	34 (35.1)	35 (40.2)	37 (45.1)	30 (33.3)	17 (33.3)	33 (40.2)	39 (53.4)	32 (47.8)	48 (50.0)	28 (41.2)	44 (48.4)	44 (52.4)
평균연령		74.9	72.5	74.5	74.9	72.7	71.5	76.0	78.5	74.9	76.8	72.9	75.4	77.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임.

〈표 3-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단위: %)

	노환	사고	질병	기타
2차(‘10)	45.4	9.3	44.3	1.0
3차(‘11)	44.8	13.8	40.2	1.2
4차(‘12)	47.6	8.5	42.7	1.2
5차(‘13)	35.6	8.9	53.3	2.2
6차(‘14)	37.3	9.8	52.9	0.0
7차(‘15)	40.2	7.3	51.2	1.2
8차(‘16)	56.2	4.1	38.4	1.4
9차(‘17)	46.3	4.5	46.3	3.0
10차(‘18)	41.7	6.3	50.0	2.1
11차(‘19)	39.7	8.8	50.0	1.5
12차(‘20)	38.5	5.5	56.0	0.0
13차(‘21)	50.0	7.3	40.2	2.4

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13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50.0%로 가장 높았고 질병 40.2%, 사고 7.3% 순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가계경제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09통합표본 13차년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설문 구조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은 98표본의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09통합표본의 조사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1~13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98표본)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09통합표본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19차년도(09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부터는 2015년에 추가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편 24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조사되기 시작했으며, 모두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 소득 또한 9차년도(98표본)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²⁰⁾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 [24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의 경우 2019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98표본)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 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 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¹⁾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5,833만 원(월평균 약 486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²⁾하면 12차

20) 8차년도에 조사된 기타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으로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21)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22)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명목 소득	3,516 (0015)	3,843 (0015)	3,918 (0013)	4,115 (0012)	4,335 (0013)	4,518 (0013)	4,650 (0013)	4,787 (0014)	5,030 (0015)	5,161 (0014)	5,174 (0013)	5,628 (0044)	5,833 (0047)
실질 소득	4,304	4,580	4,535	4,577	4,722	4,858	4,936	5,044	5,251	5,288	5,221	5,656	5,83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년도에 비해 177만 원 증가한 5,833만 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에는 4,304만 원이며, 2차년도에 4,5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4,535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4차년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1차년도에 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소득 증가폭이 낮아서 오히려 감소하였고 12차년도에 명목소득이 다시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5,833만 원으로 나타났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4.1%이며, 연평균 근로소득은 5,319만 원으로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동산소득이 연평균 2,701만 원이며, 연평균 기타 소득은 9,458만 원²³⁾으로 가장 많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이전소득으로 연간 평균 452만 원에 불과했다. 금융소득도 연평균 537만 원으로 높지 않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전체 가구 중 99.4%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했다.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2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2008년 81.7, 2009년 83.9, 2010년 86.4, 2011년 89.9, 2012년 91.8, 2013년 93.0, 2014년 94.2, 2015년 94.9, 2016년 95.8, 2017년 97.6,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0)

23) 기타 소득 중에서 특히 증여/상속을 받은 몇몇 가구의 값이 크게 조사되어 자료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표 4-2〉 13차(2021)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5,319	84.1
금융소득	537	12.9
부동산소득	2,701	9.1
사회보험소득	1,004	25.3
이전소득	452	99.4
기타 소득	9,458	3.6

한편, [그림 4-1]은 13차년도 가구의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나타내며,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총소득 및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구한다.

전체 가구총소득은 개별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text{전체 가구총소득} = \sum_{i=1}^N \text{가구총소득}_i$$

여기서, 가구총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의미하고, *i* = 1, ..., *N*(가구의 수)이다.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예로 설명하면, 전체 근로소득은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text{전체 근로소득} = \sum_{i=1}^N \text{근로소득}_i$$

여기서, 근로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근로소득이다.

최종 구하고자 하는 근로소득 비중은 다음 식과 같으며,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전체 근로소득 비중을 계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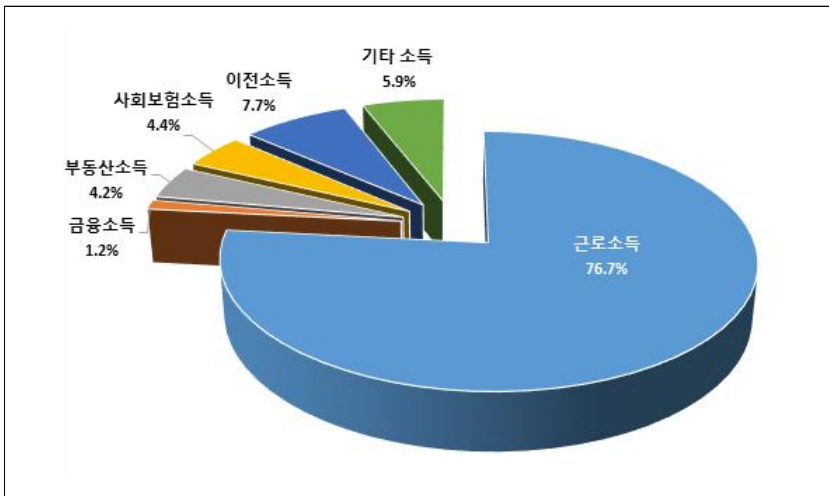
$$\text{근로소득 비중} = \frac{\text{전체 근로소득}}{\text{전체 가구총소득}} \times 100$$

나머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비중도 근로소득 비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7%로 가장 높다. 이전소득액은 가구총소득액에서 7.7%를 차지하여 둘째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기타 소득은 가구총소득액에서 5.9%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았다.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으나 총소득액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1.2%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13차(2021)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09통합표본)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24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24

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의 경우 2020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주거비·식품비·보건 의료비·교통통신비·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 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용돈 항목을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09통합표본 1~13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13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2만 원 정도 상

〈표 4-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501	6,333	6,304	6,353	6,377	6,471	6,561	6,614	6,664	6,688	6,701	6,686	6,695
50만 원 미만	9.4	6.5	6.7	5.6	5.8	4.9	4.2	3.8	3.0	3.1	3.0	2.5	2.3
50만~100만 원 미만	14.3	13.6	13.0	11.8	11.4	11.3	11.2	10.5	10.7	10.3	10.1	9.6	10.2
100만~150만 원 미만	16.0	16.2	15.0	14.9	14.3	13.3	13.3	14.0	13.5	12.5	11.7	12.9	13.2
150만~200만 원 미만	15.9	15.9	13.9	14.1	13.7	14.9	14.4	13.5	12.7	13.3	13.1	12.8	12.6
200만~250만 원 미만	14.9	15.0	15.2	14.9	15.4	15.1	14.5	14.7	14.8	13.6	13.4	13.6	13.3
250만~300만 원 미만	9.8	10.2	10.3	10.7	10.1	10.1	11.3	11.1	10.4	11.2	10.3	10.7	9.7
300만 원 이상	19.7	22.7	25.9	28.0	29.3	30.4	31.2	32.5	35.0	36.1	38.3	38.0	38.7
월평균 생활비 (만 원)	194	204	215	223	227	231	234	239	247	249	257	254	256
(변동계수)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승한 25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1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3차년도에 다시 상승하였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9.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차년도 조사에서는 2.3%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29.5%였으나 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다 13차년도에 소폭 하락하여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⁴⁾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24)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및 4~24차년도(09통합표본 1~13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표 4-4〉 13차(2021)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51	19.7
외식비	14	5.3
공교육비	8	2.9
사교육비	15	5.9
차량유지비	21	8
주거비	22	8.5
경조사비	6	2.3
보건의료비	7	2.6
문화비	8	3.3
내구재	3	1.2
통신비	13	4.9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0	0.2
자녀 용돈	11	4.5
그 외 가구원의 용돈	27	10.4
피복비	8	3.3
현금 및 기부금	3	1.3
국민연금	12	4.9
의료보험	13	5.2
대중교통비	6	2.5
생필품구입비	6	2.5
기 타	2	0.6
전체 생활비	257	100.0

51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9.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가 8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5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미만, 자녀는 11만 원, 그 외 가구원은 2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6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는 13만 원을 지출(전체 생활비의 4.9%)하여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12만 원, 1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13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0.8%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71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1~13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55.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71.8%로 나타났다.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13차년도에는 70.8%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1차년도 44만 4,000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3차년도에는 71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3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

〈표 4-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90	6,575	6,632	6,683	6,709	6,729	6,711	6,731
저축 안 함	44.9	39.4	37.3	35.3	32.1	28.3	29.2	27.6	28.7	28.1	28.6	27.9	29.2
저축함	55.1	60.7	62.7	64.7	67.9	71.8	70.8	72.5	71.3	71.9	71.4	72.1	70.8
월평균 저축액	44.4	49.2	52.1	56.8	62.8	65.7	66.7	70.5	70.7	72.1	70.1	69.8	71.7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8.6%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9.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6%, 87.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9%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553만 9,000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1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은 530만 2,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79만 8,000원, 162만 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36만 5,000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

<표 4-6> 13차(2021)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3,072		2,479		2,781	
없었음	71.4	16.4	71.5	12.9	20.6	61.1
있었음	28.6	83.6	28.5	87.1	79.4	38.9

〈표 4-7〉 13차(2021)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 총금액	553.9	179.8	201.0	162.0	336.5	530.2
현금	453.0	148.5	125.6	130.2	274.3	453.3
현물	100.9	31.3	75.4	31.8	62.2	76.9

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류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3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이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3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0.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 17.5%, 월세 16.8%로 나타났다.

1~13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6차년도까지는 58% 정도를 유지하다가 7차년도 58.4%, 8차년도 59.4%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11차년도 60.4%를 정점으로 감소해 13차년도에는 60.0%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36.8%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13차년도에는 34.3%로 나타났다.

<표 4-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체	6,721	6,397	6,387	6,430	6,454	6,486	6,575	6,629	6,683	6,708	6,729	6,711	6,731
자가	57.6	57.6	57.8	57.9	57.7	57.9	58.4	59.4	59.5	59.8	60.4	60.2	60.0
전세	22.9	23.5	20.8	20.0	19.8	19.9	19.3	17.6	17.4	17.0	17.4	18.2	17.5
월세	13.9	13.1	15.1	15.6	15.8	15.6	16.0	17.0	17.3	17.7	16.9	16.3	16.8
기타	5.6	5.8	6.4	6.6	6.7	6.6	6.3	6.0	5.8	5.5	5.3	5.3	5.7

주: ‘전체’는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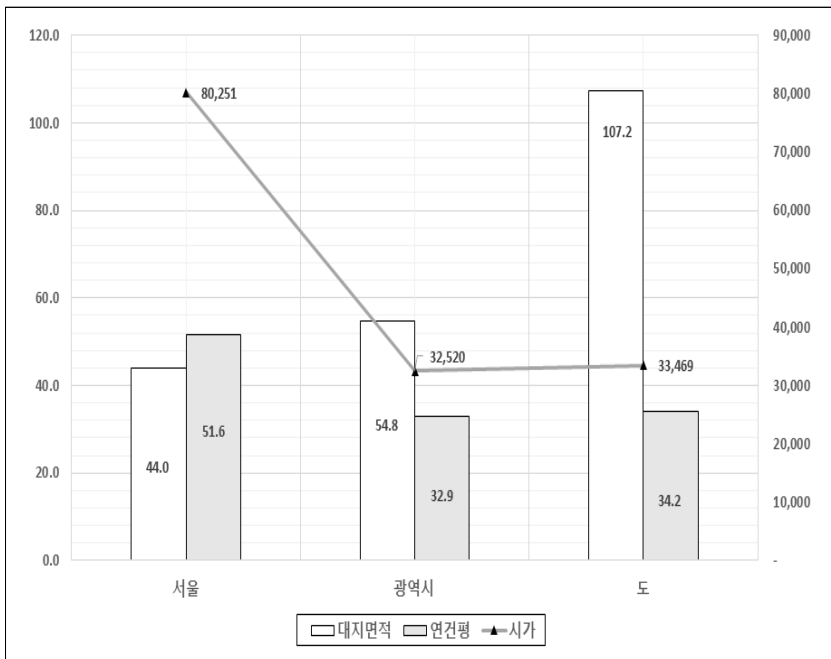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의 약 2.4배, 광역시의 약 2.0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과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7.2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4.8평, 서울은 44.0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1.6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32.9평, 도 지역은 34.2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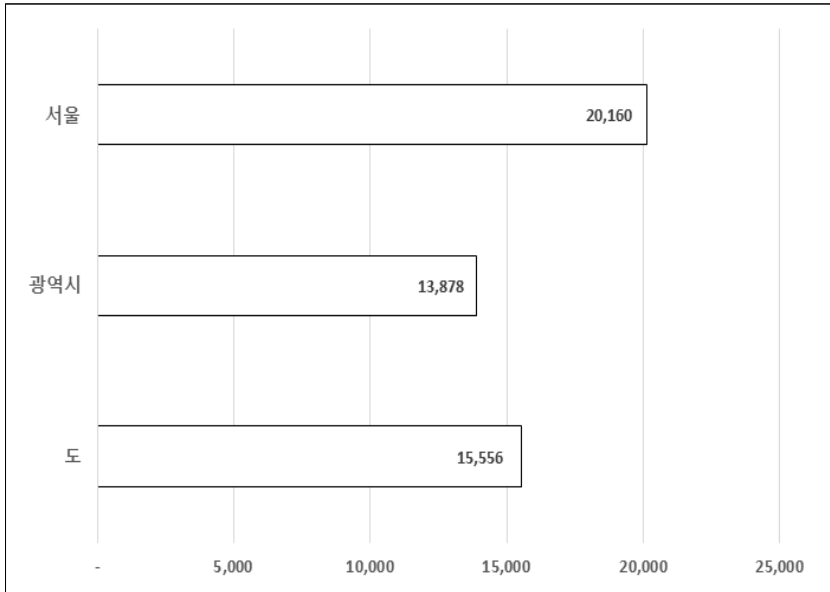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251만 원인 데 비해 도 지역은 서울의 42% 정도에 해당하는 3억 3,469만 원으로 조사되

[그림 4-3] 13차(2021)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09통합표본)
(단위: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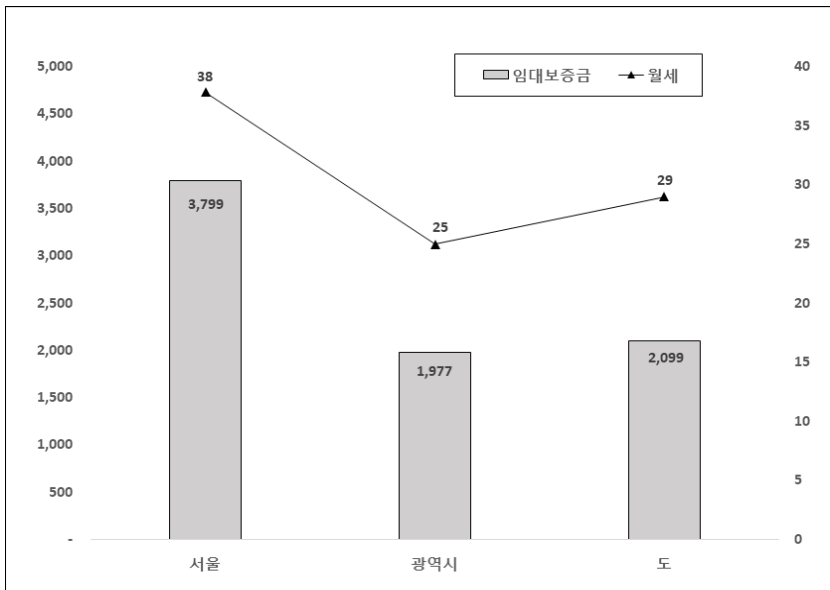
〔그림 4-4〕 13차(2021)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그림 4-5〕 13차(2021)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었으며,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2,5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및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 160만 원으로 광역시(1억 3,878만 원)보다 6,282만 원 높고, 도 지역(1억 5,556만 원)보다도 4,604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4-4] 참조).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29만 원과 25만 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3,799만 원으로 광역시의 약 1.9배, 도의 약 1.8배로 높았다([그림 4-5] 참조).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3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55.7%)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18.3%를, 다세대주택이

<표 4-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89	6,572	6,632	6,683	6,709	6,727	6,711	6,731
단독주택	29.7	27.3	27.0	25.8	24.8	23.6	22.4	21.8	21.0	19.7	19.0	18.6	18.3
아파트	45.7	48.3	48.6	49.1	49.9	50.6	51.4	51.3	52.2	53.1	54.2	55.7	55.7
연립주택	10.1	10.2	10.2	10.2	10.0	9.5	9.3	9.7	9.6	8.9	8.8	8.5	8.5
다세대 주택	10.0	9.6	9.6	10.3	10.6	11.1	11.9	12.2	12.5	12.7	12.6	12.0	12.0
상가주택	3.5	3.2	3.4	3.3	3.2	3.2	3.0	3.3	3.2	3.3	3.1	2.9	3.0
기타	1.1	1.5	1.2	1.4	1.5	2.1	2.0	1.8	1.6	2.2	2.3	2.3	2.6

주: ‘전체’는 가구의 주택 종류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1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중은 8.5%이며 상가주택은 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차년도에 이르러서는 10.0%포인트 증가한 55.7%인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3. 주거지의 선택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13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

<표 4-10> 13차(2021)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09통합표본)

이사 동기	비중(%)
내 집 마련	28.4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1.9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10.1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6.2
취업/창업	6.0
신혼집 마련	5.6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0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4.7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6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3.7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3.7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2.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2
자녀 교육 때문에	1.9
독립하고 싶어서	1.6
전 체	100.0

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이 28.4%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와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가 각각 11.9%, 10.1%로 나타났다.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3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3차년도의 경우 2021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부동산 임대 여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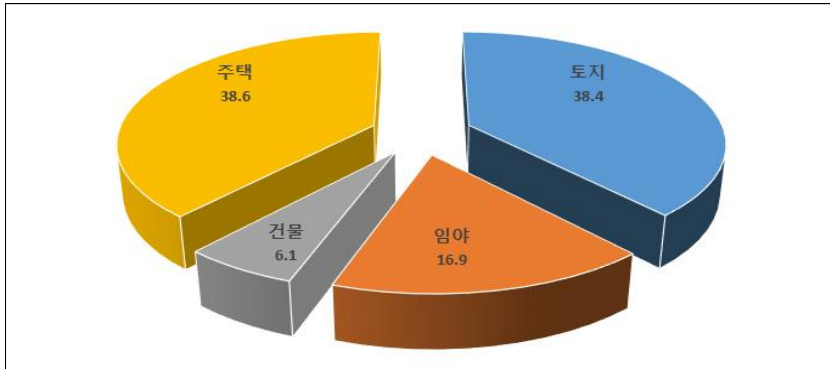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3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8.0%로 전년도(18.6%)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기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3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4%로 조사되었다.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90	6,575	6,632	6,683	6,709	6,729	6,711	6,731
부동산 소유 여부													
없음	77.0	78.3	78.8	78.0	79.1	78.8	80.1	80.0	80.0	79.9	80.8	81.4	82.1
있음	23.0	21.7	21.2	22.0	20.9	21.2	19.9	20.0	20.0	20.2	19.2	18.6	18.0
1,000만 원 미만	2.6	2.6	2.8	1.3	1.3	1.0	0.7	0.4	0.3	1.0	0.4	0.1	0.3
1,000만~5,000만 원 미만	16.3	15.9	12.6	15.4	12.2	12.2	11.4	11.8	9.5	9.9	9.9	8.6	7.6
5,000만~1억 원 미만	21.2	18.7	18.5	17.9	17.7	19.5	15.6	15.3	15.9	16.5	14.5	15.7	12.5
1억~3억 원 미만	33.7	35.7	35.9	34.9	37.0	37.0	37.3	37.6	36.0	31.6	34.5	34.3	29.4
3억~5억 원 미만	11.7	13.7	13.4	16.1	16.0	15.0	16.7	17.5	17.2	18.6	18.0	17.9	18.8
5억~10억 원 미만	8.3	8.9	11.4	8.5	9.6	9.7	12.0	10.8	13.1	13.5	14.2	14.1	19.1
10억 원 이상	6.2	4.4	5.4	5.9	6.3	5.6	6.0	6.6	8.1	8.9	8.4	9.1	12.2
잘 모르겠음	0.1	0.1	0.0	0.0	0.0	0.0	0.3	0.1	0.0	0.1	0.1	0.2	0.1

〈그림 4-6〉 13차(2021)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09통합표본)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차년도에 6.2%였으나 2차년도에 4.4%로 1.8%포인트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5차년도 이후에는 평균 6%대를 유지하였으며 8차년도에는 6.6%이고, 13차년도에는 1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차

년도에 20.0%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7차년도에 28.7%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한 후 13차년도에는 37.9%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주택으로 전체 응답 중 38.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토지가 38.4%, 임야가 16.9%, 건물이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3차년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664	6,375	6,388	6,376	6,369	6,378	6,499	6,555	6,639	6,665	6,729	6,711	6,677
없음	41.8	37.9	37.4	35.8	34.6	27.2	26.3	23.0	19.9	18.6	17.9	17.2	15.0
250만 원 미만	6.3	6.3	6.0	5.7	6.6	6.9	5.8	6.0	5.5	5.3	4.8	4.7	4.5
250만~500만 원 미만	4.1	4.7	4.6	4.1	4.5	4.7	4.1	4.5	4.5	3.7	3.1	3.0	2.8
500만~1,000만 원 미만	10.0	10.1	10.0	9.3	10.1	10.3	10.2	10.3	9.9	9.6	9.2	9.9	8.0
1,000만~5,000만 원 미만	27.5	29.8	30.1	32.8	31.4	34.4	35.8	36.1	37.7	38.3	39.5	38.4	41.0
5,000만~1억 원 미만	6.0	6.5	6.7	7.1	7.3	9.9	10.4	11.4	12.7	14.7	14.8	15.2	15.8
1억 원 이상	4.4	4.6	5.3	5.1	5.5	6.6	7.4	8.7	9.9	9.9	10.8	11.7	13.1
평균(만 원)	1,933	2,011	2,107	2,094	2,244	2,881	3,072	3,381	3,838	4,014	4,009	4,533	5,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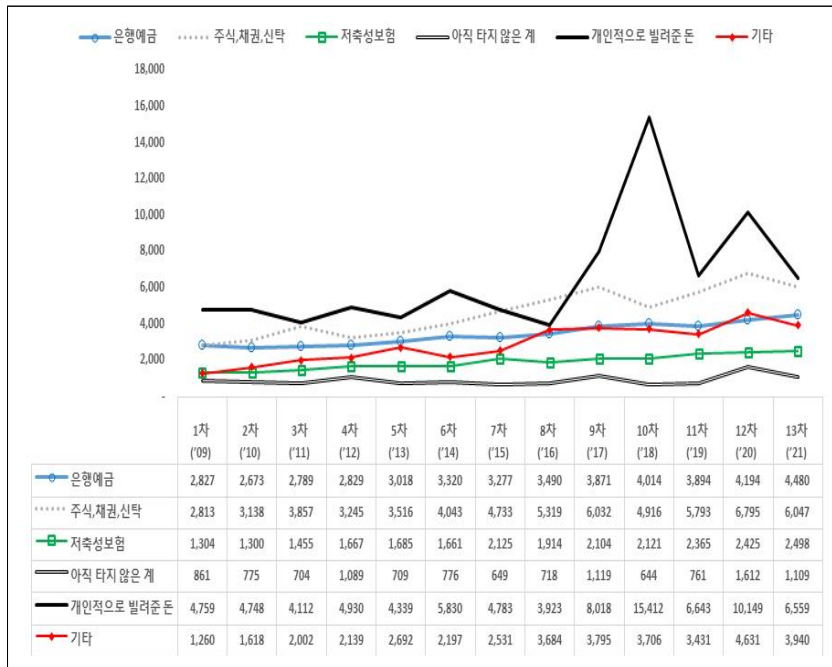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도는 85.0%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3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511만 원이 증가하여 5,04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13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5,000만~1억 원 미만인 가구가 15.8%,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13.1%,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8.0%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713만 원 상승한 6,032만 원이었으나 10차년도에 다시 1,116만 원 감소한 4,916만 원으로 나타났고 13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748만 원 감소한 6,04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1차년도의 2,827만 원에서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13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286만 원 증가한 4,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827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2,813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주식/채권/신탁이 은행예금을 추월하여,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13차년도에 1,567만 원 차이가 나고 있다.

저축성보험금은 1차년도 1,304만 원에서 13차년도 2,498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 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3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1.5%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8.0%) 당시보다 6.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89만 원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10차년도 이후 5,000만 원 초반에서 정체를 보인다 13차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여 5,789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0%였다가 2차년도에는 4%포인트 증가한 56.0%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8차년도 이후 56.0%대에서 횡보하다가 13차년도에는 58.5%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전 체	6,680	6,394	6,365	6,409	6,420	6,458	6,553	6,610	6,663	6,688	6,710	6,699	6,714
부채 없음	52.0	56.0	55.8	55.0	54.8	55.1	55.3	56.2	57.1	56.6	57.3	58.2	58.5
500만 원 미만	4.5	2.3	3.0	2.6	2.3	2.1	2.1	1.9	1.7	1.3	1.5	1.0	1.1
500만~1,000만 원 미만	3.7	3.6	3.5	3.0	2.8	2.6	2.2	2.2	2.1	2.2	1.7	1.7	1.9
1,000만~5,000만 원 미만	20.7	18.6	18.2	18.3	17.7	17.5	16.3	15.1	13.4	13.0	13.1	12.2	11.9
5,000만~1억 원 미만	9.0	8.6	8.1	8.8	9.3	9.2	9.8	9.6	9.8	10.1	9.3	9.1	7.8
1억 원 이상	10.2	10.8	11.4	12.3	13.2	13.6	14.4	15.1	16.1	16.9	17.2	17.8	18.9
평균(만 원)	3,389	3,493	3,643	4,140	4,284	4,367	4,494	4,685	4,894	5,286	5,228	5,235	5,789

주 :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13차년도(2021년)의 부채 잔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8.9%,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09통합표본 5차)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 5세 이하 자녀와 만 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였고, 0세~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 및 양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2.3%였으며, 1명인 경우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8.2%였으며, 1명인 경우가 51.6%였으나 2명인 경우도 41.9%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11.4%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4> 13차(2021)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09통합표본)

(단위: %)

		0세~만 5세 이하	만 6세~재수생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32.3	78.2	11.4
	없음	67.7	21.8	88.6
자녀 수	1명	76.5	51.6	83.8
	2명	22.1	41.9	15.5
	3명 이상	1.4	6.4	1.0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3,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만 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3만 4,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 4,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표 4-15〉 13차(2021)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09통합표본)

(단위: %)

		0세~만 5세 이하(월평균)	만 6세~재수생 (월평균)	대학생 이상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4.3	22.7	38.4
	약간 부담된다	24.3	47.3	39.8
	보통이다	43.1	26.5	18.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13.7	2.7	3.0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7	0.8	0.3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45.3	73.4	1,166.5(563.1)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6.7	48.4	997.1(481.3)

주: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의 경우는 28.6%이고 만 6세~재수생은 70.0%에 달했으며, 특히 만 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66만 5,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997만 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563만 1,000원, 자녀당 연평균 481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38.4%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다수의 가구가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KLIPS는 98표본의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취업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98표본이 아닌 2009년 추가표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을 1차년도로 정의하며,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21년도 제 13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1차년도(2009년)부터 13차년도(2021년)까지 1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 상태

<표 5-1>에는 09통합표본 1~13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본 수이다. 09통합표본의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 수도 2차년도에 급격히 줄었으며 그 이후로도 개인 원표본 사례 수가 줄었으나 7차년도부터 9차년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0차년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종단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3차년도의 경우 1,07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⁵⁾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KLIPS에서는 조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09)		14,470	11,360	3,110
2차('10)		13,470	13,149	321
3차('11)		13,133	12,847	286
4차('12)		13,025	12,795	230
5차('13)		12,819	12,613	206
6차('14)		12,089	12,068	21
7차('15)		12,737	12,402	335
8차('16)		12,775	12,575	200
9차('17)		12,915	12,728	187
10차('18)		12,811	12,606	205
11차('19)		12,681	12,504	177
12차('20)		12,500	12,341	159
13차('21)	종단 사례 수	12,402	12,194	208
	횡단 사례 수	13,477	13,194	283

주: 1~13차년도 사례 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이며, 13차년도는 종단 사례 수와 횡단 사례 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 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를 나타냄.

25)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 조사 대상 기간이다.

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ILO	OECD	ILO	OECD	ILO	OECD
1차('09)	54.3	54.3	2.3	2.6	43.4	43.1
2차('10)	55.4	55.4	1.4	1.6	43.2	43.1
3차('11)	56.3	56.3	1.5	1.8	42.2	41.9
4차('12)	56.4	56.4	1.6	1.9	42.0	41.6
5차('13)	56.5	56.5	1.4	1.6	42.1	41.8
6차('14)	57.0	57.0	1.4	1.6	41.7	41.4
7차('15)	56.4	56.4	1.3	1.7	42.3	41.9
8차('16)	56.6	56.6	1.3	1.6	42.1	41.8
9차('17)	57.2	57.2	1.4	1.5	41.4	41.3
10차('18)	57.7	57.7	1.2	1.4	41.2	40.9
11차('19)	57.2	57.2	1.7	1.9	41.1	40.8
12차('20)	56.5	56.5	1.4	1.9	42.0	41.6
13차('21)	57.4	57.4	1.7	1.8	40.9	40.8

주: 1) ILO와 OECD 기준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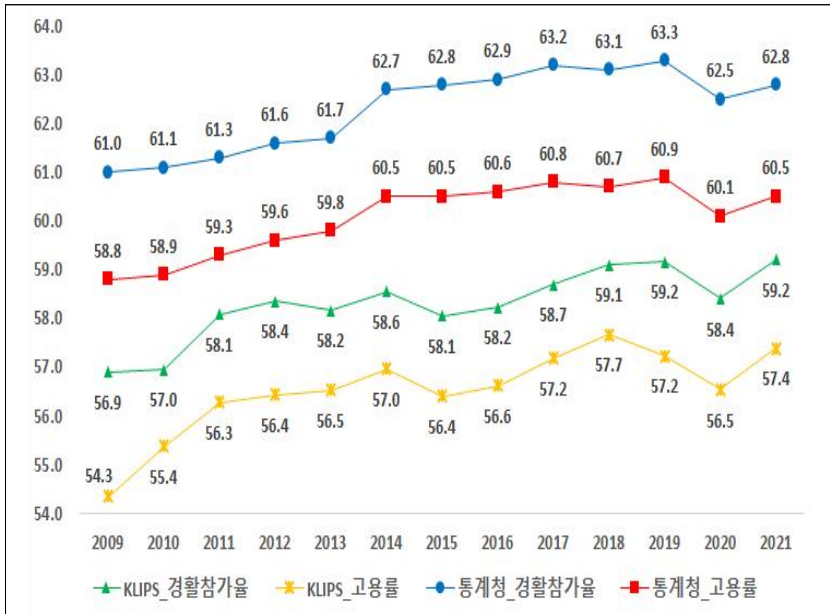
3)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4)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ILO 기준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7차년도에 56.4%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8차년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13차년도에 소폭 증가한 57.4%로 나타났다. ILO 기준 실업자²⁶⁾의 비중은 1차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21년)

(단위 : %)



주: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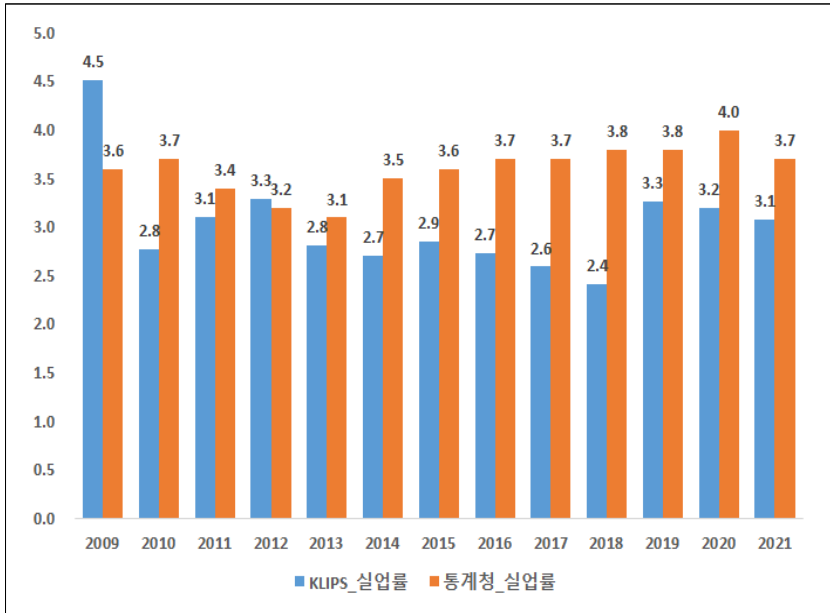
3)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26)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에서는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KLIPS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1년)

(단위: %)



주: 1) 실업률= 실업자(OECD 기준)/경제활동인구×100.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년도에 2.3%에서 2차년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13차년도에는 1.7%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3차년도 현재 40.9%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KLIPS 경제활동참가율은 3.6%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고용률은 3.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09통합표본 1차년도에서 4.5%로 경활의 3.6%보다 0.9%포인트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오히려 경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⁷⁾

2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15), 「노동패널 고용지표의 신뢰성 검토」,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참조.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6.3	18.4	75.3
2010	6.3	18.6	75.1
2011	5.9	19.1	75.0
2012	5.6	19.1	75.3
2013	5.5	19.0	75.6
2014	5.1	18.7	76.2
2015	5.1	18.5	76.4
2016	4.9	18.1	77.0
2017	4.8	17.8	77.4
2018	4.6	17.6	77.8
2019	4.3	17.0	78.7
2020	4.1	17.0	78.9
2021	4.2	16.8	79.0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1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3)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7.0	16.5	76.5
2010	6.6	17.1	76.3
2011	6.4	17.0	76.6
2012	6.1	16.8	77.1
2013	6.0	17.1	76.9
2014	5.6	17.3	77.2
2015	5.1	17.6	77.2
2016	4.8	17.4	77.8
2017	4.8	17.2	78.0
2018	5.0	16.9	78.1
2019	5.1	16.4	78.5
2020	5.4	16.3	78.3
2021	5.3	16.1	78.6

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1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2차 산업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추이로 볼 때 KLIPS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판매직은 22%대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인 2013~2020년의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21년의 경우 전문관리직은 25.0%, 사무직 17.5%, 서비스판매직 22.2%, 농림어업직 3.9%, 생산직 31.51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활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7	15.4	22.5	5.7	34.7
2010	22.8	14.6	22.1	5.9	34.7
2011	22.7	14.7	22.2	5.5	34.9
2012	23.5	14.7	22.7	5.2	33.9
2013	23.5	15.6	22.3	5.1	33.5
2014	24.7	15.9	22.1	4.7	32.6
2015	24.1	16.0	22.8	4.7	32.3
2016	24.3	16.5	22.7	4.6	32.0
2017	23.8	16.7	22.8	4.5	32.3
2018	24.7	16.8	22.4	4.3	31.9
2019	25.0	17.4	22.3	3.9	31.4
2020	25.0	17.3	22.2	3.9	31.6
2021	25.0	17.5	22.2	3.9	31.5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1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3)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KLIPS와 경황조사를 비교해 보면, KLIPS조사에서 경황조사보다 전문관리직은 약간 높게 나타났고 생산직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제 13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1.0%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35.0%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1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2	15.3	23.4	6.5	33.6
2010	21.5	15.7	22.5	6.1	34.2
2011	21.4	16.5	22.1	5.9	34.2
2012	21.3	16.7	22.5	5.7	33.8
2013	21.2	16.9	22.6	5.6	33.6
2014	21.4	16.9	22.9	5.2	33.6
2015	21.2	17.0	22.7	4.7	34.4
2016	21.3	17.3	22.8	4.5	34.2
2017	21.5	17.4	22.6	4.5	34.0
2018	21.9	17.8	22.4	4.7	33.3
2019	22.0	17.5	22.7	4.9	32.9
2020	21.8	17.4	22.1	5.1	33.5
2021	21.9	17.4	21.4	5.1	34.1

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1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20대(27.5%), 30대(23.2%), 40대(25.1%)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5%), 60세 이상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0%)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종사자는 여성(18.0%)이 남성(7.1%)의 2배가량을 정도로 더 많은 데 비해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13차(202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증 기및수 도, 원 료재생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 비스업	공공서 비스업	기타
성별	남성	4.4	21.0	1.3	11.7	16.5	12.6	13.4	12.9	6.3
	여성	3.9	12.0	0.3	1.7	23.2	3.8	13.3	35.0	6.9
연령	15~29세	0.3	18.9	1.5	2.4	23.8	8.3	12.3	27.5	5.1
	30~39세	1.2	20.3	0.6	5.3	17.3	10.2	15.1	23.2	6.8
	40~49세	1.2	17.7	1.2	7.8	18.3	9.0	13.7	25.1	6.1
	50~59세	3.1	17.5	0.9	10.5	21.5	8.3	11.9	20.3	6.0
	60세 이상	14.6	12.0	0.5	8.5	17.0	8.5	13.7	17.0	8.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9	13.4	0.2	9.2	18.8	5.9	10.1	15.0	8.4
	고졸	4.1	21.1	1.0	9.2	25.0	8.3	11.4	12.6	7.4
	대재/중퇴	1.2	13.6	2.4	9.2	25.6	11.5	12.2	18.2	6.2
	전문대졸	1.5	19.9	0.6	7.1	19.9	9.2	12.1	23.5	6.3
	대졸 이상	1.2	14.7	1.0	5.4	13.7	9.7	16.6	32.3	5.4

주: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원료재생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을 포함.

3) 운수 및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을 포함

4)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포함.

5) 공공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

6) 기타: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관리자 및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43.8%로 나타났다.

〈표 5-8〉 13차(202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성별	남성	1.8	20.9	15.4	7.1	9.0	4.1	15.4	16.6	9.7
	여성	0.4	27.5	20.4	18.0	11.9	3.5	3.4	3.9	11.1
연령	15~29세	0.1	31.1	22.0	13.1	10.9	0.2	7.2	9.0	6.5
	30~39세	0.2	34.8	25.0	9.3	8.3	0.8	7.5	8.8	5.3
	40~49세	0.9	30.3	23.0	9.8	9.9	1.0	9.9	8.6	6.6
	50~59세	2.4	18.1	13.2	12.6	12.5	2.8	12.9	15.1	10.5
	60세 이상	1.6	7.4	6.1	14.4	9.2	14.2	12.0	13.2	21.8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0	1.2	1.4	16.9	7.3	17.9	15.8	11.6	27.9
	고졸	0.6	7.2	11.2	15.7	13.9	3.6	14.1	19.2	14.4
	대재/중퇴	0.2	15.7	15.4	15.1	18.4	1.1	11.6	11.3	11.3
	전문대졸	0.8	27.0	20.2	10.5	10.1	1.4	11.6	12.0	6.4
	대졸 이상	2.3	43.8	26.7	6.9	7.1	1.1	4.7	4.4	3.0

주: 1)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군인은 제외하였음.

제3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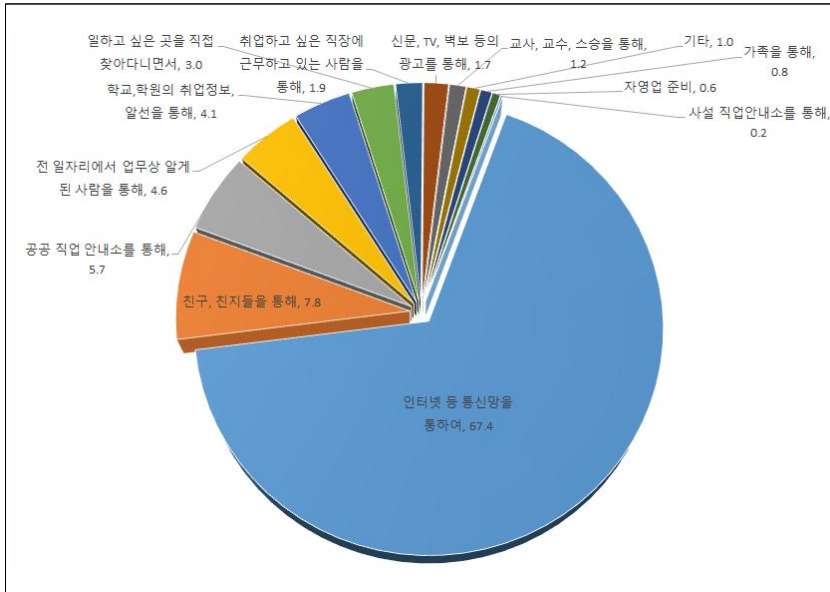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그림 5-3〕 13차(2021)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구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67.4%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7.8%를 차지하였다.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5.7%, 전 일 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가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⁸⁾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

28)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 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9〉 13차(2021)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별	남성	75.4	20.4	4.2	100.0
	여성	90.8	7.9	1.4	100.0
연령	15~29세	92.0	7.5	0.6	100.0
	30~39세	92.4	2.8	4.8	100.0
	40~49세	70.3	29.7	0.0	100.0
	50~59세	72.1	26.1	1.8	100.0
	60세 이상	39.7	47.7	12.6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67.9	27.9	4.3	100.0
	고졸	71.9	23.1	5.0	100.0
	대재/중퇴	74.9	25.1	0.0	100.0
	전문대졸	88.9	9.8	1.3	100.0
	대졸 이상	88.1	8.7	3.2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비공식적 방법이 약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비공식적 방법이 더 높았다. 특히 20~30대는 90%대 이상 수준으로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의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 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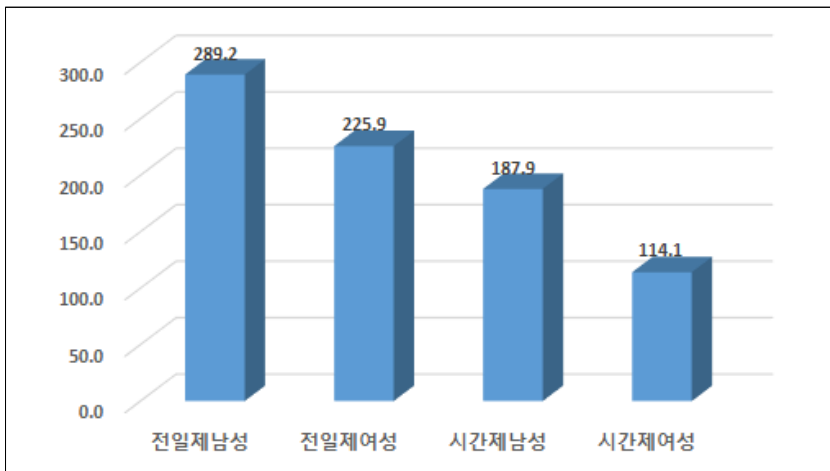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89만 2,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225만 9,000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우 남성은 187만 9,000원, 여성은 114만 1,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그림 5-4] 13차(2021)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표 5-10〉 13차(2021)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09통합표본)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8	2.0	1.9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8	2.9	2.8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0	3.5	3.2
4. 경험이 부족하다.	2.8	2.7	2.7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4	2.6	2.5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3.2	3.3	3.2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6	3.3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	4.8	4.0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9	3.9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1	4.5	4.2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항목에 대해 평균 1.9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5점)과 '경험이 부족하다.'(2.6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표 6-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5,189	60.9	39.1	69.9
2차('10)	5,084	59.9	40.2	70.7
3차('11)	5,148	60.0	40.0	72.2
4차('12)	5,210	59.6	40.5	72.7
5차('13)	5,202	59.6	40.5	73.0
6차('14)	5,073	59.6	40.4	73.7
7차('15)	5,342	59.4	40.6	74.2
8차('16)	5,483	58.5	41.5	74.3
9차('17)	5,671	57.2	42.8	74.9
10차('18)	5,739	57.0	43.0	75.3
11차('19)	5,754	56.9	43.1	76.2
12차('20)	5,644	56.8	43.2	76.3
13차('21)	5,690	56.3	43.7	76.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 장은 09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6-1>은 1~13차(2009~2021)년도 동안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690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2009)년도 69.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3차(2021)년도에는 76.4%이다.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5,690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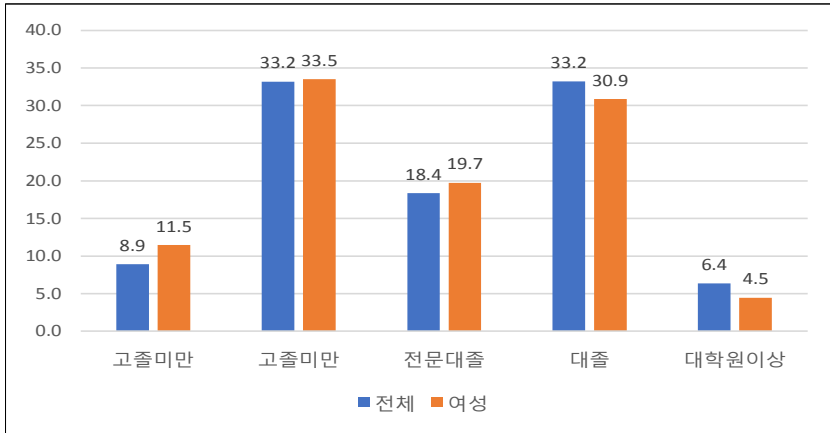
먼저 [그림 6-1]에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비중이 33.2%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에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0대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17.8%),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30~4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표 6-2>에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33.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이 19.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농림어업은 0.7%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산업별 분포의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남성은 광공업(24.9%), 기타 서비스업(23.3%), 건설업(1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기타 서비스업(47.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8%), 광공업(13.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8.0%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30.1%),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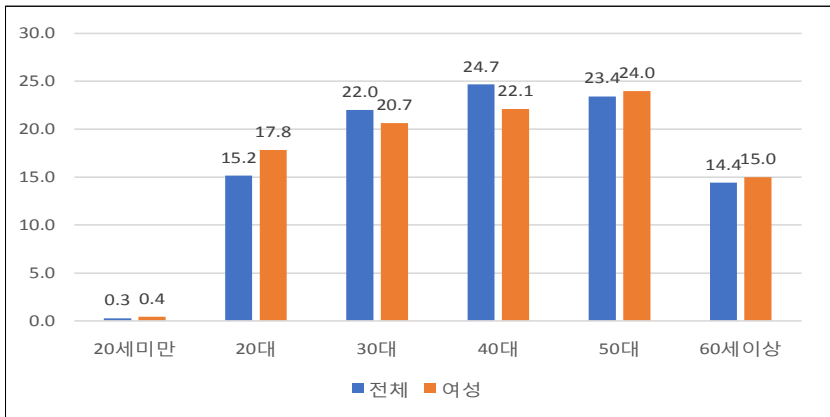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서비스직(25.7%), 사무직(23.9%)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29인이 19.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은 10인 미만(여성 36.0%, 남성 27.4%)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0.7	0.7	0.6
	광공업	19.8	24.9	13.1
	건설업	8.1	13.2	1.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7	1.0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4	12.0	19.8
	운수통신업	8.4	11.7	4.3
	금융 및 부동산업	6.2	5.6	7.0
	공공서비스업	7.0	7.6	6.2
	기타 서비스업	33.8	23.3	47.2
직종	전문관리직	28.0	26.3	30.1
	사무직	21.3	19.2	23.9
	서비스직	17.3	10.7	25.7
	농림어업직	0.3	0.4	0.2
	생산직	33.1	43.3	20.1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1.1	27.4	36.0
	10~29인	19.6	19.2	20.2
	30~99인	17.9	18.4	17.3
	100~299인	10.5	10.8	10.1
	300~499인	3.0	3.5	2.3
	500인 이상	17.9	20.7	14.1
기업 형태	민간회사	75.1	77.5	72.0
	외국인회사	0.8	0.9	0.6
	공기업	5.1	4.9	5.4
	법인단체	5.5	4.0	7.5
	정부기관	10.9	9.6	12.6
	비소속	1.7	2.1	1.3
	기 타	0.9	1.1	0.7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 함	92.1	90.9	93.6
	2조 2교대제	3.6	4.3	2.8
	3조 3교대제	2.5	2.3	2.7
	기타 교대제	1.8	2.6	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76.9	81.1	71.5
	임시직	16.0	10.6	22.9
	일용직	7.1	8.3	5.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75.1%),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으며(10.9%). 남녀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7.9%였으며, 남성(9.1%)이 여성(6.4%)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6.9%, 임시·일용직이 23.1%인 반면에, 통계청의 2021년 경황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28.2%이다.²⁹⁾ KLIPS와 경황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황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2절 근로시간

13차(2021)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

29)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시간)

	전 체	남 성	여 성
1차('09)	46.7	48.4	44.0
2차('10)	46.9	48.7	44.2
3차('11)	46.2	48.1	43.3
4차('12)	45.2	47.0	42.5
5차('13)	44.8	46.7	42.0
6차('14)	44.7	46.8	41.5
7차('15)	43.8	45.7	40.9
8차('16)	43.5	45.5	40.6
9차('17)	43.0	45.3	40.0
10차('18)	42.1	44.1	39.4
11차('19)	41.3	43.2	38.7
12차('20)	40.6	42.5	38.1
13차('21)	40.1	42.1	37.7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차(2009)년도 46.7시간에서 13차(2021)년도 40.1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13차(2021)년도의 남녀 간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4.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2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반면, 19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20대가 40.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 40대 핵심연령층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는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40대(43.3시간), 여성은 20대(39.6시간)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문대졸과 대졸에서 각각 41.7, 41.0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남성의 주당 평균근로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연령별	19세 미만	28.7	28.3	28.8
	20~29세	40.5	41.5	39.6
	30~39세	41.2	42.5	39.3
	40~49세	41.1	43.3	37.8
	50~59세	40.6	41.9	38.9
	60세 이상	36.0	39.8	31.3
학력별	고졸 미만	35.0	39.2	31.7
	고졸	39.9	41.7	37.6
	전문대졸	41.7	43.7	39.4
	대졸	41.0	42.2	39.2
	대학원 이상	39.8	41.6	35.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42.1	43.2	40.6
임시직	34.1	39.3	31.0
일용직	32.1	34.4	27.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났고 특히 고졸 미만에서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7.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2.1시간으로 임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4.1시간보다 약 8시간 길었다. 또한 남녀 모두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2.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37.7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4.9시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 44.8시간을, 여성은 광공업에서 40.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8.7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41.5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서비스직이 37.6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생산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7.0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산업별	농림어업	37.7	41.0	32.3
	광공업	42.6	43.4	40.7
	건설업	39.2	39.2	39.7
	전기·가스 및 수도업	40.1	40.2	39.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0.0	42.9	37.7
	운수통신업	42.4	43.2	39.3
	금융 및 부동산업	42.3	44.8	39.7
	공공서비스업	38.5	40.7	35.1
	기타 서비스업	38.4	41.1	36.7
직종별	전문관리직	40.4	41.6	39.1
	사무직	41.5	42.7	40.4
	서비스직	37.6	41.6	35.4
	농림어업직	42.2	43.0	40.0
	생산직	40.3	42.2	35.2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39.8	42.1	37.4
	10~29인	41.2	43.1	38.8
	30~99인	40.8	42.9	37.8
	100~299인	41.2	42.4	39.5
	300~499인	41.1	42.2	39.0
	500인 이상	41.7	42.4	40.3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간 차이는 2.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39.8시간), 남녀 간 차이는 4.7시간이었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13.5%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93.9%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4%는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 함			86.5
초과근로를 함			13.5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6.5
초과급여 지급 안 함			47.3
초과급여 지급함			52.8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93.9
	일정 금액		5.4
	기준 없음		0.8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15.5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1만 5,500원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임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주기	한 달	96.9	95.9	98.2
	보름/주	0.2	0.3	0.1
	매일	2.0	2.4	1.4
	수시	0.9	1.4	0.4
	기타	0.0	0.0	0.0
임금 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3.5	17.5	8.2
	월급	76.7	72.6	82.1
	주급/격주	0.1	0.0	0.1
	일당	4.7	6.2	2.8
	시간급제	2.6	1.3	4.4
	도급제	0.3	0.4	0.3
	실적급	2.0	2.0	2.0
	기타	0.1	0.1	0.1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6.9%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는 각각 2.0%, 0.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5.9%, 여성의 98.2%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8.9	81.1
	여성	12.1	87.9
산업	농림어업	17.8	82.2
	광공업	19.6	80.4
	건설업	7.1	92.9
	전기·가스 및 수도업	49.0	5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7	91.3
	운수통신업	18.4	81.6
	금융 및 부동산업	26.4	73.6
	공공서비스업	29.7	70.3
	기타 서비스업	13.1	86.9
직종	전문관리직	19.0	81.0
	사무직	21.5	78.5
	서비스직	10.9	89.1
	농림어업직	6.4	93.6
	생산직	11.9	88.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6	80.5
	임시직	4.6	95.4
	일용직	1.7	98.3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3	96.7
	10~29인	8.5	91.5
	30~99인	14.7	85.3
	100~299인	17.2	82.8
	300~499인	22.2	77.9
	500인 이상	38.3	61.7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3.5%로, 월급제의 비중은 76.7%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72.6%, 82.1%로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7.5%, 여성이 8.2%로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18.9%)이 여성(12.1%)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9.0%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7.1%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21.5%가 가장 높은 성과급제를 적용받았으며, 농업·어업직은 6.4%로 가장 낮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상용직에 비해 성과급제의 적용 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38.3%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8.5%, 10인 미만 사업장은 3.3%만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 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은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실질임금이 1차(2009)년도 235만 3,000원에서 13차(2021)년도 288만 2,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1차(2009)년도 월평균 실질임금 162만 9,000원은 당시 남성(281만 5,000원)의 57.9%에 불과했으며, 13차(2021)년도의 215만 3,000원도 남성(332만 2,000원)의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준다. 연령별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40대가 412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40대가 26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20대가 227만 5,000원으로, 여성의 경우 60세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197.4 (0.011)	235.3	236.2 (0.013)	281.5	136.6 (0.015)	162.9
2차('10)	204.2 (0.010)	236.4	244.5 (0.012)	283.0	144.1 (0.015)	166.9
3차('11)	214.6 (0.011)	238.8	259.2 (0.013)	288.5	147.7 (0.015)	164.4
4차('12)	223.6 (0.010)	243.5	268.9 (0.012)	292.9	156.9 (0.015)	170.9
5차('13)	232.6 (0.011)	250.1	279.7 (0.013)	300.8	163.2 (0.015)	175.4
6차('14)	237.6 (0.011)	252.2	283.7 (0.013)	301.2	169.2 (0.016)	179.7
7차('15)	244.5 (0.011)	257.8	291.8 (0.013)	307.7	175.3 (0.015)	184.8
8차('16)	249.9 (0.011)	260.9	297.0 (0.013)	310.0	183.3 (0.015)	191.3
9차('17)	256.4 (0.010)	262.6	308.1 (0.013)	315.6	187.4 (0.014)	191.9
10차('18)	266.9 (0.010)	269.4	318.1 (0.012)	321.1	198.8 (0.013)	200.7
11차('19)	274.1 (0.009)	275.5	323.1 (0.012)	324.9	209.2 (0.013)	210.3
12차('20)	281.2 (0.009)	281.2	330.3 (0.011)	330.3	216.4 (0.013)	216.4
13차('21)	288.2 (0.009)	281.1	340.5 (0.011)	332.2	220.7 (0.013)	215.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2020=100)³⁰⁾

이상이 135만 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345만 1,000원으로 고졸자의 240만 4,000원보다 69.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0만 8,000원으로 고졸자의 66.9%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25만 2,000원인데 비해 임시직은 상용직의 49.4%, 일용직은 5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 2010년 86.4, 2011년 89.9, 2012년 91.8, 2013년 93.0, 2014년 94.2, 2015년 94.9, 2016년 95.8, 2017년 97.6,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0, 2021년 102.5.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154.2	173.3	146.9
	20~29세	217.1	227.5	207.2
	30~39세	292.3	320.8	251.2
	40~49세	353.2	412.5	261.0
	50~59세	322.6	403.8	222.2
	60세 이상	191.9	239.2	135.3
학 력	고졸 미만	160.8	208.3	124.2
	고졸	240.4	283.8	185.6
	전문대졸	285.0	334.7	228.9
	대졸	345.1	392.0	275.9
	대학원 이상	427.8	476.6	316.4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만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325.2	-
	임시직	160.6	49.4
	일용직	173.7	53.4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24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광공업이 335만 4,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454만 7,000원), 광공업(379만 1,000원)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금융부동산업(298만 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286만 4,000원) 순으로 높았다.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만이 300만 원을 상회하였다.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238.0	314.0	116.2
	광공업	335.4	379.1	228.0
	건설업	302.1	308.1	238.0
	전기·가스 및 수도업	424.1	454.7	286.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24.3	283.8	178.2
	운수통신업	319.5	334.2	267.6
	금융부동산업	335.5	372.0	298.0
	공공서비스업	314.3	359.6	242.5
	기타 서비스업	262.9	333.1	218.2
직종	전문관리직	349.4	421.5	268.7
	사무직	333.5	387.1	278.6
	서비스직	206.6	287.5	163.5
	농림어업직	254.0	264.0	227.6
	생산직	250.1	285.4	153.5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10.7	245.8	174.8
	10~29인	264.7	310.3	206.5
	30~99인	290.4	332.2	231.1
	100~299인	303.1	345.4	242.2
	300~499인	371.2	423.4	266.5
	500인 이상	437.1	504.1	303.8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281.9	335.9	207.2
	외국인회사	481.7	529.8	382.3
	공기업	348.6	419.2	265.0
	법인단체	301.9	376.0	250.8
	정부기관	305.6	346.5	264.9
	소속이 없음	183.0	211.3	125.6
	기타	211.2	212.3	209.0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437만 1,000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210만 7,000원과 264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81만 7,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공기업이 348만 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281만 9,000원으로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 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4차(2012)년도부터는 2009년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³¹⁾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31) KLIPS는 5차(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6차(2014)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5.5	71.8	57.4
비정규직	34.5	28.2	42.6
한시적근로자	27.1	22.8	32.7
시간제근로자	11.9	5.0	20.7
비전형근로자	9.9	10.4	9.2
파견근로자	0.9	0.7	1.1
용역근로자	2.8	3.3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	1.3	1.5
가정내근로자	0.6	0.2	1.2
일일근로자	5.2	6.0	4.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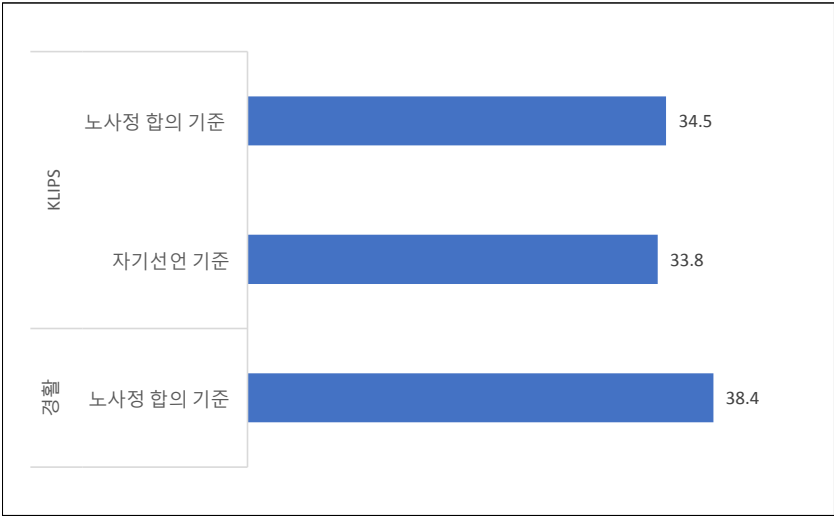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4.5%였다. 27.1%의 한시적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9.8%의 비전형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5.2%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0.9%, 2.8%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1/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남성 중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일용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KLIPS에서는 여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8월 기준.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4.5%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8.4%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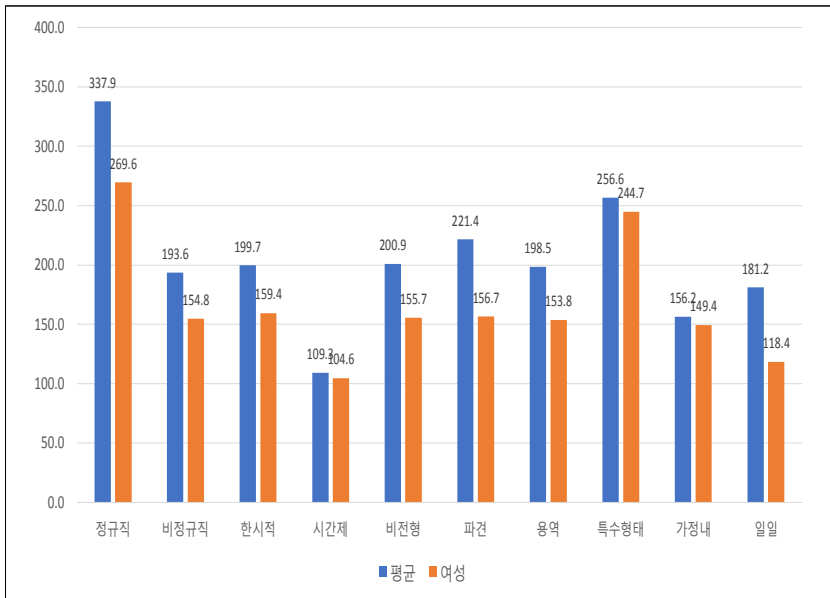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93만 6,000원)은 정규직 근로자(337만 9,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56만 6,000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76.0%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18만 4,000원)은 전체 일일근로자(181만 2,000원)의 6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만 원)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KLIPS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2,598	59.5	40.5	30.1
2차('10)	2,466	59.4	40.6	29.3
3차('11)	2,364	60.6	39.4	27.8
4차('12)	2,393	61.4	38.6	27.3
5차('13)	2,354	60.4	39.6	27.0
6차('14)	2,249	61.7	38.4	26.3
7차('15)	2,255	61.4	38.6	25.8
8차('16)	2,251	61.5	38.6	25.7
9차('17)	2,238	61.6	38.5	25.1
10차('18)	2,192	61.3	38.7	24.7
11차('19)	2,086	61.9	38.1	23.8
12차('20)	2,033	62.6	37.4	23.7
13차('21)	2,034	62.2	37.8	23.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09통합표본이 사용되었다.

1차(2009)년도부터 13차(2021)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27.8	52.9	19.3
2차('10)	26.8	54.2	19.0
3차('11)	28.0	53.7	18.3
4차('12)	25.3	56.9	17.8
5차('13)	25.2	56.9	18.0
6차('14)	24.5	57.1	18.4
7차('15)	26.1	56.9	17.0
8차('16)	27.2	55.7	17.1
9차('17)	28.0	54.8	17.2
10차('18)	27.0	55.8	17.2
11차('19)	26.0	57.6	16.4
12차('20)	24.7	59.4	15.9
13차('21)	23.1	61.2	15.8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에서 13차(2021)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23.1%, 자영업자가 61.2%, 무급가족종사자가 15.8%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비중은 2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50%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0%대에서 거의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27.2	68.8	4.0
	여성	16.2	48.7	35.1
연령	20~29세	33.5	52.1	14.4
	30~39세	21.6	67.5	10.9
	40~49세	32.5	54.7	12.9
	50~59세	26.2	56.2	17.6
	60세 이상	14.6	68.0	17.4
학력	고졸 미만	10.5	66.2	23.3
	고졸	19.6	63.4	17.1
	전문대졸	33.3	54.4	12.3
	대졸	32.9	57.2	9.9
	대학원 이상	39.6	55.4	5.1
산업	농림어업	4.5	64.6	31.0
	광공업	35.5	41.3	23.2
	건설업	25.1	65.2	9.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9	49.6	19.5
	운수통신업	9.2	89.6	1.1
	금융 및 부동산업	18.1	74.7	7.2
	기타 서비스업	26.6	66.1	7.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27.2%, 68.8%, 4.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각각 16.2%, 48.7%, 3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68.0%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52.1%로 낮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²⁾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89.6%)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한다.

32) 2017년 개정 10차 산업표준분류.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69.4%, 불규칙적인 경우가 30.7%였고, 특히 불규칙적이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19.2%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91.7%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3.1%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3.9%)보다 자영업자(22.2%)와 무급가족종사자(30.2%)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1.9%, 건설업 종사자의 54.4%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 영향 없음	계절 영향 있음	
전 체		69.4	11.5	19.2	5.5
종사상 지위	고용주	91.7	4.4	3.9	5.7
	자영업자	63.1	14.8	22.2	5.5
	무급가족종사자	60.7	9.1	30.2	5.7
산업	농림어업	18.1	6.8	75.1	5.5
	광공업	82.0	13.0	4.9	5.2
	건설업	45.6	24.7	29.7	5.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4.0	8.6	7.5	5.9
	운수통신업	68.2	20.3	11.5	5.1
	금융 및 부동산업	80.6	9.6	9.8	5.2
	기타 서비스업	81.8	11.4	6.8	5.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우가 각각 75.1%, 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5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5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9일,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업이 5.5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었고, 건설업 및 운수통신업이 5.1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차(2009)년도에 52.0시간이었으나 2~6차(2010~2014)년도 동안 50시간 전후를 유지했고, 7차(2015)년도 이후 감소하여 13차(2021)년도에는 45.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차(2021)년도에는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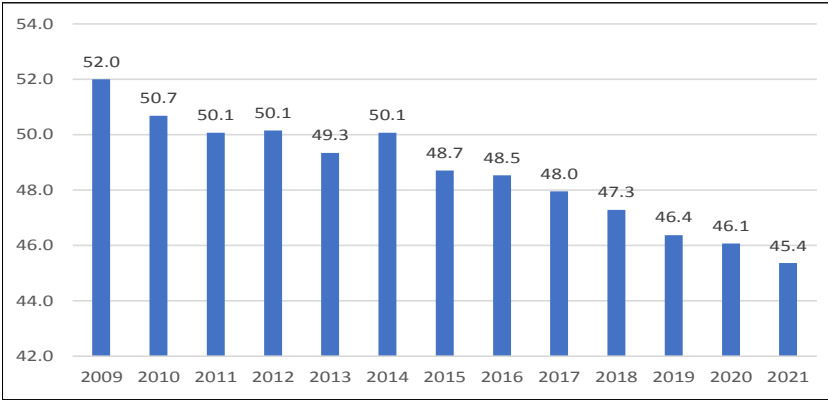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52.0(0.008)	55.3(0.013)	50.5(0.012)	50.7(0.008)
2차('10)	50.7(0.008)	54.9(0.014)	49.3(0.011)	48.7(0.018)
3차('11)	50.1(0.008)	53.0(0.015)	49.5(0.012)	47.4(0.019)
4차('12)	50.1(0.008)	53.5(0.014)	49.6(0.011)	47.1(0.020)
5차('13)	49.3(0.008)	52.5(0.014)	48.5(0.012)	47.7(0.020)
6차('14)	50.1(0.009)	53.2(0.016)	48.9(0.012)	49.6(0.021)
7차('15)	48.7(0.008)	52.0(0.015)	47.6(0.011)	47.2(0.021)
8차('16)	48.5(0.008)	51.4(0.013)	47.4(0.012)	47.7(0.019)
9차('17)	48.0(0.008)	51.3(0.013)	47.3(0.011)	44.6(0.022)
10차('18)	47.3(0.008)	50.1(0.013)	46.7(0.012)	44.6(0.020)
11차('19)	46.4(0.009)	49.7(0.015)	45.8(0.012)	43.1(0.024)
12차('20)	46.1(0.009)	49.7(0.014)	45.8(0.011)	41.4(0.024)
13차('21)	45.4(0.009)	48.7(0.013)	44.8(0.012)	42.6(0.024)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시간)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고용주의 경우 48.7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4.8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2.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13차(2021)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52.4%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5.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0.1시간보다 약 5.3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3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4.9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5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47.3시간을 일하는 50대였고, 가장 짧은 것은 42.8시간을 일하는 60세 이상이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47.3시간을 일하는 고졸자들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39.9시간을 일하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였다.

<표 7-7>에서는 13차(2021)년도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1시간으로 가장 긴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2.9	18.4	26.2	25.1	23.7	3.6	45.4
성별	남성	2.1	14.0	26.3	28.0	25.4	4.2	47.0
	여성	4.3	25.8	26.1	20.4	21.0	2.5	42.7
연령	20~29세	14.6	6.5	21.4	18.3	35.1	4.1	44.7
	30~39세	5.0	14.3	30.2	18.7	29.5	2.3	45.9
	40~49세	2.7	11.1	30.6	27.7	23.7	4.3	46.9
	50~59세	1.2	15.5	27.4	26.0	24.7	5.3	47.3
	60세 이상	3.1	27.3	21.9	25.2	20.5	2.0	42.8
학력	고졸 미만	2.6	30.0	18.2	24.7	21.8	2.7	43.2
	고졸	2.8	15.1	24.0	25.7	28.0	4.4	47.3
	전문대졸	3.0	15.6	25.3	26.4	26.9	2.8	45.9
	대졸	3.0	15.4	34.6	25.5	17.9	3.6	44.5
	대학원 이상	5.9	17.8	48.4	13.7	14.1	0.0	39.9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2.0	40.3	21.6	20.8	14.5	0.8	39.1
	광공업	6.0	12.2	40.1	27.0	12.8	1.8	42.4
	건설업	4.8	18.4	34.0	35.0	6.9	0.9	41.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6	12.1	18.7	24.4	38.9	5.3	51.1
	운수통신업	2.1	13.6	24.7	30.3	23.1	6.2	47.4
	금융 및 부동산업	2.2	14.3	51.3	18.7	10.9	2.7	42.1
	기타 서비스업	5.8	18.2	27.8	25.0	20.0	3.3	43.5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3.6	22.0	23.6	23.7	23.1	4.0	44.6
	1~4인	1.1	8.8	30.4	29.2	27.7	2.8	48.0
	5~9인	2.8	4.1	40.1	31.5	19.9	1.7	46.2
	10인 이상	0.0	15.5	49.5	23.8	11.2	0.0	42.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높은 운수통신업은 47.4시간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71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로 나타난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규모가 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8.0시간인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42.5시간으로 약 5.5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월평균 소득

<표 7-8>은 1~13차(2009~2021)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251.4 (0.028)	299.6	283.4 (0.032)	337.8	177.1 (0.049)	211.1
2차('10)	259.9 (0.027)	300.9	287.9 (0.031)	333.4	193.4 (0.050)	223.9
3차('11)	275.0 (0.030)	306.0	306.9 (0.036)	341.5	195.9 (0.046)	218.1
4차('12)	283.8 (0.030)	309.1	315.6 (0.035)	343.7	203.0 (0.048)	221.1
5차('13)	300.7 (0.028)	323.3	340.0 (0.032)	365.5	207.9 (0.047)	223.6
6차('14)	310.2 (0.028)	329.3	348.9 (0.032)	370.4	213.8 (0.051)	227.0
7차('15)	303.0 (0.026)	319.4	341.6 (0.029)	360.1	210.5 (0.044)	221.9
8차('16)	320.9 (0.028)	335.0	363.6 (0.032)	379.6	222.4 (0.041)	232.2
9차('17)	333.9 (0.033)	342.0	372.8 (0.039)	381.8	240.6 (0.046)	246.5
10차('18)	340.0 (0.026)	343.2	383.4 (0.030)	387.0	238.3 (0.045)	240.5
11차('19)	354.8 (0.037)	356.7	400.7 (0.044)	402.9	242.0 (0.046)	243.3
12차('20)	353.7 (0.043)	353.7	396.0 (0.052)	396.0	250.8 (0.044)	250.8
13차('21)	341.0 (0.032)	332.7	385.9 (0.038)	376.5	232.3 (0.052)	226.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³³⁾

4)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2009)년도 251만 4,000원에서 6차(2014)년도에 310만 2,000원으로 증가했으나 7차(2015)년도에 303만 원으로 소폭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12차(2020)년도에는 353만 7,000원이었다가 13차(2021)년도에 감소하여 341만 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32만 3,000원으로 남성의 385만 9,000원에 비하면 60.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2.8	11.9	17.4	20.3	47.7	341.0
연령	20~29세	7.0	19.0	8.1	20.5	45.5	278.0
	30~39세	3.8	3.0	12.2	35.3	45.7	369.4
	40~49세	3.1	3.0	14.4	18.2	61.4	407.8
	50~59세	2.3	6.2	11.9	20.7	58.9	386.0
	60세 이상	2.4	24.1	25.9	16.7	30.8	259.2
학력	고졸 미만	3.4	32.2	25.2	15.4	23.9	226.7
	고졸	1.3	9.4	18.9	18.5	51.9	332.3
	전문대졸	7.2	5.0	11.0	22.0	54.8	397.2
	대졸	3.0	4.2	12.7	25.8	54.4	406.2
	대학원 이상	0.0	8.4	13.6	20.4	57.5	405.0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인 응답자 제외.

33)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 2010년 86.4, 2011년 89.9, 2012년 91.8, 2013년 93.0, 2014년 94.2, 2015년 94.9, 2016년 95.8, 2017년 97.6,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0, 2021년 102.5.

한 것이다. 먼저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40대가 407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40대가 61.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대졸 이하 학력까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으나, 대학원 이상 학력은 오히려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과 그 이상 학력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 학력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7,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66.5%에 불과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다른 학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에는 13차(2021)년도 기준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규모별 비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2.3	39.8	17.5	14.1	26.3	193.8
	광공업	1.9	5.2	9.3	15.2	68.4	541.2
	건설업	0.3	0.5	7.3	18.0	74.0	45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8	6.2	16.9	23.2	49.9	355.5
	운수통신업	1.4	5.6	19.3	22.9	50.8	340.1
	금융 및 부동산업	4.2	7.4	19.3	26.7	42.5	306.3
	기타 서비스업	3.1	13.7	21.6	19.0	42.5	314.2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6	15.7	22.1	22.3	37.3	256.7
	1~4인	4.2	2.1	5.7	16.5	71.5	493.4
	5~9인	0.0	0.6	0.3	6.9	92.3	728.1
	10인 이상	0.0	0.0	5.3	7.5	87.2	999.7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광공업 종사자가 541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종사자가 450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월평균 소득은 193만 8,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4인 사업장의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493만 4,000원인 반면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999만 7,000원이었다.

<표 7-11>은 13차(2021)년도에 조사된 적자액 규모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2.3%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164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7.7	2.3	37.8	28.3	17.4	16.5	164.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6.9%로 창업한 경우 85.0%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보다 창업의 비율이 조금 낮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7.9%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경우는 0.8%에 머물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62.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비중이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본인, 가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20.4%포인트 높은 82.8%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23.1%포인트 낮은 10.5%로 나타났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5.0	86.4	84.7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6.9	9.0	6.4
기타	8.0	4.7	9.0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1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7.9	62.4	82.8
동업자	3.5	1.5	4.1
은행 등의 융자	16.0	33.6	10.5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0.6	2.5	0.0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0.8	0.0	1.0
기타	0.5	0.0	0.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 8 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것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³⁴⁾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KLIPS의 18통합표본 2~4차(2019~2021년도)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분석표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18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2021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3.4명이며, 반면

34)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취업	취업	91.6	93.4
	실업	1.6	1.1
	비경제활동	6.9	5.5
실업	취업	50.2	47.7
	실업	16.5	18.4
	비경제활동	33.3	33.9
비경제활동	취업	9.9	11.0
	실업	2.1	1.9
	비경제활동	88.0	87.1

주: 18통합표본 2→3차 계산에는 2차 종단면 가중치를, 3→4차 계산에는 3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1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는 5.5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1.1%이며 취업지속확률은 93.4%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2020→2021년도의 경우 95.1%인데 여성의 경우는 91.0%이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8.0%로 남성 3.8%의 두 배를 웃돈다.

이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높고, 여기에서 떨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표 8-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남성	취업	취업	94.0	95.1
		실업	1.5	1.2
		비경제활동	4.5	3.8
	실업	취업	46.9	48.8
		실업	20.9	17.5
		비경제활동	32.2	33.7
	비경제활동	취업	12.3	12.7
		실업	3.8	2.9
		비경제활동	83.9	84.5
여성	취업	취업	88.0	91.0
		실업	1.8	1.0
		비경제활동	10.2	8.0
	실업	취업	54.7	46.1
		실업	10.4	19.7
		비경제활동	34.8	34.2
	비경제활동	취업	8.8	10.2
		실업	1.2	1.4
		비경제활동	90.0	88.4

주: 18통합표본 2→3차 계산에는 2차 종단면 가중치를, 3→4차 계산에는 3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2020→2021년도 기준 87.9%로 가장 낮다. 반면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40대 96.5%, 30대 94.8%로 높다. 2019→2020년도와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상태 지속 확률이 소폭 증가한 반면,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확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확률은 85.3%에서 87.9%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2020→2021년도의 경우 74.0%인 반면, 40대 83.4%, 30대 83.9%, 50대 85.9%,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4.7%이다. 청년의 비

경제활동 지속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취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20대, 30대는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증가하였다. 20대는 10%포인트(48.6→38.4%), 30대는 6%포인트(65.5→59.5%) 감소하였고, 40대는 10.2%포인트(48.6→58.8%), 50대는 6.6%포인트(50.3→56.9%), 60대는 17.2%포인트(28.8→45.4%) 증가하였다. 실업자의 표본 수가 적어서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20대	취업	취업	85.3	87.9
		실업	4.4	2.1
		비경제활동	10.4	10.0
	실업	취업	48.6	38.4
		실업	23.8	20.1
		비경제활동	27.6	41.5
	비경제활동	취업	18.2	19.3
		실업	7.2	6.7
		비경제활동	74.6	74.0
30대	취업	취업	92.9	94.8
		실업	1.8	1.7
		비경제활동	5.3	3.5
	실업	취업	65.5	59.5
		실업	4.8	21.2
		비경제활동	29.7	19.3
	비경제활동	취업	14.5	14.8
		실업	1.6	1.3
		비경제활동	83.9	83.9

〈표 8-3〉의 계속

	이전 상태	이후 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40대	취업	취업	94.7	96.5
		실업	1.0	0.6
		비경제활동	4.3	2.9
	실업	취업	48.6	58.8
		실업	14.2	12.8
		비경제활동	37.2	28.4
	비경제활동	취업	11.7	15.0
		실업	1.5	1.6
		비경제활동	86.8	83.4
50대	취업	취업	93.5	94.6
		실업	1.0	0.8
		비경제활동	5.5	4.6
	실업	취업	50.3	56.9
		실업	17.3	22.5
		비경제활동	32.5	20.6
	비경제활동	취업	11.4	12.9
		실업	1.4	1.3
		비경제활동	87.3	85.9
60대	취업	취업	87.0	89.7
		실업	1.2	0.9
		비경제활동	11.8	9.4
	실업	취업	28.2	45.4
		실업	14.2	9.1
		비경제활동	57.6	45.5
	비경제활동	취업	4.1	5.0
		실업	0.3	0.3
		비경제활동	95.6	94.7

주: 18통합표본 2→3차 계산에는 2차 종단면 가중치를, 3→4차 계산에는 3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우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2020→2021년도 기준 100명 가운데 90.8명이지만,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3.4명으로 높아지며, 전문대졸 92.7명, 대졸 이상의 경우 95.7명으로 높아진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2020→2021년도 기준 중졸 이하에서 93.9%, 고졸에서 88.2%, 전문대졸의 경우 82.1%,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에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5.9%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10.7%로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6.3%, 1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중졸 이하	취업	취업	87.2	90.8
		실업	1.4	1.1
		비경제활동	11.5	8.1
	실업	취업	35.6	53.2
		실업	10.5	9.4
		비경제활동	53.9	37.4
	비경제활동	취업	4.5	5.9
		실업	0.4	0.2
		비경제활동	95.1	93.9

〈표 8-4〉의 계속

	이전 상태	이후 상태	2차('19)→3차('20)	3차('20)→4차('21)
고졸	취업	취업	92.0	93.4
		실업	1.4	1.2
		비경제활동	6.6	5.4
	실업	취업	53.8	43.7
		실업	14.7	23.2
		비경제활동	31.5	33.1
	비경제활동	취업	10.1	10.7
		실업	1.4	1.2
		비경제활동	88.5	88.2
전문대졸	취업	취업	91.3	92.7
		실업	1.7	1.3
		비경제활동	7.0	6.0
	실업	취업	45.9	43.8
		실업	27.3	11.6
		비경제활동	26.7	44.5
	비경제활동	취업	13.8	16.3
		실업	2.4	1.6
		비경제활동	83.8	82.1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3.6	95.7
		실업	1.7	0.9
		비경제활동	4.7	3.4
	실업	취업	56.3	52.1
		실업	15.3	25.5
		비경제활동	28.4	22.4
	비경제활동	취업	12.5	13.3
		실업	2.5	2.7
		비경제활동	85.0	84.0

주: 18통합표본 2→3차 계산에는 2차 종단면 가중치를, 3→4차 계산에는 3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제 9 장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본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의 보건, 교육, 여가, 일상 생활, 근무 형태 및 인식 등에서 나타난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기본조사 외에 시의성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거나 기본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가적인 질문을 실시해왔다. 예를 들면 청년층(3차, 9차, 19차 조사), 중고령자 및 장년층(6차, 18차 조사) 등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근로시간과 여가(7차 조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조사), 고용형태(10차, 21차 조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그밖에 교육(11차 조사),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조사), 삶의 인식(18차 조사), 의사결정(20차 조사), 비임금근로(22차 조사), 코로나19(23차 조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4차 조사에서는 23차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구의 고용과 소득, 소비, 그리고 근로행태에 큰 영향을 초래한 코로나19를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는 가구가 경험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가구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위기의 재발 시 보건,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 등의 입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와 동일한 주제로 부가조사가 시행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와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시점의 가구 행태 및 의식의 차이 및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갖추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

본장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1~24차 통합설문지」³⁵⁾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2절 분석 결과

1.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및 학습형태의 변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대면 접촉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대표적인 부문 가운데 하나가 양육 및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양육 및 교육시설의 운영이 제한됨으로써 부모의 육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아동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평일 낮 시간에 자녀를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에 대해 평상시와 코로나 당시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9-1>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자녀의 경우 평상시 1순위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51.8%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이 본인으로 17.7%였다. 배우자는 16.2%였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0.5%에 달하였다. 부모님이 돌봐주는 비중은 2.8%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당시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1순위인 경우가 각각 29.6%, 28.1%로 증가한 반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15.9%로 크게 감소하여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돌봐주는 비중도 7.6%로 늘어났으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6.7%로 현저하게 늘어나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3차 부가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35)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 9-1〉 문1. 평상시 및 코로나 당시 자녀 돌봄 양육자(a242111 - a242116)

(단위: 명, %)

평 상 시(첫째 자녀)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937	17.7	1,276	34.7	465	41.2
배우자	840	16.2	1,208	33.9	422	36.9
부모님	141	2.8	332	10.2	135	10.8
나이 많은 자녀	12	0.3	59	1.7	17	1.0
돌봐주는 분 없음	577	10.5	556	14.6	81	5.8
배우자의 친척	7	0.1	13	0.3	7	0.5
친구/지인, 이웃	3	0.1	8	0.2	3	0.2
보모, 유모, 가정부	7	0.1	10	0.3	1	0.1
유치원, 어린이집 등	2,695	51.8	136	4.1	38	3.1
가정위탁 시설	3	0.0	1	0.0	2	0.2
기타	12	0.3	5	0.1	3	0.2
전 체	5,234	100.0	3,604	100.0	1,174	100.0

코로나 당시(첫째 자녀)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1,569	29.6	921	35.9	290	34.9
배우자	1,425	28.1	839	31.4	299	38.3
부모님	379	7.6	272	11.3	108	12.6
나이 많은 자녀	61	1.2	59	2.2	16	1.9
돌봐주는 분 없음	906	16.7	325	11.4	65	6.7
배우자의 친척	13	0.2	20	0.6	6	0.6
친구/지인, 이웃	6	0.1	7	0.2	1	0.1
보모, 유모, 가정부	10	0.2	10	0.3	0	0.0
유치원, 어린이집 등	843	15.9	148	6.4	38	4.4
가정위탁 시설	3	0.1	1	0.0	3	0.4
기타	19	0.5	4	0.1	1	0.2
전 체	5,234	100.0	2,606	100.0	827	100.0

주: 본장의 빈도는 가중치가 ‘.’을 제외하고 산출하였고 비율은 응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는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하고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여 작성(이하 별도 표기 없으면 동일하게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24차 조사(2021년도) 학술대회용 원자료.

코로나19로 인해 평상시와 달리 자녀의 학습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올려진 온라인 강의를 활용했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경우가 25.3%로 두 번째를 차지하여 온라인 강의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8%였다. 그에 비해 학원을 이용한 경우는 13.3%, 부모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2 참조). 전년도 부가조사와 비교하면 부모의 비중이 줄어들고 학원의 비중이 8.5%에서 13.3%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당시 자녀 돌봄 행태 변화와 관련하여 집에서 돌보는 것이 매우 벅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36.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도 5.7%에 달했다.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시간을 할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33.3%가 ‘그렇다’, 5.4%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되었다는 문항에도 35.1%가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집에서 학업을 유지하게 하기가 매우 벅찼다는 문항에도 40.6%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돌봄 사람이나 기관을 찾기 어려웠던 경우는 그렇다와 모두 그렇다를 합쳐서 26.9%로 나타났다(표 9-3 참조).

〈표 9-2〉 문2. 학습형태 변화(a242129 - a242137)

(단위: 명, %)

학습형태 변화(첫 째 자녀)		
	빈도	비율
이메일	200	2.6
서버나 클라우드	242	3.2
우편/소포	71	1.0
이미 올려진 온라인 강의	2,291	29.4
실시간 온라인 강의	2,030	25.3
부모	815	11.5
학원	1,034	13.3
개인이나 그룹 과외	119	1.4
변화 없음	907	12.3
전 체	7,709	100.0

〈표 9-3〉 문3. 자녀 돌봄 형태 변화에 대한 생각(a242156 - a242160)

(단위: 명, %)

		집에서 돌보는 것이 매우 벅찼다		자녀들이 디지털 기계에 시간 할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342	6.5	416	7.8	385	6.7
그렇지 않다	2	1,088	21.2	1,149	23.5	1,015	19.1
보통이다	3	1,556	29.8	1,571	30.0	1,881	36.4
그렇다	4	1,874	36.9	1,745	33.3	1,766	35.1
매우 그렇다	5	325	5.7	304	5.4	138	2.6
전 체		5,185	100.0	5,185	100.0	5,185	100.0
평 균		3.2		3.1		3.3	
		학업 유지하게 하기 매우 벅참		돌봄 사람이나 기관을 찾기 어려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400	7.4	857	15.9		
그렇지 않다	2	1,065	21.1	1,501	29.0		
보통이다	3	1,590	30.9	1,481	28.2		
그렇다	4	1,876	35.9	1,258	25.2		
매우 그렇다	5	254	4.7	88	1.7		
전 체		5,185	100.0	5,185	100.0		
평 균		3.3		2.8			

2. 시간 활용 및 일상의 변화

시간활용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3월 당시에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표 9-4>에 제시하였다. 전과 동일한 경우를 6으로 놓고, 일상이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을 1,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를 11로 설정했을 때, 수면시간, 취업활동, 학업 및 자기계발, 자녀돌보기, 가사활동, 음주, 운동 및 스포츠 등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 즉 5를 선택한 비중이 91~95%로 가장 높았다. 흡연은 변화 없음에 해당하는 5점 응답이 99.0%로 가장 높았다. 그에 비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은 36.3%만이 그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여행 역시 54.2%만 평소 수준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저히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 등은 32.7%가 평소에 비해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활동도 21.7%의 가구가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9-4〉 문4. 일상생활 시간 변화(13개 항목)(a242201 - a242213)

		(단위: 명, %)					
		수면시간		취업활동		학업 및 자기개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줄어들었음	0	14	0.1	198	1.0	66	0.3
	1	27	0.1	268	1.3	161	0.8
	2	73	0.3	596	2.8	560	2.8
	3	74	0.3	407	1.8	658	3.2
변화없음	4	94	0.4	192	1.0	141	0.7
	5	21,385	95.3	20,705	91.4	20,741	90.9
	6	421	2.0	38	0.2	80	0.5
	7	318	1.3	52	0.3	89	0.6
늘어났음	8	54	0.2	16	0.1	19	0.1
	9	10	0.0	3	0.0	4	0.0
	10	4	0.0	6	0.1	5	0.0
전 체		22,474	100.0	22,481	100.0	22,524	100.0
평 균		6.0		5.8		5.8	
		자녀 돌보기		가사활동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줄어들었음	0	9	0.0	7	0.0	18	0.1
	1	12	0.1	15	0.1	60	0.3
	2	25	0.1	29	0.2	66	0.3
	3	18	0.1	29	0.1	25	0.1
변화없음	4	34	0.2	32	0.1	53	0.3
	5	20,126	89.4	19,210	85.5	15,654	68.0
	6	499	2.3	857	3.9	1,615	7.9
	7	857	3.8	1,307	6.0	2,713	13.2
늘어났음	8	431	1.9	508	2.3	1,394	6.6
	9	153	0.8	172	0.8	466	2.1
	10	269	1.4	214	1.1	213	1.2
전 체		22,433	100.0	22,380	100.0	22,277	100.0
평 균		6.2		6.3		6.7	

〈표 9-4〉의 계속

		영화/공연/전시회		여행		종교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줄어들었음	0	907	4.9	1,272	6.0	678	2.8
	1	1,387	7.5	2,212	11.1	1,262	5.4
	2	2,069	10.3	3,349	16.0	2,177	9.1
	3	1,194	6.1	1,610	7.8	764	3.1
변화없음	4	717	3.9	983	4.6	296	1.3
	5	16,186	66.9	13,020	54.2	17,327	78.2
	6	32	0.2	30	0.2	6	0.0
	7	27	0.1	24	0.1	3	0.0
늘어났음	8	6	0.0	12	0.1	1	0.0
	9	0	0.0	1	0.0	1	0.0
	10	2	0.0	2	0.0	0	0.0
전 체		22,527	100.0	22,515	100.0	22,515	100.0
평 균		5.0		4.6		5.3	
		가족 및 친구, 동료		흡연		음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줄어들었음	0	883	3.8	12	0.1	73	0.4
	1	2,804	12.4	12	0.1	408	1.9
	2	5,920	26.2	17	0.1	545	2.5
	3	2,821	12.6	25	0.1	253	1.2
변화없음	4	1,686	7.9	69	0.4	263	1.4
	5	8,135	36.3	22,318	99.0	20,814	92.0
	6	90	0.4	36	0.2	78	0.4
	7	66	0.3	16	0.1	32	0.2
늘어났음	8	21	0.1	3	0.0	7	0.0
	9	5	0.0	2	0.0	4	0.0
	10	1	0.0	0	0.0	1	0.0
전 체		22,432	100.0	22,510	100.0	22,478	100.0
평 균		4.2		6.0		5.8	

〈표 9-4〉의 계속

		운동, 스포츠	
		빈도	비율
줄어들었음	0	162	0.7
	1	524	2.5
	2	1,224	5.6
	3	699	3.1
	4	455	2.3
변화없음	5	19,346	85.6
	6	28	0.1
	7	29	0.1
	8	8	0.0
늘어났음	9	2	0.0
	10	2	0.0
전 체		22,479	100.0
평 균		5.6	

3. 정부의 위기관리 및 만족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위기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8점 이상 척도의 비중이 각각 19.2%, 18.6%로 전년도 조사에 비해 하락하였다. 학교 역시 8점 이상이 18.8%, 직장은 16.4%로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언론은 6.0%에 머물러 위기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표 9-5 참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걱정은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서 32.4%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2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자기 자신의 어려움보다 국가 경제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음식, 의약품, 위생물품 등 생필품 수급에 대한 우려는 16.0% 정도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해고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에 대해서는 14.9%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의 수준이 낮았다(표 9-6 참조).

〈표 9-5〉 문5. 정부 및 지자체 위기 관리 만족도(a242214 - a242221)
(단위: 명, %)

		정부		지자체		보육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스럽다	0	122	0.5	114	0.5	56	0.3
	1	240	1.2	162	0.8	56	0.3
	2	1,812	8.6	889	4.3	421	2.0
	3	1,266	5.3	1,257	5.4	706	3.2
보통	4	1,444	6.3	1,575	6.9	1,251	5.8
	5	6,271	27.7	6,786	30.1	7,794	35.6
	6	3,157	13.9	3,538	15.9	3,888	17.9
	7	3,880	17.3	3,976	17.6	3,733	16.9
매우 만족 스럽다	8	2,537	11.1	2,555	11.1	2,684	12.1
	9	1,104	5.0	1,095	4.9	915	4.3
	10	693	3.1	570	2.6	354	1.8
전 체		22,526	100.0	22,517	100.0	21,858	100.0
평 균		5.7		5.8		5.9	
		학교		직장		국회 및 정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스럽다	0	49	0.2	75	0.4	326	1.3
	1	50	0.3	90	0.4	509	2.4
	2	365	1.6	342	1.5	1,186	5.1
	3	592	2.6	623	2.7	2,287	10.3
보통	4	1,215	5.6	1,255	5.6	2,360	10.6
	5	7,419	33.6	8,018	35.9	8,807	39.5
	6	4,295	19.7	4,444	20.4	3,547	15.9
	7	3,924	17.7	3,797	16.9	2,165	9.4
매우 만족 스럽다	8	2,781	12.5	2,557	11.5	937	4.0
	9	1,004	4.6	803	4.0	262	1.1
	10	347	1.7	203	0.9	69	0.3
전 체		22,041	100.0	22,207	100.0	22,455	100.0
평 균		6.0		5.9		4.9	

〈표 9-5〉의 계속

		시민사회단체		언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스럽다	0	147	0.6	393	1.8
	1	331	1.7	423	2.1
	2	907	4.0	874	3.8
	3	1,749	7.9	1,558	6.7
보통	4	2,514	11.7	2,218	10.0
	5	9,424	43.1	9,383	42.5
	6	3,616	16.5	3,863	17.2
	7	2,073	9.2	2,283	10.0
매우 만족 스럽다	8	950	4.1	1,126	4.6
	9	242	1.1	295	1.2
	10	63	0.3	46	0.2
전 체		22,016	100.0	22,462	100.0
평 균		5.0		5.0	

〈표 9-6〉 문6. 국가 경제 전반 걱정(a242222-a242228)

(단위: 명, %)

		국가 경제 전반		자신의 재정 상황		필요한 의료 서비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237	10.2	3,460	15.8	2,541	12.0
그렇지 않다	2	6,007	26.8	7,215	31.4	7,175	31.9
보통이다	3	6,970	30.7	6,642	29.6	7,970	35.1
그렇다	4	5,006	21.8	3,631	16.1	3,759	16.1
매우 그렇다	5	2,344	10.6	1,625	7.2	1,133	5.0
전 체		22,564	100.0	22,573	100.0	22,578	100.0
평 균		3.0		2.7		2.7	

〈표 9-6〉의 계속

		사회안전망		사회적 유대		음식, 의약품, 위생 물품 공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800	13.0	2,776	12.7	4,091	18.9
그렇지 않다	2	7,332	33.1	7,410	33.4	7,877	34.9
보통이다	3	8,106	35.1	8,181	35.9	6,867	30.1
그렇다	4	3,391	14.7	3,340	14.3	2,959	12.6
매우 그렇다	5	946	4.1	878	3.8	793	3.4
전 체		22,575	100.0	22,585	100.0	22,587	100.0
평 균		2.7		2.7		2.5	
		해고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6,898			29.6		
그렇지 않다	2	6,981			31.4		
보통이다	3	5,407			24.2		
그렇다	4	2,404			10.9		
매우 그렇다	5	880			4.0		
전 체		22,570			100.0		
평 균		2.3					

4. 건강 및 수면

건강, 수면 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친구 및 지인과의 연락 등 관계 유지에서 평상시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고 여가, 가족관계, 건강, 수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구직, 창업 등에서 보통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23.8%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9-7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빈도에 대해서는 자주, 혹은 항상 분노를 느낀다는 비중이 14.0%로 나타났으며 걱정의 경우 29.5%로 나타났다. 외로움이나 슬픔을 자주, 혹은 항상 느끼는 비중은 각각 5.8%, 6.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표 9-8 참조).

〈표 9-9〉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위생 관련 행태 변화와 관련한 질

〈표 9-7〉 문7. 건강 수면 등 일상생활 영향 정도(a242229 - a242234)

(단위: 명, %)

		건강		수면		여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0	2,331	10.1	3,178	14.0	749	3.0
	1	2,244	10.5	2,464	11.2	968	4.1
	2	2,780	12.7	2,768	12.3	1,628	7.2
	3	2,161	9.7	1,770	8.1	1,428	6.7
보통	4	1,521	6.8	1,519	6.8	1,181	5.3
	5	7,102	30.8	6,926	30.1	5,065	21.6
	6	2,053	9.0	2,200	9.7	4,415	19.8
	7	1,432	6.3	1,112	5.0	3,990	17.7
매우 영향을 받았다	8	731	3.3	557	2.4	2,296	10.6
	9	100	0.4	94	0.4	722	3.3
	10	154	0.6	20	0.1	164	0.8
전 체		22,609	100.0	22,608	100.0	22,606	100.0
평 균		3.5		3.5		5.3	
		가족 관계		친구 및 지인과 연락		채용, 구직, 창업 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0	1,318	5.5	688	3.0	4,914	21.7
	1	1,266	5.7	779	3.2	2,993	12.3
	2	1,673	7.6	1,288	5.9	2,141	9.4
	3	1,721	8.3	1,139	5.3	1,460	6.6
보통	4	1,753	8.3	1,218	5.6	1,176	5.2
	5	6,271	27.3	4,894	21.1	4,902	20.8
	6	3,402	15.0	4,653	20.7	1,899	8.8
	7	3,206	13.7	4,725	21.1	1,428	6.9
매우 영향을 받았다	8	1,558	6.9	2,518	11.0	1,028	4.9
	9	391	1.7	620	2.7	357	1.9
	10	51	0.2	84	0.4	237	1.3
전 체		22,610	100.0	22,606	100.0	22,535	100.0
평 균		4.7		5.5		3.5	

문이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가장 두드러져, ‘항상 하였다’의 비중이 87.5%인 데 비해 가끔 하였다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중은 각각 2.9%, 0.4%에 머물렀다. 귀가 후 손씻기 역시 항상 하였다가 76.4%, 자주하였다

〈표 9-8〉 문8. 분노 및 감정(a242235-a242241)

(단위: 명, %)

		분노		걱정		행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5,676	25.8	1,780	8.3	5,332	23.7
드물게 그렇다	2	8,215	36.4	7,096	31.5	8,247	35.8
가끔 그렇다	3	5,485	23.8	6,868	30.7	6,250	28.1
자주 그렇다	4	2,395	10.4	5,505	23.6	2,106	9.5
항상 그렇다	5	830	3.6	1,356	5.9	669	3.0
전 체		22,601	100.0	22,605	100.0	22,604	100.0
평 균		2.3		2.9		2.3	
		슬픔		그리움		외로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6,774	31.0	6,729	31.1	9,800	45.5
드물게 그렇다	2	10,387	46.0	9,003	40.4	7,759	33.7
가끔 그렇다	3	4,054	17.2	5,047	21.1	3,451	14.5
자주 그렇다	4	1,056	4.5	1,434	5.9	1,239	4.9
항상 그렇다	5	333	1.3	394	1.5	358	1.4
전 체		22,604	100.0	22,607	100.0	22,607	100.0
평 균		2.0		2.1		1.8	
		고립감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10,039			46.1		
드물게 그렇다	2	7,049			30.7		
가끔 그렇다	3	3,621			15.6		
자주 그렇다	4	1,544			6.2		
항상 그렇다	5	354			1.4		
전 체		22,607			100.0		
평 균		1.9					

가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는 각각 65.4%, 22.9%가 항상 하거나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관련 행태 변화가 매우 두드러졌던 데 비해 대외 활동 관련 변화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출 자제는 항상 하였다가 41.6%, 예정된 행사 불참은 40.4%, 대중교통 자제는 46.8%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았다 역시 각각 3.2%, 5.1%, 6.0%로 낮게 나타났다.

〈표 9-9〉 문9. 코로나19 관련 위생 정도(a242242 - a242248)

(단위: 명, %)

		외출 자제		예정된 행사 불참		대중교통 자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하지 않았다	1	721	3.2	1,279	5.1	1,392	6.0
가끔 하였다	2	4,485	19.8	4,861	21.6	5,346	23.3
자주 하였다	3	7,895	35.5	7,276	32.9	5,420	23.9
항상 하였다	4	9,510	41.6	9,193	40.4	10,452	46.8
전 체		22,611	100.0	22,609	100.0	22,610	100.0
평 균		3.1		3.1		3.1	
		외출시 마스크 착용		귀가후 손씻기		기침시 옷소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하지 않았다	1	78	0.4	103	0.4	358	1.5
가끔 하였다	2	621	2.9	1,012	4.6	2,256	10.2
자주 하였다	3	2,102	9.3	4,357	18.7	5,308	22.9
항상 하였다	4	19,816	87.5	17,145	76.4	14,689	65.4
전 체		22,617	100.0	22,617	100.0	22,611	100.0
평 균		3.8		3.7		3.5	
		실내 환기					
		빈도			비율		
전혀 하지 않았다	1	173			0.7		
가끔 하였다	2	2,352			10.6		
자주 하였다	3	6,484			28.1		
항상 하였다	4	13,604			60.6		
전 체		22,613			100.0		
평 균		3.5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22%로 전년도의 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가구 역시 전년도 2가구에서 81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있는 가구도 전년도의 0.3%에서 1.4%로 증가하였다(표 9-10 참조).

〈표 9-10〉 문15. 검사 여부 및 자가격리(a242401 - a242544)

(단위: 가구, %)

문15-1. 코로나19 검사 받은 가구 여부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20	22.0	8,909	78.0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검사 받은 가구원 수	1	1,577	62.6		
	2	625	24.8		
	3	178	7.1		
	4	110	4.4		
	5	28	1.1		
	6	2	0.1		
전 체		2,520	100.0		

문15-1. 코로나19 검사 결과				
검사 받은 가구	양성		음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차 검사	40	1.9	2,017	98.1
2차 검사	20	1.4	1,395	98.6
3차 검사	13	1.8	714	98.2
4차 검사	5	1.1	450	98.9
5차 검사	1	1.1	89	98.9
6차 검사	2	13.1	13	86.7

문15-2. 자가격리자 있는 가구 여부					
		예		아니오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154	1.4	11,202	98.6

주: 비율은 18통합표본 가구가중치를 적용함(문15는 동일).
양성은 가구원 중에 양성인 1명이라도 있으면 양성 가구원으로 함.

5.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평소의 가게 성향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8.2%가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37.7%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였다.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각각 2.8%, 0.3%에 그쳤다(표 9-11 참조).

가게의 성향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일로부터의 회복 능력 및 위험회피 성향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평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혹은 매우

〈표 9-11〉 문10. 코로나19에 대한 인식(a242249)

(단위: 명, %)

		인식	
		빈도	비율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8	0.3
심각하지 않음	2	532	2.8
보통	3	2,373	11.0
심각한 질환	4	8,415	37.7
매우 심각한 질환	5	11,237	48.2
전 체		22,615	100.0
평 균		4.3	

〈표 9-12〉 문11. 회복 능력 정도(a242250)

(단위: 명, %)

		회복 능력	
		빈도	비율
전혀 빨리 회복하지 못함	1	1,304	5.3
빨리 회복하지 못함	2	3,522	13.3
보통	3	11,998	53.3
빨리 회복함	4	5,067	24.4
매우 빨리 회복함	5	726	3.7
전 체		22,617	100.0
평 균		3.1	

〈표 9-13〉 문12. 위험 감수 정도(a242251)

(단위: 명, %)

		가족 관계	
		빈도	비율
어떠한 위험도	0	800	3.6
완전히	1	514	2.3
회피한다	2	1,469	6.0
	3	3,086	13.1
	4	2,131	9.1
	5	6,776	29.9
	6	3,354	15.1
	7	2,874	13.5
어떠한 위험도	8	1,406	6.4
기꺼이	9	161	0.7
감수한다	10	39	0.2
전 체		22,610	100.0
평 균		4.8	

빨리 회복하는 경향을 가진 가계가 합쳐서 28.2% 정도를 차지했고 18.6% 정도는 전혀, 혹은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12 참조). 또한 전반적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편인지 혹은 회피하는 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인 5점이 29.9%를 차지한 가운데 6점과 7점이 각각 15.1%와 13.5%를 차지하여 다소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가진 가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9-13 참조).

6.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 및 종류

<표 9-14>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조사한 것이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20.7%로 전년도 조사의 91.5%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수혜금액 역시 전년도 평균 88.4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역시 크게 줄어든 0.3%

〈표 9-14〉 문13. 가구지원금(a242301 - a242312)

(단위: 가구, %, 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동돌봄쿠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302	20.7	38	0.3	0	0.0
아니오	9,120	79.3	11,386	99.7	11,428	100.0
신청중	5	0.0	3	0.0	0	0
전 체	11,427	0.0	11,427	100.0	11,428	100.0
수혜 금액	39.0만 원		46.2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금		자가격리 구호 물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0	0.0	14	0.2	32	0.3
아니오	11,428	100.0	11,414	99.8	11,384	99.7
신청중	0	0	0	0	6	0.1
전 체	11,428	100.0	11,428	100.0	11,422	100.0
수혜 금액			15.0만 원		19.7만 원	
	기타					
	빈도			비율		
예	81			0.7		
아니오	11,162			99.3		
전 체	11,428			100.0		
수혜 금액	18.7만 원					

주: 1) 수혜 금액은 수혜 가구의 평균임.

2) 비율과 수혜금액은 18통합표본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로 평균 금액은 46.2만 원이었다. 아동돌봄쿠폰과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수급한 경우가 0%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구호 물품의 경우 지급받은 가구가 0.3%에 그쳤으며 수혜금액은 평균 19.7만 원이다. 이는 자가격리를 경험한 가구의 비중이 여전히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가운데 개인재난지원금 수급이 20.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혜금액 평균은 14.4만 원으로 나타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는 0.9%, 지원 금액은 평균 86.5만 원이었으며 소상공인비타민 지원을 받은 경우는 2.1%, 금액은 174.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9-15〉 문13. 개인지원금(a242345 - a242329)

(단위:명, %, 만 원)

	개인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415	20.7	190	0.9	506	2.1
아니오	18,238	79.2	22,472	99.1	22,165	97.9
신청중	20	0.1	12	0.0	3	0.0
전 체	22,673	100.0	22,674	100.0	22,674	100.0
수혜 금액	14.4만 원		86.5만 원		174.3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		생활지원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2	0.1	3	0.0	17	0.1
아니오	22,649	99.9	22,669	100.0	22,653	99.9
신청중	5	0.0	3	0.0	5	0.0
전 체	22,676	100.0	22,675	100.0	22,675	100.0
수혜 금액	147.7만 원		140.6만 원		68.4만 원	
	가족돌봄휴가비		정책자금융자 및 특례보증		휴·폐업점포 재기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	0.0	38	0.2	9	0.1
아니오	22,670	100.0	22,641	99.8	22,662	99.9
신청중	1	0.0	0	0.0	5	0.0
전 체	22,675	100.0	22,679	100.0	22,676	100.0
수혜 금액	37.5만 원		452.4만 원		137.4만 원	
	기 타					
	빈도			비율		
예	76			0.3		
아니오	22,600			99.7		
신청중	0			0.0		
전 체	22,676			100.0		
수혜 금액	40.0만 원					

주: 수혜 금액은 수혜 대상자만 대상으로 평균한 것.

〈표 9-16〉 문14. 지인에게 돈을 빌림(a242330 - a242331)

(단위: 명, %, 만 원)

	돈 빌림 여부	
	빈도	비율
예	36	0.2
아니오	22,640	99.8
전 체	22,676	100.0
빌린 금액	962만 원	

그밖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지원, 생활비지원 등을 수급한 경우는 0.1% 이하로서 비중이 매우 낮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경우는 0.2%로 나타났으며 빌린 금액은 평균 962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9-16 참조).

7. 근무시간 및 형태의 변화

〈표 9-17〉은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변화에 대한 문항이다. 코로나19 당시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의 비중은 76%였으며 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규근로시간이 감소한 사람은 4.0%, 평균 감소시간은 10.9시간이었다. 또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한 비중은 1.2%였으며 평균 감소시간은 7.2시간이었다.

〈표 9-18〉~〈표 9-20〉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관련 문항이다. 유

〈표 9-17〉 문1. 근로시간 변화(a242702-a242705, a242798 - a242799)

(단위: 명, %, 시간)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빈도	비율	평균	빈도	비율	평균
증가	26	0.4	7.7	19	0.3	8.9
감소	255	4.0	10.9	91	1.2	7.2
불변	6,311	95.6		6,482	98.5	
전 체	6,592	100.0		6,592	100.0	

연근무제의 경우 원래부터 직장에 있었던 비율은 4.9%였고 4.5%는 새로 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없어진 경우도 20.3%에 달했다.

〈표 9-18〉 문2. 유연근무제 도입 유무(a242706)

(단위: 명, %)

유연근무제 도입 유무			
		빈도	비율
예		363	4.5
아니오	직장에 원래 있음	413	4.9
	변화 없음	6,485	70.3
제도가 없어짐		1,959	20.3
전 체		9,220	100.0

〈표 9-19〉 문3. 유연근무제 사용 유무(a242707 - a242714)

(단위: 명, %, 일)

	문3-1. 재택근무제		문3-2. 시차출퇴근제		문3-3. 선택근무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76	37.4	77	10.9	33	4.4
아니오	500	62.6	699	89.1	743	95.6
전 체	776	100.0	776	100.0	776	100.0
사용일	2.8		3.2		2.3	
	문3-4. 원격근무제					
	빈도			비율		
예	36			4.3		
아니오	740			95.7		
전 체	776			100.0		
사용일	2.4					

유연근무제 유형별 사용 비율과 평균 사용일은 재택근무제가 37.4% 및 2.8일, 시차출퇴근제가 10.9% 및 3.2일, 선택근무제는 4.4% 및 2.3일, 원격 근무제는 4.3% 및 2.4일이다. 일반적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생산적 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차출퇴근제가 ‘훨씬 생산적’, ‘약간 생

산적'을 합하여 31.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제 24.6%, 선택근무제 20.1%, 원격근무제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 및 휴직 사용 여부는 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1.5%로 평균 사용일은 39.2일이었으며, 일반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중은 1.5%, 사용일은 8.4일이었다. 유급휴직 사용 비율은 0.4%에 그쳤으며 특별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중 역시 0.4%에 그쳤다(표 9-21 참조).

〈표 9-20〉 문4. 유연근무제 사용 유무(a242718 - a242721)

(단위: 명, %)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생산적이지 않음	14	4.9	3	2.7	0	0.0	1	2.3
별로 생산적이지 않음	72	28.1	13	17.7	8	26.6	13	30.4
차이가 없음	121	42.3	40	48.5	18	53.3	16	56.0
약간 더 생산적	55	20.5	17	26.6	6	16.9	5	9.5
훨씬 더 생산적	14	4.1	4	4.5	1	3.2	1	1.8
전 체	276	100.0	77	100.0	33	100.0	36	100.0

〈표 9-21〉 문5. 휴가 및 휴직 사용 여부(a242722 - a242730)

(단위: 명, %, 일)

휴가 및 휴직 사용 여부				
		빈도	비율	사용일
예	일반 유급휴가	145	1.5	8.4
	특별 유급휴가	32	0.4	17.4
	무급(휴가)휴직	134	1.5	39.2
	유급휴직	29	0.4	149.9
아니오		8,882	96.2	
전 체		9,222	100.0	
휴가 기간				35.0

주: 휴가 기간은 휴가(직) 사용자의 전체 휴가기간의 평균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의 변화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9%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평균 29.5%였고, 전체 응답자의 0.4%만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8%였다. 전체 응답자의 92.7%는 변화가 없었다. 즉,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는 제한적이었으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9-22 참조).

<표 9-23>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비중이 26.3%, 부품/재료 공급 중단으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경우가 6.7%, 주문 취소, 수요 감소로 사업에 직접적 타격을 받은 경우가 32.4%에 달했다.

종업원의 정규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경우는 5.6%, 증가시킨 경우는 2.5%로 나타났고 초과시간을 단축시킨 경우는 3.7%, 증가시킨 경우는 1.3%였다. 종업원에게 유급휴가나 휴직을 실시한 경우는 0.4%에 그쳤으며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다소 더 많은 0.7%였고, 해고한 경우는

<표 9-22> 문6. 근로소득 변화(a242731 - a242733)

(단위: 명, %)

근로소득 변화			
	빈도	비율	변화율
증가	40	0.4	20.8
감소	673	6.9	29.5
변화 없음	8,513	92.7	
전 체	9,226	100.0	

<표 9-23> 문1. 3월 당시 근무 여부(a243102 - a243120)

(단위: 명, %)

	문1-1. 영업시간 타격		문1-2. 부품/재료 타격		문1-3. 주문 취소 타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853	26.3	220	6.7	1,104	32.4
아니오	2,655	73.7	3,288	93.3	2,404	67.6
전 체	3,508	100.0	3,508	100.0	3,508	100.0

〈표 9-23〉의 계속

	문1-4. 정규시간		문1-5. 초과시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축	189	5.6	123	3.7		
증가	96	2.5	50	1.3		
변화없음	790	24.2	800	24.5		
해당없음	2,433	67.7	2,535	70.5		
전 체	3,508	100.0	3,508	100.0		
	문1-6. 유급휴가		문1-7. 무급휴가		1-8. 해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8	0.4	25	0.7	72	2.4
아니오	468	14.6	495	15.3	499	16.0
해당없음	3,022	84.9	2,988	83.9	2,937	81.6
전 체	3,508	100.0	3,508	100.0	3,508	100.0
문1-9. 재택근무						
	빈도		비율			
예	8		0.2			
아니오	535		16.9			
해당없음	2,965		82.9			
전 체	3,508		100.0			
	문1-10. 시차출퇴근제		문1-11. 선택근무제		문1-12. 원격근무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9	0.3	5	0.2	4	0.1
아니오	535	16.9	538	16.9	542	17.0
해당없음	2,964	82.8	2,965	82.9	2,962	82.9
전 체	3,508	100.0	3,508	100.0	3,508	100.0
	문1-13. 일시 휴업		문1-14. 폐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44	4.5	93		3.0	
아니오	3,364	95.5	3,415		97.0	
전 체	3,508	100.0	3,508		100.0	
평 균	62.5일					

주: 평균은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임.

2.4%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경우 실시 비율은 0.2%였다. 일시휴업을 실시한 경우는 4.5%였으며 평균 기간은 62.5일이었고 폐업한 경우는 3.0%였다.

영업시간의 경우 감소한 비율이 22.6%였으며 평균 감소시간은 13.8 시간이었고 증가한 비율은 0.4%에 그쳤다(표 9-24 참조).

〈표 9-24〉 문3. 영업시간 변화(a243125 - a243127)

(단위: 명, %)

영업시간 변화			
	빈도	비율	영업시간
증가	11	0.4	9.3
감소	745	22.6	13.8
변화 없음	2,752	77.0	
전 체	3,508	100.0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4차 「코로나19」 부가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의 일상 생활 및 육아, 건강, 근로행태 등의 변화, 정부지원의 수혜 여부와 인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과 학습형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23차 부가조사에서와 대체로 유사한 영향이 나타났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들의 운영 제한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17.3%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3차 조사와 비교할 때 학습형태의 경우 부모보다는 학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23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상시보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이 크게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여행 등의 활동 역시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기관리에 대한 가계의 만족도는 23차 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4차 조사에서는 상당 폭 하락하여 학교나 직장의 위기 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계가 코로나19가 자신들의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보다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우려하는 점은 올해도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부 산업이나 일부 가계에 비대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소득이나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는 가계도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3차 조사의 12.1%에서 24차 조사에는 6.9%로 감소하였으며 소득의 감소폭 역시 45.5%에서 29.5%로 줄어들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에 의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비중이 24.3%로 나타나 임금근로자 가계에 비해 피해가 더욱 컸음을 시사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5%로 낮게 나타났으며 새롭게 도입한 경우도 3.9%로 낮은 수준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의 경우 유형별로는 재택근무제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 근무에 비해 생산적인 형태라고 응답한 비중은 시차출퇴근제가 27.3%로 가장 높았다. 향후 코로나19가 근무형태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 가계의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생산적이면서 일과 가정 생활의 병행에 도움이 되는 근무형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 제시된 코로나19가 가계에 미친 영향 및 23~24차 조사에서의 특징적 변화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토대로 보다 다양하고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앞으로 위기 재발 시 더욱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10 장

성역할 척도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한국노동패널은 성역할 관련 문항을 2014년 일회성 부가조사로 다룬 바 있지만, 본조사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노동패널을 쓰는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성역할 인식 자료를 지속 생산하기를 요청하였고, 연구진들 역시 행태와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24차 본조사에 성역할 척도를 추가하였다.

문항 구성을 위해 기존 활용되는 성역할 척도를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성역할 척도는 해외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하 ISSP), World Value Survey(이하 WVS) 등이 있고, 국내는 여성가족패널, 복지패널, 가정폭력실태조사,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등이 있었다. 각 자료 중 성역할 관련 척도를 조사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크게 3가지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의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신 문항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 문항은 개발한 지 오래되어 현실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고, 새로운 문항은 다른 조사와 비교연구가 불가하고 신뢰성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척도를 활용하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성역할 태도의 다양한 범주 중

가족 내 성역할과 일터/공적영역에서의 성역할 인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노동패널에 활용될 문항인 만큼 일터/공적영역에서의 성역할 인식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일과 생활이 상호 전이되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가정 내 성역할 인식 역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노동 현장의 성 차별적 구조를 내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동패널이 근로자의 노동 여건과 경제활동 상태 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성역할 인식 문항도 이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유지 등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이상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다음 <표 10-1>의 문항이

<표 10-1> 성역할 척도 구성

문항	출처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ISSP, 여성가족패널, 한국복지패널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여성가족패널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ISSP, WVS, 여성가족패널, 한국복지패널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여성가족패널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여성가족패널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ISSP, 한국복지패널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WVS, 양성평등실태조사
8.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WVS
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WVS, 양성평등실태조사
1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1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13.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주: 성역할 척도 1-5 문항은 17차 부가조사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문항임.

〈표 10-2〉 성역할 척도 관련 조사 개요

출처	조사 개요
ISSP ³⁶⁾	• 다양한 사회주제 관련 매년 시행되는 국제조사 • 각년도 주제를 선정해 조사함. 성역할 척도 조사는 약 10여 년 주기로 시행되고 2012년이 가장 최근임 • 2020년 기준 57개국이 참여
WVS ³⁷⁾	• 사회·정치·경제·종교적 가치 등에 대해 조사하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 • 1981년 1차를 시작으로 현재 5년마다 시행, 현재 7차 조사(2017~2022) 결과가 공개됨
여성가족패널 ³⁸⁾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표본틀로 하여 층화2단계집락추출로 표본을 추출함 • 만 19세~64세 이하 여성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 시행. 2006년 시작 후 2022년 8차 조사 자료를 공개함 • 여성의 일과 삶, 관련 가치관 변화를 중단으로 추적함
한국복지패널 ³⁹⁾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부터 확률비례추출한 표본에서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해 패널가구 선정 • 총 표본가구는 7,072가구이나 표본추출 과정에서 저소득층가구는 과대표집됨 • 계층별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 등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매년 동태적으로 파악함
양성평등실태조사 ⁴⁰⁾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2016년 이후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실태조사 • 2021년 2차 조사는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층화2단계집락추출로 표본을 추출함 • 2021년 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여성 4,351명(52.1%), 남성 4,007명(47.9%)이 참여함 • 양성평등 실태를 인식 및 행위 전반에서 측정함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⁴¹⁾	• 1999년 개발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개정판 • 설문문항 수집 및 예비 조사, 본조사 시행을 통해 성별 성역할 규범 인식, 가족 및 일터 성평등 태도 등의 문항을 구축함

36)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https://issp.org/>37) World Values Survey,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3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https://klowf.kwdi.re.kr/>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

40) 마경희·황정임·이은아·문희영(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연구』, 여성가족부.

41) 이수연·김인순·고재훈(20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Ⅱ): 표준화 표준

도출되었다. 가정 내 성역할과 일터 성역할 등에 대한 총 13개의 문항이다. 가정 내 성역할 문항은 ISSP, WVS, 여성가족패널, 한국복지패널, 양성평등실태조사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정 내 성역할 문항 7개 중 1~5번은 17차 부가조사에서 시간사용의 일환으로 조사된 문항이다. 일터 성역할 문항은 WVS와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되, 일부 문항은 분석 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평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역할 척도 조사 결과를 동일한 문항을 활용한 다른 조사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조사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항의 출처가 된 조사의 개요를 다음 <표 10-2>에 제시하였다. ISSP와 WVS 공통 문항의 경우, 노동패널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ISSP의 성역할 척도 조사가 2012년으로 노동패널 24차 조사와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 여성가족패널의 문항은 가장 다수 문항을 짧은 주기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성가족패널이 여성자료만 보유하고 있어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는 일부 문항만 비교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4차 조사문항 중 성역할 척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역할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24차 조사에 응답한 22,958명을 대상으로 통상 성역할 인식 격차가 발생하는 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등에 따른 응답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역할 척도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중 24차 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²⁾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2)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4차 조사(학술대회 버전)’을 활용하였고, 관련 문항은 p249211-p249223 등 총 13개이다.

제2절 성역할 척도 검증

본 절에서는 성역할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한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구성개념을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지표로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α)를 많이 활용한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다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구성개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주요하다. 또 관련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할 때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성역할 척도의 타당도

성역할 척도의 세부영역을 특정하기 위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성분 분석(PCA)에 의한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활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10-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3개 도출되었다. 이 3개 요인에 의한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58.6%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나 50% 이상은 설명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3개로 도출된 요인의 각 문항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인 특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영역1의 경우 대체로 일터 내 성역할을 측정하고 있지만, 문항 7의 남편과 아내의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 가능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역2는 대체로 부부 간 평등한 관계 설정을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의 각자 관리'라는 평등 요소가 영역3에 포함되어 있어 영역2 역시 평등관계라는 특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각 영역을 이루는 문항 간 상관관계를 검토해 문항 간 관계성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각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영역1의 경우, 문항 9와 문항 8, 문항 10은 문항 8과 9, 문항 11은 문항 10, 문항 12는 문항 10과 문

〈표 10-3〉 성역할 척도 타당도 분석

	문항	성분		
		1	2	3
영역1	1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0.860	0.031	0.090
	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0.851	0.082	0.002
	1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0.833	0.048	0.083
	8.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0.780	-0.051	0.146
	13.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0.774	0.132	-0.044
	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0.770	-0.086	0.225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0.597	-0.028	0.014
영역2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0.043	0.783	0.067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187	0.703	-0.081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0.099	0.666	0.114
영역3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0.242	-0.303	0.680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161	0.310	0.644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0.392	0.165	0.479
고유값		4.725	1.804	1.094
설명 변량		35.378	13.873	9.384
누적 설명 변량		35.378	49.251	58.635

항 11, 문항 13은 문항 11과 문항 12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문항 7을 제외한 일터 성역할 관련 문항들의 경우, 서로 간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역2의 경우, 문항 6과 문항 4만 상관관계가 0.400으로 나타나고, 문항 6과 문항 2, 문항 4와 문항 2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3 역시 3개 문항 모

〈표 10-4〉 영역1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문항	문항 7	문항 8	문항 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영역1	문항 7	1.000	-	-	-	-	-	-
	문항 8	.430**	1.000	-	-	-	-	-
	문항 9	.350**	.681**	1.000	-	-	-	-
	문항 10	.413**	.647**	.691**	1.000	-	-	-
	문항 11	.425**	.588**	.573**	.715**	1.000	-	-
	문항 12	.367**	.582**	.639**	.722**	.693**	1.000	-
	문항 13	.426**	.479**	.461**	.584**	.668**	.611**	1.000

〈표 10-5〉 영역2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문항	문항 6	문항 4	문항 2
영역2	문항 6	1.000	-	-
	문항 4	.400**	1.000	-
	문항 2	.339**	.237**	1.000

〈표 10-6〉 영역3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문항	문항 3	문항 5	문항 1
영역3	문항 3	1.000	-	-
	문항 5	.041**	1.000	-
	문항 1	.266**	.045**	1.000

두가 서로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영역 1은 문항 7을 제외하고, ‘일터 성역할’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영역 2와 3의 경우, 타당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문항 간 연계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요인분석의 기본 기준을 변경하여 타당도를 재분석하였다. 요인 추출 시 주된 기준은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를 요인으로 도출하는 것인데, 판단에 따라 도출될 요인의 수를 지정하기도 한다. 본 성역할 척도의 경우, 구성 시 일터와 가정 내 성역할로 구분해 구성한 만큼 2개 요인

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될 때 누적 설명 변량은 50.220%로 앞선 3개 요인 구성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개 중 영역 1은 일터 성역할 문항 8~13을 포함해 문항 1, 문항 3, 문항 7이 추가로 포함되어 구성 문항이 총 9개이다. 영역 2는 평등지향의 4개 문항 즉, 문항 2, 문항 4, 문항 5, 문항 6으로 구성되었다. 의도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일터와 가정 내 성역할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항 내용만 고려한다면, 영역을 2개로 구성하는 방식, 즉 일터 성역할과 가정 내 성역할 3개 문항을 합치고, 평등 관계를 지향하는 문항 2, 4, 5, 6을 하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타당도 분석 결과, 납득할 만한 영역 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초기 성역할 척도 구성 시 가정 내 역할을 측정하는 1에서 7번까지의 문항이 대부분 해외 문헌을 번역한 자료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항의 기초가 된 WVS와 ISSP 문항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통용되었고, 이후 여성가족패널과 복지패널 등 한국의 조사에도 사용되었다. 이에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문의 원래 의미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을 수 있고, 제대로 번역되었더라도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일터 내 성역할을 측정하는 문항 8에서 문항 13까지의 내용은 남녀의 식습관을 위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된 문항을 주로 활용했고, 문항 개발 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마친 문항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각 영역에 대해 신뢰도를 측정한 후 최종 세부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성역할 척도의 신뢰도

성역할 척도를 앞선 타당도 분석 결과를 고려해 영역 1에서 영역 3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0-7>과 같다.

세 영역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영역 1이다. 영역 1은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899로 매우 높은데, 문항 7(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을 제외할 경우, 크론바흐 알파계수

〈표 10-7〉 성역할 척도 영역별 신뢰도 분석(3개 영역)

	문항	Cronbach-α	문항 제거 시
영역1	1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899	.871
	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875
	1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876
	8.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881
	13.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886
	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882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908
영역2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591	.383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505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572
영역3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85	.085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420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078

는 0.908로 더 높아진다. 앞서 타당도 분석에서 영역 1의 문항 7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이 일터 성역할을 측정하고 상호 간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영역 1은 문항 7을 제외한 후 ‘일터 성역할’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영역 2는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591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통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영역 내 문항에서도 각 문항 제외 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영역 2의 문항 2가 문항 4, 6과 상관성이 낮았던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역 3은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285로 매우 낮지만, 문항 5를

제외할 경우 0.420까지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영역을 2개로 도출할 경우의 신뢰도도 제시하였다. 앞서 타당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2개 영역(영역 1: 일터 성역할 문항 + 문항 1, 3, 7, 영역 2: 평등 관련 문항)으로 구성할 경우, 영역 1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873으로 충분히 높다. 구성 문항 중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알파계수가 눈에

〈표 10-8〉 성역할 척도 신뢰도

구분	문항	전체 척도		영역별 척도	
		Cronbach -α	문항 제거 시	Cronbach -α	문항 제거 시
가정 내 성역할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0.793	0.779	0.457	0.361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0.810		0.426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0.796		0.477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793		0.384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814		0.460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0.798		0.359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0.778		0.452
일터 성역할	8.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0.793	0.760	0.908	0.897
	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0.759		0.894
	1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0.753		0.881
	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0.755		0.887
	1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0.755		0.886
	13.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0.762		0.904

띄게 높아지는 현상도 없다. 영역 2의 경우,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554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관측되고, 이 역시 일부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뚜렷히 계수가 높아지지는 않았다.

처음의 성역할 척도 구성의 의도를 고려해 가정 내 성역할(문항 1~문항 7)과 일터 성역할(문항 8~문항 13)로 구분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8>과 같다. 먼저, 13개 문항 전체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93으로 충분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터 내 성역할 척도가 견인한다고 파악된다. 둘을 구분해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성역할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457로 문항 3과 문항 5를 각각 제외할 경우, 소폭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항을 모두 제외할 경우에는 0.502까지 높아진다. 일터 성역할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908로 매우 높고, 각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항 8에서 문항 13은 일터 성역할 인식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문항 1에서 문항 7은 가정 내 성역할을 측정하고자 구성되었으나,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만, 다른 자료들 역시 해당 문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당 문항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또 7개 문항을 이론적 논의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 편견(문항 1, 3, 7)과 평등주의 관점(문항 2, 4, 5, 6) 등으로 적절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항 수를 줄여야 한다면 문항 3과 문항 5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영역 1의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5를 넘어 경우에 따라 사용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절 기초분석

여기서는 각 문항을 가정 내 영역과 일터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⁴³⁾ 각 문항에 대해 가능하다면, 다른 자료와 비교한 결과도 함께 제시

한다. 분석 결과는 평균점수와 집단별 비교 중심으로 서술하고,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4차 단년도 개인 인식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18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 가정 내 성역할

가정 내 성역할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7개이다. 이 중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 역할을 부여하는 문항과 ‘취학 전 어머니의 일이 자녀에게 부정적’,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문제’라 여기는 총 3문항은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역코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평균 점수는 [그림 10-1]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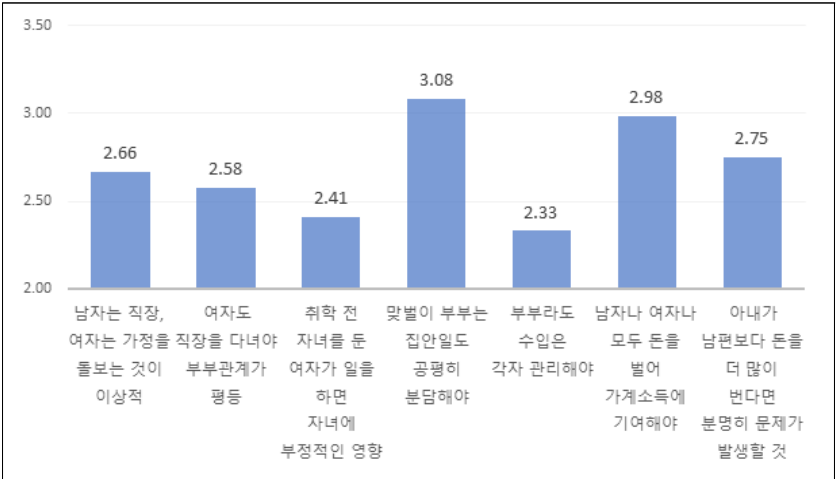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역할 인식이 가장 평등하게 나타나는 문항은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로 3.08점이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가 2.98점으로 다음으로 높고,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가 2.75점으로 3순위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을 직장가정 내 역할로 이분화하고 있는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의 경우 2.66점,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하다”가 2.58점으로 2점을 넘기는 하지만 여전히 3점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불평등하게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문항은 2개로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2.41점,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가 2.33점이다. 종합해 볼 때, 맞벌이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 및 가계소득 기여에 대한 필요성, 아내가 더 많이 버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취학전 자녀에게 어머니의 취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편견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 성역할 문항 중 1에서 5번은 17차 부가조사에서 활용된 문항

43) 앞선 분석에서 가정 내 성역할 척도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각 문항들이 모두 조사되었고, 각 문항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0-1]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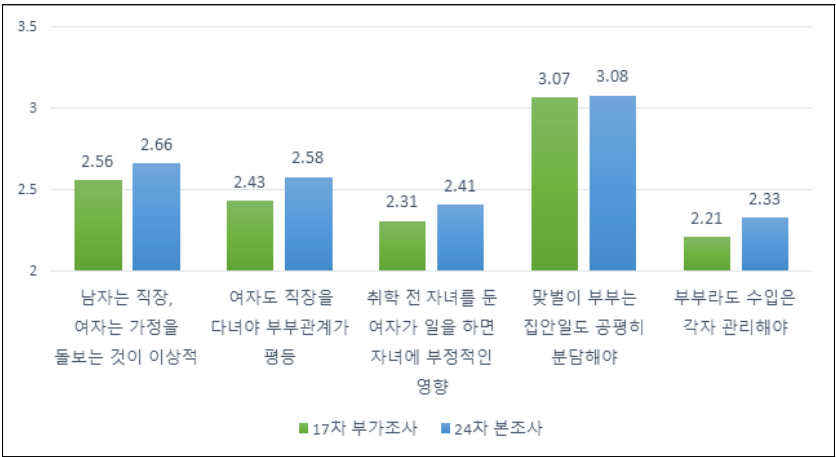
(단위 : 점)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10-2] 가정 내 성역할 : 17차와 24차 비교

(단위 : 점)



주: 17차는 09통합표본, 24차는 18통합표본의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으로 17차와 24차 응답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17차 대비 24차에 성역할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17차와 24차 모두 가장 성평등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수입 각자 관리’는 17차나 24차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자도 직장에 다녀야 평등’하다는 인식은 17차 대비 24차에서 가장 개선 정도가 큰 문항으로 17차에는 2.43점인데 반해, 24차에는 2.58점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성역할 7개 문항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는 <표 10-9>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맞벌이부부의 가사 공평 분담’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가장 평등한 것은 동일한데, 여성은 3.18점, 남성은 2.99점으로 모든 문항 중 가장 점수 차가 큰 상황이다. 문항 3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2.4점 내외이면서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특히, 일하는 어머니의 돌봄 공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10-9> 성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점)

문항	남성	여성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67	2.66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54	2.61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42	2.39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2.99	3.18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2.34	2.33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2.97	2.99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73	2.77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문항 7은,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도 조사된 바 있어 <표 10-10>에서 노동패널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⁴⁴⁾ ‘남편 대비 아내 소득이 높을 경우, 갈등이 야기되거나 남편의 기가 죽는다’는 데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성별 간 양상은 유사하다. 노동패널은 전체 성별 중 34.7%가 동의하고 남성이 35.8%, 여성이 33.6%

44) 두 조사에 사용된 문항의 문구가 다소 상이하긴 하나, 조사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교를 시도하였다.

동의한다. 양성평등실태조사는 4명 중 1명 수준에서 동의하는데, 남성이 24.5%, 여성이 21.5%이다. 노동패널에 비해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동의 수준이 좀 더 낮게 나타나지만, 남녀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패널이 단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썼다면, 양성평등실태조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의 기가 죽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양성평등실태조사가 노동패널보다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설명 가능하다.

〈표 10-10〉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 아내가 더 벌면 문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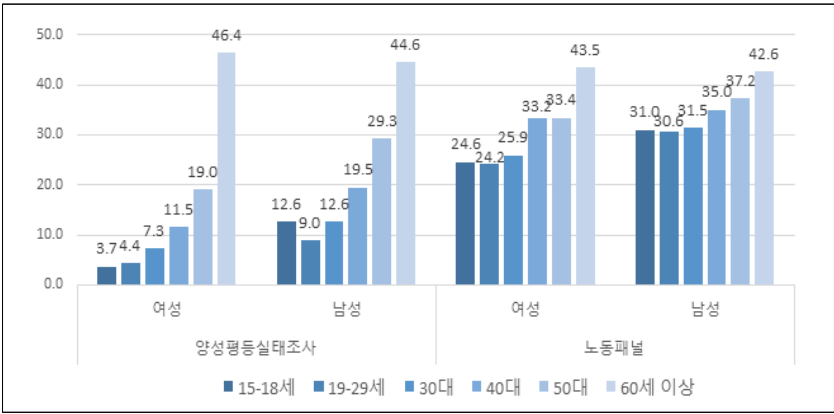
문항		전체	남성	여성
아내가 더 벌면 문제	[노동패널]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4.7	35.8	33.6
	[양성평등실태조사]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23.0	24.5	21.5

주: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양성평등실태조사가 본 문항을 역코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동패널 응답 역시 역코딩하지 않는 비율을 제시함. 즉, 해당 응답 비율이 높을수록, 통념적인 성역할 인식의 수용 정도가 높아 평등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자료: 마경희 외(2021:36, 55)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표로 재구성하였음.

〔그림 10-3〕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 아내가 더 벌면 문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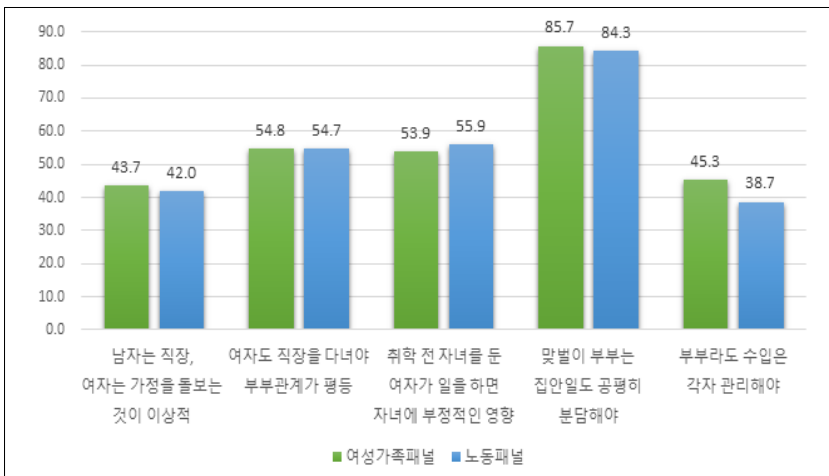
주: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자료: 마경희 외(2021:36, 55)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표로 재구성하였음.

[그림 10-4]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비교하였다. 두 조사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묻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50대까지의 동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두 조사 모두 40% 이상으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즉, 장년층에서는 여전히 15명 중 2명 이상이 아내보다 남편이 더 버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5]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노동패널과 여성가족패널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성가족패널이 여성만을 조사하므로 노동패널의 응답 결과도 여성만의 수치만 제시하였다. 비교 결과, 노동패널과 여성가족패널의 응답 패턴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평등 분배’에 대한 동의가 각 85% 내외로 가장 높고, ‘부부 각자 수입 관리’에 대한 동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앞선 검증에서 가정 내 성역할 문항을 분석한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는데, 여성가족패널과 노동패널의 응답치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부 각자 수입 관

[그림 10-4] 노동패널과 여성가족패널 비교 : 가정 내 성역할

(단위 : %)



주: 1)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2) 여성가족패널은 2018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자료: 여성가족패널, <https://kdowf.kwdi.re.kr/>

리'인데 노동패널의 동의 비율은 38.7%인 데 반해, 여성가족패널의 동의 비율은 45.3%로 다소 높았다. 이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들이 성역할 척도에 비교적 빈번하게 노출되어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패널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다소 높은 점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표 10-11>은 가정 내 성역할 문항 응답을 성별 비교한 것이다. 모든 문항에서 대체로 어릴수록 성역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와 50대, 60대와의 인식 차이는 상당한데 특히 문항 1의 경우, 두 집단의 인식 차가 0.5점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남녀 간의 공사영역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표 10-11> 연령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96	2.77	2.65	2.65	2.41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68	2.55	2.53	2.57	2.56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59	2.49	2.37	2.38	2.27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3.18	3.13	3.08	3.04	3.02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2.65	2.41	2.30	2.24	2.13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3.10	3.00	2.93	2.95	2.94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88	2.86	2.76	2.73	2.6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다음은 학력 간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성평등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다. 학력에서도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이 1번인데, 고졸 미만이 2.47점인 데 반해, 전문대졸 이상은 약 2.8점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10-12〉 학력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47	2.64	2.75	2.78	2.80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51	2.54	2.58	2.58	2.63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31	2.35	2.48	2.48	2.49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3.04	3.05	3.10	3.15	3.19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2.22	2.28	2.36	2.40	2.44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2.97	2.97	2.98	2.99	3.03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63	2.72	2.82	2.83	2.85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표 10-13〉 취업 여부별 가정 내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취업	미취업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72	2.58
2.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57	2.59
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44	2.36
4. 맞벌이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3.07	3.11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2.31	2.36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2.99	2.97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78	2.7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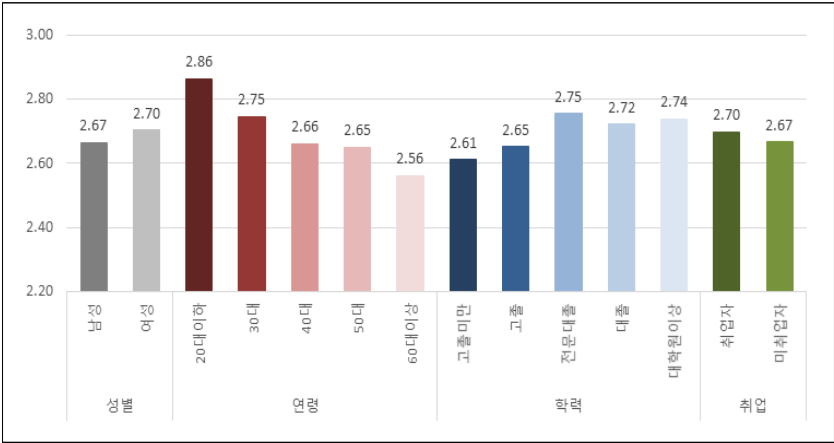
취업 여부별로 확인한 결과, 문항 1, 3, 6, 7에서 미취업자 대비 취업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일하는 어머니의 부정적 영향’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에서 0.8점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고, 부부 간 소득 격차의 갈등 소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격차를 보였다.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평등 분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취업 집단의 인식 수준이 취업집단보다 더 개선된 상황이다.

아래 [그림 10-7]에는 가정 내 성역할 7개 문항의 평균점을 도출하여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취업자보다 취업 집단의 인식 수준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 이상의 격차가 커 고졸 미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5] 가정 내 성역할 : 집단별 비교

(단위 : 점)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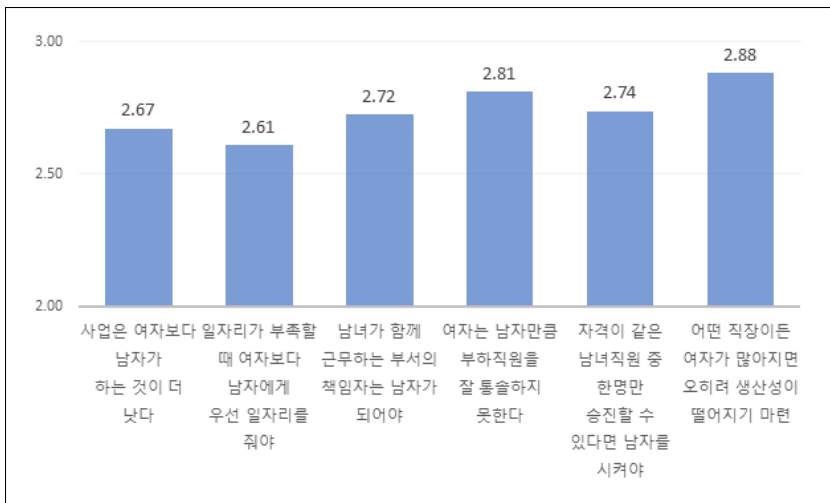
2. 일터 성역할

여기서는 일터 성역할 6개 문항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3점을 넘는 문항은 없었으며, ‘여성이 많으면 생산성 저하’가 2.8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여성이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통솔하지 못함’ 2.81점, ‘남성 일자리 우선’이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이 3점 미만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일터 성역할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통

솔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남성 일자리 우선’이 가장 점수가 낮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성을 생계부양자, 주된 노동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성 생계부양자 인식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주변화 등과 연결되는 요인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0-6]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점)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다음에는 성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 내 성역할과 유사하게 일터 성역할 역시 모든 문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문항 1과 2에서만 2.8점 미만이고, 그 외 4개 문항은 2.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8점을 넘는 문항이 6번 단 하나이고, ‘남성 일자리 우선’이 2.53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이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에 2.60점 순이다. 대체로 성별 점수 차는 0.2점 미만인데, ‘남성 먼저 승진’이 1.93점으로 가장 격차가 크고, 다음이 2번과 4번, 3번 문항 순이다. 종합해 볼 때, 일터 성역할 인식에는 여전히 남녀 간 인식 차가 존재하고, 특히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방식(일자리, 승진, 관리자 역할 등)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표 10-14〉 성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남성	여성
1.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60	2.74
2.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2.53	2.69
3.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2.65	2.80
4.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2.73	2.89
5.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2.64	2.83
6.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81	2.95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문항 2는 양성평등실태조사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⁴⁵⁾ ‘남성에 일자리 우선’에 동의하는 비율이 노동패널은 42.2%, 양성평등실태조사는 26.0%로 노동패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성별 간 격차는 두 조사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 비율이 높는데 노동패널이 약 10%p, 양성평등실태조사가 약 5%p 정도이다. 이 문항 역시 노동패널보다 양성평등실태조사가 더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표현보다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가 명확하면서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에 양성평등실태조사의 문항에 동의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 비교한 [그림 10-9]에 따르면, 두 조사의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실태조사가 약 50% 미만 수준, 노동패널이 약 60% 미만 수준이다. 두 조사 모두 60대 이상과 50대 이하 간 격차가 큰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만, 양성평등실태조사는 여성에서 60대 전후 격차가 약 27%p 수준으로 크고, 남성은 약 15%p 수준인데, 노동패널의 경우 여성에서 약 20%p, 남성에서 약 6%p 수준이다.

45) 일터 성역할 문항의 경우, 양성평등실태조사와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문항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경우, 척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대국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는 제한적으로만 찾을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양성평등실태조사와의 비교만 시행하였다.

〈표 10-15〉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 취업 어려울 때 남성 우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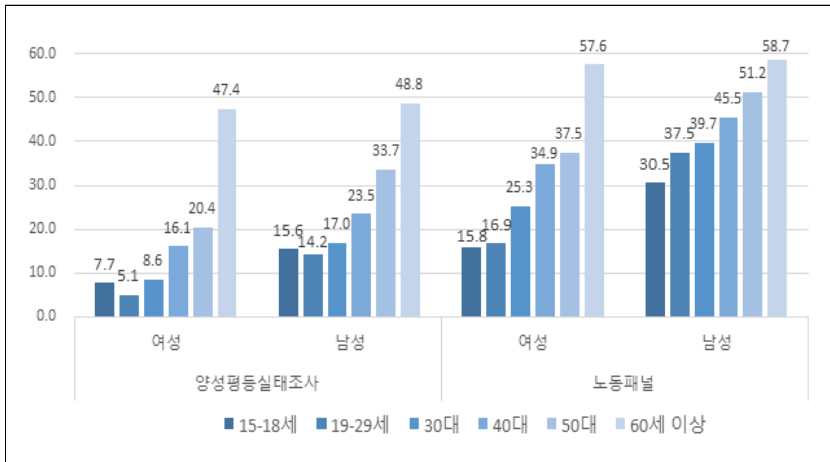
문항		전체	남성	여성
취업 어려울 때 남성 우선	[노동패널]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42.2	47.0	37.4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26.0	28.8	23.2

주: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양성평등실태조사가 본 문항을 역코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동패널 응답 역시 역코딩하지 않는 비율을 제시함. 즉, 해당 응답 비율이 높을수록, 통념적인 성역할 인식의 수용 정도가 높아 평등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자료: 마경희 외(2021:36, 55)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표로 재구성하였음.

〈그림 10-7〉 노동패널과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 취업 어려울 때 남성 우선

(단위 : %)



주: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자료: 마경희 외(2021:36, 55)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표로 재구성하였음.

다음에는 노동패널의 문항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이 연령이 어릴수록 일터 성역할 인식이 개선된 상황임을 볼 수 있다. 20대 이하는 모든 문항의 점수가 약 2.9점에서 3.0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문항 4, 문항 6)이 높다. 세대 간 격차가 가장 작은 문항 역시 문항 6인데, 이는 60대 이상에서 2.73점이고, 40대 이하는 2.9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10-16〉 연령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89	2.81	2.70	2.63	2.44
2.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2.88	2.78	2.63	2.55	2.34
3.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2.95	2.86	2.77	2.68	2.48
4.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2.99	2.90	2.85	2.78	2.62
5.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2.95	2.88	2.80	2.70	2.48
6.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3.03	2.96	2.91	2.85	2.73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표 10-17〉 학력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단위 : 점)

문항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1.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50	2.62	2.76	2.77	2.85
2.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2.41	2.54	2.71	2.74	2.87
3.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2.53	2.68	2.83	2.83	2.94
4.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2.67	2.77	2.90	2.88	2.96
5.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2.54	2.70	2.83	2.85	2.91
6.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76	2.85	2.96	2.94	2.99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표 10-17>은 학력별 비교이다. 모든 문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집단은 대학원 졸 이상, 가장 점수가 낮은 집단은 고졸미만으로 고졸 이하와

전문대 졸 이상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문항 중 그 격차가 특히 큰 문항은 문항 2, ‘남성 일자리 우선 부여’인데 고졸 미만이 2.41점인 데 반해 대학원 이상은 2.87점이다. 또 ‘부서 관리자는 남성’ 역시 그 격차가 0.41점으로 크게 나타난다.

다음은 취업 여부별 비교이다. 모든 문항에서 취업자의 인식 수준이 미취업자에 비해 개선된 상황이다. 미취업집단에서 특히 점수가 낮은 문항

〈표 10-18〉 취업 여부별 일터 성역할(18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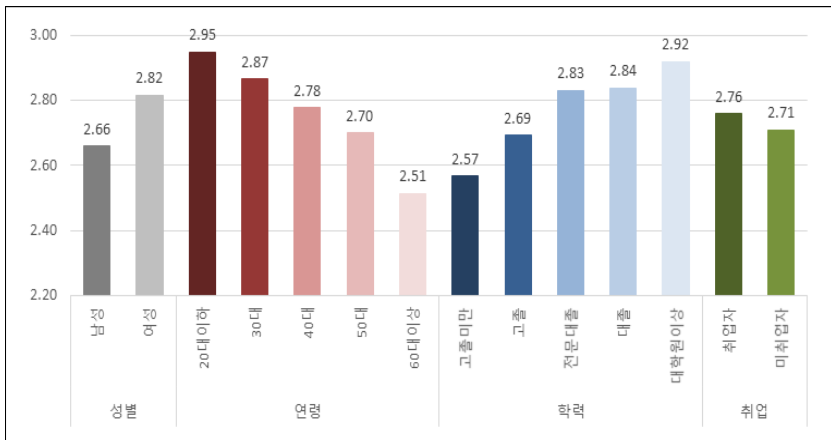
(단위: 점)

문항	취업	미취업
1.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69	2.64
2.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2.63	2.58
3.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2.75	2.69
4.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2.83	2.78
5.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2.76	2.70
6.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90	2.86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10-8〕 일터 성역할: 집단별 비교

(단위: 점)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역시 2번 ‘남성 일자리 우선’인데, 2.58점이다. 미취업집단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미취업 여성인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 먼저 일자리를 주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터 성역할 6개 문항의 평균점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10-8]이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 취업자 집단에서 성역할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다른 자료들의 기존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24차조사에 포함된 성역할 척도를 검증하고, 개인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척도의 검증 결과, 구성 타당도를 고려할 때, 3개의 영역으로 나뉘나 각 영역을 아우르는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문항 구성 시 기존 조사자료들을 토대로 일터와 가정 내 역할을 고려하였다. 일터 내 성역할 관련 문항은 일관되게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가정 내 성역할과 관련된 문항은 영역이 나뉘거나, 신뢰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한글번역의 한계,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질문 내용을 고려하여 가정 내 성역할과 일터 성역할로 나누어 본 결과, 가정 내 성역할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문항 취사선택에 따라 약 0.5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기초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조사 결과들과 상이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문항을 유지할 경우, 다른 조사들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일부 문항을 제외할 경우 척도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중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은 노동패널 실사용자가 결정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에 연구진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정 내 성역할 문항들을 유지하거나, 취사선택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둘째, 가정 내 성역할과 일터 성역할 모두 각 문항에서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 취업 집단에서 성평등하게 개선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기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이 각 영역에서 얼마나 잔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개발되었다. 이에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부분, 즉 점수가 낮은 문항과 집단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패널 다른 문항들과 연계해 사용할 때도 문항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24차 본조사에 포함된 성역할 척도는 일정 정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객관적 여건은 물론, 행위를 둘러싼 주관적 인식도 작용한다. 노동패널이 주목하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유지 과정에 가정과 일터 성역할이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성 성역할 편견에 더 영향을 받는 것 역시 자명하다. 여성의 노동 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여성가족패널이나 여성관리자패널 등이 있지만, 이들은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계되어 있어 남성과의 비교 분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노동패널이 성역할 조사 결과를 생산한다면, 노동 현장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로 남성과 여성의 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성역할 척도를 각년도 본조사에서 매년 다룰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총 13문항으로 문항 자체가 많지는 않으나, 성역할 척도가 인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연도별 변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가 일부 연도에서 빠질 경우, 다른 변수와의 연계가 어려울 수 있어 척도 자체의 사용량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앞서 <표 10-2>에서 제시하였듯이 여성가족패널과 한국복지패널, 양성평등실태조사 등은 모두 본조사 문항에 성역할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년도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성역할 인식 변화 추이를 제시하는 한편, 인식과 행위 간 역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가능하다면 각 연도 본조사에서 성역할 척도를 포함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부 록]

〈부표 10-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5.0	43.7	34.0	7.3	100.0
성별	남성	13.6	45.7	34.5	6.2	100.0
	여성	16.4	41.6	33.5	8.5	100.0
연령	20대 이하	24.3	49.9	23.7	2.1	100.0
	30대	17.9	46.9	29.3	5.9	100.0
	40대	13.5	44.4	35.4	6.7	100.0
	50대	14.2	43.4	35.6	6.8	100.0
	60대 이상	8.2	37.1	42.2	12.6	100.0
학력	고졸 미만	10.6	37.7	39.8	11.8	100.0
	고졸	14.1	42.9	35.6	7.4	100.0
	전문대졸	18.2	46.6	30.0	5.1	100.0
	대졸	16.4	47.4	30.9	5.4	100.0
	대학원 이상	20.6	44.5	29.3	5.6	100.0
취업	취업	15.5	47.2	31.6	5.7	100.0
	미취업	14.4	38.7	37.4	9.6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2〉 (부부 사이에서)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4.9	42.9	41.8	10.5	100.0
성별	남성	4.8	45.3	40.6	9.2	100.0
	여성	5.0	40.4	42.9	11.8	100.0
연령	20대 이하	5.4	36.3	43.3	14.9	100.0
	30대	6.0	43.7	39.3	10.9	100.0
	40대	5.0	45.6	40.7	8.8	100.0
	50대	5.2	43.2	41.4	10.3	100.0
	60대 이상	3.6	45.1	43.0	8.3	100.0
학력	고졸 미만	3.3	40.9	45.6	10.2	100.0
	고졸	4.8	42.8	42.2	10.2	100.0
	전문대졸	5.6	41.8	41.5	11.1	100.0
	대졸	5.5	44.9	39.4	10.3	100.0
	대학원 이상	7.1	46.6	34.5	11.8	100.0
취업	취업	4.9	43.8	40.8	10.4	100.0
	미취업	4.8	41.5	43.0	10.6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3〉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5.6	39.8	44.3	10.3	100.0
성별	남성	5.2	41.4	43.9	9.4	100.0
	여성	6.0	38.1	44.7	11.2	100.0
연령	20대 이하	8.7	49.4	34.3	7.6	100.0
	30대	8.5	42.8	38.4	10.4	100.0
	40대	5.3	37.3	46.8	10.5	100.0
	50대	4.9	39.2	45.0	11.0	100.0
	60대 이상	2.6	33.1	52.7	11.6	100.0
학력	고졸 미만	3.2	34.7	51.8	10.3	100.0
	고졸	4.7	36.8	47.8	10.7	100.0
	전문대졸	7.0	44.5	39.1	9.4	100.0
	대졸	7.0	43.8	39.0	10.1	100.0
	대학원 이상	10.0	40.9	36.2	12.9	100.0
취업	취업	6.0	41.5	43.0	9.5	100.0
	미취업	5.2	37.4	46.1	11.4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2	17.0	54.1	27.7	100.0
성별	남성	1.2	19.5	58.5	20.7	100.0
	여성	1.2	14.5	49.6	34.7	100.0
연령	20대 이하	1.6	15.7	45.5	37.1	100.0
	30대	1.6	16.7	48.7	33.0	100.0
	40대	0.9	17.2	55.3	26.6	100.0
	50대	1.0	18.1	57.2	23.7	100.0
	60대 이상	0.9	17.2	60.4	21.5	100.0
학력	고졸 미만	0.9	17.2	57.5	24.4	100.0
	고졸	1.2	17.5	57.5	23.8	100.0
	전문대졸	1.5	15.5	49.8	33.1	100.0
	대졸	1.1	18.0	51.1	29.8	100.0
	대학원 이상	1.3	14.0	49.6	35.1	100.0
취업	취업	1.1	17.9	54.0	26.9	100.0
	미취업	1.2	15.7	54.2	28.8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3.2	48.7	29.8	8.3	100.0
성별	남성	12.1	50.5	29.2	8.3	100.0
	여성	14.4	46.9	30.4	8.3	100.0
연령	20대 이하	5.1	39.0	41.2	14.7	100.0
	30대	11.9	44.7	33.5	9.8	100.0
	40대	13.5	50.5	28.1	7.9	100.0
	50대	14.4	53.0	26.5	6.1	100.0
	60대 이상	18.9	53.9	22.8	4.4	100.0
학력	고졸 미만	17.3	50.1	26.1	6.5	100.0
	고졸	13.5	51.7	27.9	6.8	100.0
	전문대졸	11.0	45.6	32.2	11.2	100.0
	대졸	10.9	47.0	33.3	8.8	100.0
	대학원 이상	14.5	45.4	29.9	10.2	100.0
취업	취업	13.0	50.5	28.7	7.8	100.0
	미취업	13.6	46.2	31.3	9.0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러 가게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3	20.9	56.0	21.8	100.0
성별	남성	1.3	21.4	56.1	21.2	100.0
	여성	1.3	20.4	55.8	22.5	100.0
연령	20대 이하	1.4	17.2	51.4	30.0	100.0
	30대	1.4	20.4	54.6	23.6	100.0
	40대	1.6	22.9	56.3	19.2	100.0
	50대	1.4	21.8	57.3	19.5	100.0
	60대 이상	1.0	21.8	58.9	18.3	100.0
학력	고졸 미만	1.3	20.3	57.2	21.2	100.0
	고졸	1.3	21.6	56.4	20.7	100.0
	전문대졸	1.7	18.9	54.6	24.8	100.0
	대졸	1.1	22.2	55.4	21.3	100.0
	대학원 이상	1.9	20.1	55.6	22.4	100.0
취업	취업	1.4	20.3	56.1	22.2	100.0
	미취업	1.3	21.6	55.7	21.4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7〉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4.6	50.7	29.7	5.0	100.0
성별	남성	13.7	50.5	31.0	4.8	100.0
	여성	15.5	50.9	28.4	5.2	100.0
연령	20대 이하	19.2	53.3	24.0	3.5	100.0
	30대	18.6	52.6	24.8	4.0	100.0
	40대	15.3	50.5	28.9	5.3	100.0
	50대	13.4	51.2	30.2	5.1	100.0
	60대 이상	9.4	47.5	36.8	6.3	100.0
학력	고졸 미만	10.3	48.1	35.8	5.8	100.0
	고졸	13.0	50.7	31.1	5.2	100.0
	전문대졸	17.8	51.2	26.6	4.4	100.0
	대졸	16.9	52.2	26.7	4.2	100.0
	대학원 이상	19.0	53.1	21.8	6.1	100.0
취업	취업	15.5	52.2	27.6	4.8	100.0
	미취업	13.4	48.6	32.7	5.3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8〉 사업은 여자보다 남자가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0.9	50.8	32.7	5.6	100.0
성별	남성	8.3	49.6	36.1	5.9	100.0
	여성	13.5	52.0	29.2	5.3	100.0
연령	20대 이하	16.6	58.0	23.2	2.1	100.0
	30대	15.2	54.4	26.7	3.7	100.0
	40대	11.2	52.0	31.9	4.9	100.0
	50대	9.3	51.2	33.0	6.5	100.0
	60대 이상	5.2	42.5	43.2	9.1	100.0
학력	고졸 미만	7.0	44.0	41.0	8.0	100.0
	고졸	8.8	50.6	34.2	6.4	100.0
	전문대졸	13.4	53.2	29.8	3.6	100.0
	대졸	13.8	54.2	27.6	4.4	100.0
	대학원 이상	17.3	55.4	22.2	5.1	100.0
취업	취업	10.9	52.5	31.2	5.4	100.0
	미취업	10.9	48.4	34.8	6.0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9〉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줘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0.5	47.3	34.7	7.5	100.0
성별	남성	7.7	45.3	39.3	7.7	100.0
	여성	13.3	49.4	30.1	7.3	100.0
연령	20대 이하	17.9	55.1	24.5	2.4	100.0
	30대	15.1	52.0	28.4	4.5	100.0
	40대	10.1	49.6	33.4	6.9	100.0
	50대	8.3	47.3	35.7	8.7	100.0
	60대 이상	4.4	37.5	45.7	12.4	100.0
학력	고졸 미만	6.3	39.4	43.0	11.2	100.0
	고졸	8.4	45.7	37.3	8.7	100.0
	전문대졸	13.3	49.6	31.8	5.4	100.0
	대졸	13.1	53.2	28.8	4.9	100.0
	대학원 이상	18.6	54.7	21.5	5.2	100.0
취업	취업	10.5	49.1	33.4	7.1	100.0
	미취업	10.5	44.9	36.5	8.1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1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2.1	53.1	30.0	4.9	100.0
성별	남성	8.8	52.0	34.3	4.9	100.0
	여성	15.4	54.2	25.6	4.8	100.0
연령	20대 이하	18.9	59.0	20.2	1.9	100.0
	30대	15.8	57.3	24.2	2.7	100.0
	40대	12.8	56.0	27.1	4.1	100.0
	50대	10.5	52.4	31.9	5.1	100.0
	60대 이상	5.8	44.9	40.8	8.6	100.0
학력	고졸 미만	7.6	45.6	38.8	7.9	100.0
	고졸	10.6	52.0	32.0	5.4	100.0
	전문대졸	14.9	55.8	26.3	3.0	100.0
	대졸	14.4	57.8	24.6	3.2	100.0
	대학원 이상	19.4	58.7	18.9	3.1	100.0
취업	취업	12.3	54.6	28.9	4.3	100.0
	미취업	11.9	51.0	31.5	5.6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11〉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4.0	56.3	26.4	3.6	100.0
성별	남성	10.4	55.6	30.5	3.1	100.0
	여성	17.6	57.0	22.2	1.9	100.0
연령	20대 이하	21.1	58.7	18.3	2.2	100.0
	30대	16.8	58.6	22.4	2.8	100.0
	40대	14.9	58.4	24.0	3.6	100.0
	50대	12.5	56.3	27.5	5.3	100.0
	60대 이상	7.7	51.8	35.1	4.8	100.0
학력	고졸 미만	9.3	52.8	33.1	3.9	100.0
	고졸	12.6	55.6	28.0	2.3	100.0
	전문대졸	17.1	58.3	22.3	2.4	100.0
	대졸	16.2	58.3	23.0	2.4	100.0
	대학원 이상	20.6	57.5	19.5	2.9	100.0
취업	취업	14.1	57.6	25.4	4.0	100.0
	미취업	13.9	54.4	27.7	13.9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1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줘야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3.1	52.1	30.1	4.7	100.0
성별	남성	9.0	51.0	35.1	4.8	100.0
	여성	17.2	53.2	25.1	4.5	100.0
연령	20대 이하	20.3	57.1	20.1	2.5	100.0
	30대	16.9	57.6	22.2	3.3	100.0
	40대	14.7	54.3	27.4	3.5	100.0
	50대	11.4	51.6	32.6	4.5	100.0
	60대 이상	6.1	44.3	41.8	7.9	100.0
학력	고졸 미만	8.3	44.5	40.2	7.1	100.0
	고졸	11.3	52.2	31.7	4.9	100.0
	전문대졸	16.0	54.6	25.9	3.4	100.0
	대졸	16.7	55.3	24.4	3.6	100.0
	대학원 이상	17.1	59.8	20.0	3.2	100.0
취업	취업	13.1	54.1	28.9	4.0	100.0
	미취업	13.2	49.4	31.8	5.6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부표 10-13〉 어떤 직장이든 여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전 체		16.9	56.9	23.3	2.8	100.0
성별	남성	13.6	56.8	26.7	2.9	100.0
	여성	20.3	57.0	20.0	2.7	100.0
연령	20대 이하	22.9	59.0	16.0	2.0	100.0
	30대	19.9	58.4	19.5	2.1	100.0
	40대	17.5	57.9	22.1	2.5	100.0
	50대	16.6	55.4	24.9	3.2	100.0
	60대 이상	10.8	55.0	30.5	3.7	100.0
학력	고졸 미만	12.0	55.6	28.9	3.5	100.0
	고졸	16.0	56.4	24.6	3.0	100.0
	전문대졸	20.0	58.1	19.6	2.3	100.0
	대졸	19.3	57.5	20.8	2.4	100.0
	대학원 이상	20.9	58.8	18.4	1.8	100.0
취업	취업	17.2	57.9	22.3	2.6	100.0
	미취업	16.5	55.6	24.9	3.1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執筆陣

- 장인성(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정현상(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권익성(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동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4차(2021)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22년 12월 26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승택 원장직무대행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ISBN 979-11-260-0597-0

정가 9,000원



한국노동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